



11

198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11호

(루계 505)



◆◆◆◆◆◆◆◆◆◆ 차 례 ◆◆◆◆◆◆◆◆◆◆

혁명문학건설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자	4
이분이 우리의 수령이시다 (외 1 편).....	6
미소	7
쇠물노을 붉게 타네	7
향도자의 영웅성	8
내 잠들수 없었노라	8
백두밀영고향집	9
그날의 노래	9
한그루 소나무에 깃든 이야기	10
백두산을 노래한다	12
뜻깊은 하루	15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16
사색적이며 섬세한 눈물겨운 서정심리로 일관된 가사	16
영예군인앞에	18
불멸의 글발 (외 1 편).....	19
청춘에 대한 생각	20
내 한생 오를 메부리	20
지구의 어디 가나 그 어디서나	21
흐름 멈춘 강에 부치여 (외 1 편).....	23
배시간표를 두고	24
축복	24
물과 불	25
귀향의 밤	33
만근에 대한 생각	34

단숨에 달려왔노라 나의 수도여	35
휴일의 공원에서	36
가을날 들길에서	36
탄전의 마음	37
우리 시대의 청년전위-3 대혁명소조원의 형상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38
《풍년비》 내리는 미루등에서	44
그 마음과 속삭였네!	45
지향	46
탐사의 길	54
구성의 견지에서 본 작가의 개성	55
분계선초소에서	59
나는 양덕을 사랑한다	60
나무와 잎사귀의 노래	65
걸음씨	66
휴가길에서	68
백두에서 판문점까지	69
민족	69
통일새	70
백두산에 모였다	70
노래는 올랐구나	71
《조국통일!》 《조국통일!》	71
다시 보라, 통일의 원썩를	72
백두의 우뢰소리	73
잠들수 없는 밤에...	74
신천의 철규	74
남쪽으로 향한 이 길은...	75
소설의 서정미	76
고향의 저녁노을아	78
숫 눈 길	79
내 마음의 닳은...	79
나의 무전기앞에서	80

혁명문학건설에서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자

오늘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아가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박한 사회적 요구로 나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우리 문학예술의 생명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의 생명이다. 그것은 오로지 주체사상만이 인간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기때문이다.

인류의 전력사가 그러하였지만 특히 오늘의 우리 시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다. 인간에 대한 온갖 예측과 압박을 끝장내고 그 누구에게도 얹매임이 없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어느 민족, 어느 계급, 어느 사람에게나 삶의 제일차적 요구로, 진정한 존엄과 가치의 첫째가는 기준으로 되고있다.

자주성이야말로 인간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인식이 더는 움직일수 없는 철리로 자리잡고있다.

바로 이 시대, 이런 인간의 요구를 구현한 참된 인간학을 창조하자면 생활탐구와 창작의 전과정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만 저하나의 육체적 향락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개인으로 살지 않고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뭉친 사회정치적 생명체속에서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을 누리며 살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뚜렷이 형상할수 있으며 이 영생하는 사회적 집단속에서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가장 고귀한 충성심과 효성을 다 바쳐나가는 삶의 아름다움과 드높은 인간적 자부심을 감명깊게 그려낼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경험에도 구애되지 않고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실천할수 있는 방법론을 준다. 주체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야만 우리 작가들은 교조와 도식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인간성격, 새로운 형상수법을 탐구하여나가는 진짜배기 창작가가 될수 있으며 가장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형상세계를 개척해나갈수 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 작가들은 주체사상에 철저히 의거하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함으로써만 오늘날이 아니라 래일에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영원한 생활의 교과서로, 운명의 길잡이로 복무할수 있는 참된 문학을 창작할수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는것은 나라의 안팎에 조성된 정세로부터 흘러나오는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공세는 극한점에 이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사상공세는 문학분야에서 특히 강화되고있다.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어용문학은 인민의 건전한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다. 지난세기 5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주의》가 문학분야에 대두하였으나 그것을 다 모두어 줘 여짜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낼수 있다. 그것은 다같이 인간부정, 생활부정의 문학이라는것이다.

자연주의나 프로이트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속성을 거부하고 자연적 속성만을 내세움으로써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자체를 부정하였으며 실존주의는 극한상황속의 고독한 존재, 유한한 삶의 계선을 바라보는 불안한 존재를 《실존》으로 선포 하고 죽음을 찬미함으로써 역시 인간과 생활 그자체의 의의를 부정하였다. 초현실주의나 《의식의 흐름》도 객관적인 현실묘사를 거부하고 현실을 《초월》한 세계, 순수 의식의 세계를 묘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마찬가지로 함정에 빠졌다. 모더니즘의 모든 류파, 모든 사조들이 다 이렇듯 인간과 생활부정의 막다른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을 똑바로 인식하고 자주의식에 눈뜨는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는 악랄한 목적을 추구한것이였다. 인간이 자기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잊어버리고 숙명의 노예, 향락의 노예로 전락되기를 바란것이였다.

또한 제국주의 어용문학은 생활의 사실주의적 묘사원칙을 반대하고 《현대적 형식》을 탐구한다는 구호밑에 극단한 반사실주의, 형식주의에로 줄달음침으로써 형상성을 부인하고 문학 그자체를 부인하였다. 이름자체가 《반소설》, 《반연극》이라고 붙여진 소설 아닌 《소설》, 연극 아닌 《연극》이 등장하고 병적인 《이미지》의 련거에 몰두하는 시 아닌 《시》가 출현하였다.

이 엄청난 제국주의적 반동사상공세에 호응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탈을 쓴 기회주의문학

도 더욱 회색풍조에 물들어가고있다. 《현대문화》의 명목아래 생활의 사실주의적 묘사를 내던지고 점점 서방화되어가고있는 기회주의문학은 사실상 사회주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고취하는데 복무하고있으며 자주적인 인민의 요구를 말살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근로인민 대중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인류의 진보적인 문학을 고수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중대한 사명이량심있는 작가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있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웅당 이 영예로운 투쟁의 앞장에서 나아가야 하며 누가 무어라고 하든 제정신을 잃지 말고 자주적 기치, 사회주의적 기치, 혁명의 기치를 높이 쳐들어야 한다.

력사적 경험은 절대로 남의 품에 놀지 말고 우리 당이 내놓은 구호대로 철두철미 주체적 립장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아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지금 복잡한 정세하에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이 조성될수 있고 부르쵸아사상과 수정주의를 비롯한 이색적인 사상조류에 말려들어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다.

혁명문학건설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면 무엇보다먼저 작가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것은 우리 당의 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아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식의 문학을 건설하자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사업을 모든것에 앞세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원문을 놓고 깊이있게 하며 창작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이다. 주체사상교양에서는 로작원문을 학습시키는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런데 주체사상학습은 지식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학습으로 되여야 한다. 그런것만큼 작가들은 학습회에서 현실에 나가 보고 들은 내용과 결부하여 토론할수 있고 자기가 창작하는 작품의 주인공문제를 비롯한 미학상 문제와 결부하여 토론할수 있다. 문제는 주체사상의 명제를 하나 알아도 그 진수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창작과 생활에 구현해나갈수 있게 학습하는데 있다.

혁명문학건설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면 또한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친히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더욱 찬란히 꽃피워주신 우리의 혁명적 문예전통은 우리 문학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영원히 고수하여 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며 불멸의 재부이다. 만일 우리가 주체의 문학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 혁명적 문예전통을 놓쳐버린다면 키를 잃은 배와 같이 우왕좌왕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문학건설에서 남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주체사상의 원리로 일관되고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빛나는 불멸의 재보인 혁명적 문예전통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이 바로 우리 식 문학작품의 영원한 본보기이며 그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발전시킨 문학이 우리 식 문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적 문예전통을 외곡하거나 헐뜯는 사소한 편향도 철저히 경계하면서 오직 이것만을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혁명문학건설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면 다음으로 온갖 부르쵸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비롯한 이색적인 문예사상조류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부식된 반동적인 《현대문화》와 모더니즘의 영향은 우리 사회주의문학안에도 교묘한 형태로 스며들어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것은 《현대인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창조》라는 미명아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원칙과 어긋나는 반사실주의적 작품들을 만들어내고있는것이다.

사실상 이들은 형식에서만 지난날의 건전한 사실주의전통을 거부한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현실의 진실한 반영을 거부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이 이색적인 경향이 우리 문학의 내부에 《혁신》의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것을 날카롭게 경계하며 제때에 적발속청하여야 한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의 참된 본보기를 창조하자.

이분이 우리의 수령이시다 외 1 편

장건식

이분이

우리의 수령이시다

느티나무 그늘밑 명석우에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장살림 다정히 의논하시는분

이분이

우리의 수령이시다

눈내리는 한밤중

공장지구 사택마을 돌아보시며

집집의 구들뚫을 짚어보시는분

간고한 20 성상

일제의 백만대군 물리치며

길없는 험산준령 만리광야도

인민 위해 헤쳐오신 전설의 영웅

밀영의 긴긴밤

나라잃은 민족의 신음소리를

가슴에 새기시며 지새우신분

그날의 사무친 그리움은 커서

오늘도

인민들을 떠나서는 잠 못드시는 수령

이분이시다

인민들의 버림받던 힘과 지혜를

자주의 무진한 높이우에 빛내여주시고

사람마다 바라는 앞날의 꿈을

오늘에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이분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수령이시다

영원한 강토와 함께

불멸하는 민족과 더불어

인류력사가 긍지높이 외울 이름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미소

인민들과 자리를
함께 하실 때면
그 기쁨 못내 소중하시여
만면에 웃음 가득 지으시는분

설사 그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너그러이 웃으시며
일깨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

가난했던 이 땅을
락원으로 빛내시며
헤치시는 지름길이 순탄했던가
곡절많은 혁명의 초행길우에
모진 설움 모진 아픔 다 겪으시면서도
인민들앞에서는 변함없는 그 미소

항일의 혈전장에
쓰러진 전사들을 묻으시면서도
솟는 눈물 결연히 삼키셔야 했던분
장밤 잠 못드신 그 썰녜에도
조국으로 혼연히 대오를 이끄셔야 했거니

그이 품에 안기여 살아가면서도
인민들은 몰라라, 다는 몰라라
태풍이 지나간 맑은 아침에

바다가에 뛰노는 아이들처럼
잔잔한 바다속 그 깊은곳으로
얼마나 큰 격량이 소용돌이쳤는지

인민들이 겪어야 할 온갖 시름을
다 말아안아 새기시는 품
인민들이 넘어야 할 가시덤불길을
앞서 웃으시며 헤쳐가시는
사랑의 그 끝을 그 누가 알랴

인민의 소원은 다 풀리였어도
그분의 소원은 끝이 없는듯
좋은 날에
더 좋은 앞날을 여시며
한평생을 바치시는 인민의 수령

어제도 오늘도
지금에도
인민 위해 걷고 걸으시는 우리 수령님
어느때 어디서 만나뵈워도
그이께선 환히 웃으신다

그래서 락원의 이 강산은
사시절 봄날처럼 따사로웁고
그래서 이 나라 인민들은
늘쌍 삶의 벅찬 기쁨속에 산다!

가사

쇠물노을 붉게 타네

주광남

저 하늘에 쇠물빛 퍼져오르면
불노을에 어리는 마음은 하나
당중앙 창가에 노을빛 곱게 피울
가슴속의 그 소원 하늘가에 피어나네

언제 봐도 아름다운 쇠물노을은
당의 뜻을 받드는 우리의 마음

낮이나 밤이나 하늘가득 펼치며
끝없는 삶의 보람 붉게도 꽃피우네

한번을 피워도 천번 피워도
불노을에 어리는 마음은 하나
성스런 당기발에 붉은 빛을 더해갈
그 열정 뚫어넘쳐 쇠물노을 붉게 타네

향도자의 영웅성

나빌 아흐마드 무쓰라파

금강산의 뿔부리에서
기발이 펄펄 나뭇기는듯하여라
그 기폭엔
위대한 사상 아로새겨져 빛나고있나니
이 땅에서 분렬의 고통 가셔버리고
민족대화합의 날 안아오리

조선은 하나로 통일되리
원썬들의 발악은 심하여도
새들은 기쁨을 노래하며
창공높이 날아오르리

그 하늘 한가운데 찬란한 별 솟았네
그 별은 **김정일**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하시려고
높이높이 솟았어라
날이 밝는다
기쁨의 태양 솟아오른다
행복한 조선에
온갖 차별 없어지고

인민은 하나로 뭉쳤나니
숨결도 하나
지향도 하나
심장도 하나로 고동치네

위대한 스승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만세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비서 만세
통일된 조선 만세
제국주의자들 발악하여도
하나의 대오로

하나와 같이 뭉쳐
조선은 나아가리
찬란한 래일을 향하여
영광의 금자탑을 쌓기 위하여

(필자는 에쉴트 와이엘세계출판물전람사
사장임)

내 잠들수 없었노라

-한 외국의 벗의 수기에서-

서동린

우아함과 장엄함으로
이 마음 현혹시키던 낮의 행사가 끝나면
신비론 별천지의 황홀한 야경속에
춤과 노래 끝이 없어
평양이여, 내 잠들수 없었노라

다시없을 명절중의 명절이
벅찬 기쁨과 환희속에 계속되고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열정이
이 심장을 강렬히 불태우기에
평양이여, 내 잠들수 없었노라

이 나라의 눈빛들에 어린
친절과 우정의 한없는 정다움
이 마음을 사로잡고
도시의 아름다움의 매혹으로 하여
평양이여, 내 잠들수 없었노라

가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손꼽으며

오는 폐막의 시각이 좀더 길기를 바라며
세상에 으뜸인 경기장 상공을 날으는
흰비둘기의 자유로운 나라와도 같이
이 마음 미래의 세기에로 끝없이 나래쳐
평양이여, 내 잠들수 없었노라

천금같은 그 하루하루들이
내 가슴가득 주옥들을 채워주었노라
이 땅에 넘치는 싱싱한 생활의 기쁨과
이 땅에 존엄높은 일심단결의 위력과
이 땅에 나래퍼는 가장 눈부신 미래를...

날은 짧았어도
내 뜨거이 새겨안은것
아아, 주체!
거기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매혹과
위대함으로하여
평양이여, 내 넓은 영원히 잠들수 없노라

백두밀영고향집

리광선

송엄한 노래가 여기서 울린다
가장 높은 상상봉
하늘이 가장 가까운곳에
높이 서있는 백두밀영의 고향집

뜨겁게 칭송하는 마음들에
어깨를 낮추고 여기 와 선다
해와 별이 지켜주는
만대에 빛날 조선의 고향집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겨
수억천년
얼마나 숙망하던 집이던가
얼마나 바라마중하던 고향집이던가

처마밑에 깃든 따사로운 봄은
눈석이 봄마중 노래로 울리고
피창가에 피는 아침노을은
이 나라 모든 집들의 창가에 새날로 펼쳐지고

밝고밝은 프락의 해빛은
구만리 앞길에 영광으로 비껴가고
방안에서 울려나온 부드러운 자장가소린
3천리에 울려가
따사로운 큰 품을 펼쳐주어라

아아, 해가 떠도 그림고
달이 떠도 그리운 고향집
백두의 슬기와 넋이 깃들고
푸른 기상과 의지가 비껴
누구나 다 찾는 고향집
온 나라를 다 불러들이는 고향집

가장 뜨거워지는 마음 안고
이 집 프락에 서니
이 몸은 높은 령마루에 선듯
발밑에 구름이 흐르고
온 우주를 안고 높뛰는 이 심장
백두의 넋으로 불타라

세계가 어깨를 낮추고
우리려 노래하는 집
눈속에서도 봄을 불러
꽃을 피우는 집

어디서나 그 언제나 우리 찾는 집
우리의 가장 송엄한 노래를 드리려
우리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노래를 삼가 올리려
온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 빛나라 조선의 고향집이여!

그날의 노래

최장수

해빛넘친 강산에 울려퍼지는
자유의 노래를 들으십니까
경포만 물결에 옷자락 날리며
오늘도 견고제시는 김형권동지

부르시는 노래의 선창에 이끌리어
거리를 활개치며 따라선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귀기울이십니까
그날에 지으신 그 밝은 미소
저 교정의 창문마다에 비껴있습니다

간악한 일제의 피어린 살풍에

피멍든 삼천리가 몸부림칠 때
누리에 붙는 불이 되시여
심장으로 부르신 불같은 그 노래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

아 이 노래 밤마다 야학방에 모여든
백산지구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었고
조국땅에 쓰러지는 가슴마다에
항거의 불씨를 안겨주었거니

장군님 이끄시는 혁명군대오에
천만대오를 묶어세우시며
어둡던 조국땅에 의로운 자욱을
새겨가신 김형권동지이시여
반일무장투쟁의 선각자이시여

때로는 수수한 농민의 차림새로
때로는 소박한 로동자의 차림새로
학교와 마을 그 어디에서나
신음하는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계신 선생님의 그 노래

그 노래 불붙는 기발처럼 나래쳐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었고
피눈물 솟던 가슴가슴에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었나니

성스러운 투쟁의 첫 기슭에서
선생님께서 부르신 그 노래는
과발리와 절부암 범골에서

높이 올리신 멸적의 총성
살아있는 조선의 서리찬 기상

선생님께서 부르신 그날의 노래
오늘은 온 나라 마음들이 따라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따라서
혁명의 한길로 굽이쳐가리니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이시여
선생님의 정의로운 그날의 자욱에
혁명의 발자욱을 따라세우며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도
선생님의 선창에 따라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부릅니다

우리는 누리에 불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희망의 표대는 붉은기요
웨치는 구호는 투쟁뿐
...

한그루 소나무에 깃든 이야기

백인준

먼길을 찾아왔다 두만강 넘어
왜놈들에게 짓밟혀 눈물짓는
국내의 동포들을 찾아
장군님의 해빛을 안고 반가운 소식 전하러
국내공작원-조선인민혁명군 대원 한사람
랑림산맥 험한 산발 넘어 국내 깊이 들어왔다

오붓한 마을
어느 집이라도 들리기만 하면
다정한 어머니나 할머니 달려나와
맑은 물 한그릇 가득 떠주며
마른목 추겨가라 하겠건만 들리지 않고
마을앞 느티나무에 인사 남긴채
밤길을 다우쳐 사선을 헤치며
평양성이 바라보이는 어은동 깊은 골안에
이르렀더라

맞이해주는건 뻔뻔 이 들어선 로송나무들
<아 여기서는
숲속의 나무들마저 허리굽었구나!>
어루만져보니 터지고 찌지고 꺾지 일어
한뼘 고생에 트고튼
고향집 늙은 부모들의 손잔등생각
알수 없구나 소나무속안엔

한해한해 슬픈 역사를 아로새기며
몇백돌기나 수난과 인고의 년륜들이 아프게
그려졌는지

그러나 걸만 보아도 알려지여라
이 험난한 땅 험난한 세월속에서는
사람들만 아니라 소나무마저
걸보다 속에 더 아픔이 서려있음

소나무야 조국의 늙은 소나무야
너 이 나라 굶주린 인민들에게 너의 송기를
벗겨내어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구나
겉질 벗긴 그 상처도 아프련마는
전쟁판에 기쁨이 모자란 왜놈들마저
너의 거죽을 벗기고 살을 도리어
방울방울 피방울같은 송진을 빨아갔으니
너도 이 땅에 생겨난탓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쓰라린 눈물을 소리없이 흘려왔느냐

그러기에 더욱 유정하여 투사는
어린 날 할아버지등에 업히듯
늙은 소나무줄기 안아보고 쓸어보다가

그 터지고 굵은 등에 몸을 기댄다
 아!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학대받는 동포들의
 측은함이
 등골에 찌릿이 스미여들여라
 굽어보면 저기 산밑에 마을어귀에
 번뜩이는 왜놈의 낚창
 피문은 독수리날개같이 퍼덕이는 일장기,
 마을길 한가운데로 어린 처녀애 하나
 머리에 무겁게 물동이 이고 타박타박 걸어오며
 이마에 손을 올려 자주 훔치고 또 훔치는것은
 고생처럼 차넘치는 동이의 물인가 아니면 땀인가
 눈물인가

짓밟힌 동포들의 질은 한숨인양
 자욱히 무겁게 덮여있는 안개속으로
 저기 보통별 지나 신작로 하나 넘어서면
 거기엔 장군님 고향땅 만경대가 있으리
 투사의 귀에는 사향가소리 들리는듯

소나무야 너도 여기서
 장군님이 고향집 떠나
 광복의 먼길에 오르시는것 바래드렸지
 송진같이 진하고 굵은 눈물 흘리면서도
 너 장군님 그후 소식 알고싶었지

백두산에서 불어내리는 바람소리 받아안을
 때마다
 이제나 저제나 북쪽에서 반가운 소식 실려오는가
 너의 높은 초리를 길게 빼며 바라보았지...
 내 오늘 그 소식 전하러 왔노라

만경대고향집 떠나시여 10 여년
 백두산 높고낮은 줄기줄기와
 남북만주 넓은 들에 혈전 수만리
 밀림과 눈보라와 광야에서 청춘을 보내시며
 항일대군을 거느리시고 강철의 령장, 민족의
 영웅으로

그 길에서 조선의 3대자랑도 꽃피었으니
 이제 멀지 않아 광복의 새봄 안고 돌아오시리라
 그 개선행렬에 백두산너장수도 따르고
 백두산광명성도 함께 빛나리라

아! 이 소식 만경대에도 전하고
 망국의 슬픔을 안고사는 동포들에게
 새벽하늘 새벽별처럼 빛나게
 어둠을 찢는 퇴성벽력처럼 높게
 온 강산에 일시에 알려주고싶다만
 내 이제 여기 너에게 먼저 전해주노니
 소나무야 알아라! 기뻐하라!
 소백수 물 맑게 흐르는 깊은 밀영에서
 장군님의 대를 이어가실 후계자 태어나셨다
 그러니 이제 조국이 광복만 되랴
 광복된 조국이 영원히 번영할

창창함 미래의 운명까지 만년반석우에
 놓여졌구나

너의 터지고 타드는 한가슴을 헤치고
 생명수 부어주듯 진한 먹물로
 한자한자 글발을 아로새긴다
 〈평안민들이여 눈물 말고 백두광명성
 바라보라〉

투사가 안겨주는 글자들을
 불사약마냥 생명수마냥 받아안으며
 로송나무의 말라가던 억만잎새 설렌다
 굽어들던 나무줄기 삽시에 허리퍼는듯

소나무는 창공을 향해 초리를 높이 들며
 온 세상 향해 와와 소리 높인다
 그러자 온 어은동굴안의 나무들이 소리치고
 대성산에서도 모란봉에서도
 나무와 나무마다 일새와 가지마다
 일제히 바람을 일쿠며 화답한다
 〈장군님이 곧 오신다!〉
 〈백두광명성도 맞이하리라!〉

투사는 사라지고 소나무는
 가슴에 안긴 글발을 한자한자
 두터운 새 껍질로 고이 감싸기 시작하며
 가지와 잎새들을 향해 웨친다

우리 이 글발을 고이 지켜가자
 이제 왜놈의 도끼날이 나의 허리를 찍고
 착취의 악독한 칼끝이 온몸을 허비며
 방울방울 마지막 피방울같이 송진을 빨아가도
 우리 죽지 않고 이 글발을 지켜가자!

비바람 치고 찬서리 내리고
 온 강산에 백설이 뒤덮이고 내 허리 눈속에
 묻혀도
 내 가슴 깊이 안겨진 이 글자들은
 날을 따라 달을 따라 금문자로 변해가리
 송진이 땅에 묻혀 세월이 흐르면
 호박이라는 보물로 굳어지듯이...

사나운 불길에 내 몸이 다 쏘이 되여도
 숯덩이에 또다시 불이 달려도
 이 글자들은 녹지도 타지도 않고
 불길속에서 보석들처럼 빛을 뿌리리

장군님 이 땅에 돌아오시고
 3대자랑 3대통은 활짝 꽃필 그날까지
 내 가슴에 안은 영광과 희망 지키며
 멀리 백두산 우리러 굳건히 솟아있으리
 늙은 소나무 조국의 창공을 우리르며
 온 세상이 들으라 바람소리 높인다

시조

백두산을 노래한다

김덕선

백두산

사시절 하얀 만년설 펴이고
호심이 뿔어올리는 입김을
안개의 바다로 펼치는 산정
만병초 향기 만리에 흐르고
산제비 천지에 깃을 적시는
신비로운 산!

장군봉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네 산악의 절정으로 솟았구나
향도봉은 천지의 은구슬 휘감고
너의 정기를 한몸에 안았구나

산이 기묘하여
절경이던가
명승이라 이름높아
전설도 많던가

저 이끼푸른 바위는
민족의 비문을 활화산으로 터칠 때
장군님 높이 드셨던 주먹이
강철의 의지로 굳어졌는가
저 장군봉의 칼벼랑은
그이 빼어드셨던 장검이 아닌가

움실대는 천리수해
구호목의 글발들은
백만대군을 한칼에 베인
장군님의 그 위업 전해주는가
불어오는 밀림의 바람도
그날의 승전고를 울려주는듯...

아, 그 위업 이으려
향도봉 높이 솟아오를 때

천지는 쌍무지개봉에 무지개다리 놓으며
그날의 장검
백두의 아들에게 넘겨주었나니

순간에도 구름을 모아오고
우뢰를 울리며
내리꽃히는 번개의 섬광은
이 세상 어둠을 가셔내고
력사의 새 아침을 누리에 펼쳐갈
친애하는 그이의 기상

저 계곡에 차흐르는 눈석이물은
누리에 봄삭을 움푹우는
그이의 정다운 속삭임이 아니더냐
산벼랑을 날아에는 바위종다리의 노래는
미래를 알리는
다정한 예언이 아니냐

그 위업 노래하자고
천년 뿌리내린 정일봉은
백두에 솟아 빛나고
안개는 해돋이바위를 감돈다
새들은 소백수의 맑은 물에 깃을 적시고
꽃들은 귀틀집뜨락에 향기를 풍긴다

오 백두산!
그래서 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이의 존함을
이 나라의 유구한 력사로 받들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의 모습을
찬란한 미래의 조선으로 받들고있다

고향집

백두산 줄기가 뻗어내리어
천고의 밀림
천리수해를 트랙으로 펼치여
백두밀영의 귀틀집
세월의 풍상 네가 다 안았는가
벽을 쌓아올린 통나무는
탄알을 막아선 방패 같아도
피창은 그날의 총성을 듣고계신
그이의 마음처럼 열려져있구나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청신한 바람을 타고 울려오는
찌죽이는 새소리
트락을 적시며 흐르는
소백수의 맑은 물소리...

천지를 감도는 안개를 뚫 끊어
그이의 요람으로 펼치고
밀림의 눈바람도 봄꿈을 속삭일 때
장군봉이 백발을 날리며
그이의 어린 손에 장검을 쥐여주던
그날의 영광을 이야기하는가

백두의 웅자를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산을 고향으로

백두의 아들로 태어난
그이의 집이었기에
멈출줄 모르던 세월의 동란이
여기에 와 잠들었구나

아, 집이여 !
너는 만고풍상 다 이고
가장 깨끗한 언덕에 솟아올라
생의 아지에 즙을 주고
꽃망울을 움틔워주는
내 삶의 빛이 시작된 곳

너는
무르익은
열매의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
청신함과
미래를 가득 안고 솟아있구나

아, 집이여!
그때문에
너는 밀림속에 자리잡은
통나무귀틀집이여도
만민이 삶을 맡기고 사는
혁명의 고향집!

붓나무는 속삭이네

못가에
흰구름 이고선
붓나무
삼지연의 붓나무야!

불어가는 바람결에도
네 조용히 설레임은
너전사 떠올리신 맑은 물
장군님 받으시던 그 기쁨 못잊어선가

사시절 하얀 네 모습은
장군님 모시는 너전사의

변함없는 마음
그 깨끗함인가

어제도 그 한마음
오늘도 그 한마음
장군님 품속에 뿌리내리고
영원한 기쁨의 추억을 속삭이네

아, 속삭이네
속삭이네
천만가지 아지쳐도 그 마음 아지치며
억만잎새 피워도 그 기쁨 피우며

백두산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백두산상의
두메진달래

이 땅이 소중한
땅을 그리안았나
눈우에도 뿌리내리고
땅에 붙은듯 피었네

네 모습 하도 귀해
무릎꿇고 안아보니
온몸 다해 불타는 꽃
온몸 다해 풍기는 땅의 향취

백두를 떠나선 못살
내 마음 네 피웠나
퍼도 이 땅을 안고 편다네
저 이 땅을 안고 지리라네

설레이라 대홍단벌이여!

설레이네 밀바다
대홍단의 밀바다
알알이 영근 이삭
쏟칠듯 텅길듯
벌가득 넘쳐나며 파도치네

어디더냐
김정숙어머님 오시였을적
땅은 있어도 뿌릴 씨앗이 없어
봄을 싣고오던 아지랑이조차도
화전민들의 한숨소리에
이 땅 멀리 사라지던곳

그 봄날
아픈 가슴 누르시며
한되박의 밀을
이 벌에 씨앗으로 주고가신
어머님 그 사랑 밀바다에 실렸나

설레며 흥치는 밀바다

어머님을 소리쳐부르고
어머님 오실적 이 벌을 딛고 오시라고
밀바다는 벌가득 넘쳐나는가

어머님 안으셨던 뜻을 담아
벌의 이름도 백두삼천벌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
안고사는것도 백두삼천벌

설레이라, 대홍단벌이여
쏟칠듯 텅길듯
벌가득 넘쳐나며 파도치는
대홍단의 밀바다, 행복의 바다여!

그날에 어머님 주고가신것은
작은 씨앗이었어도
어머님은 그 씨앗으로
꽃피날 오늘의 조국을
땅이 아닌 사람들의 가슴에 묻어주셨구나

뜻깊은 하루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40돐을 앞둔 1972년 4월 22일이였다.

이무렵 수도에서 진행되는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올라와있던 새 세대 군중, 병종 사령관들은 이날아침 중요한 사업이 있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지정된 장소로 갔다.

그들은 4.25행사당일이 박두해왔으므로 필경 그와 관련한 사업포치가 있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기다리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오늘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유서깊은 만경대를 다녀오기 위해서 동무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꿈같은 일이였다.

새 세대의 군사지휘관들은 뜻밖에 받아안은 영광으로 하여 흥분된 마음들을 진정치 못하였다.

얼마후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꽃구름 피어나는 만경대로 갔다.

이날따라 날씨는 류달리 화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신후 열려진 사립문앞에서 함께 온 항일혁명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한동안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르고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 세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저 사립문을 나서시여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이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주체사상의 시원이 열렸습니다. 다시말하여 그때로부터 우리 당과 조국의 영광스러운 새 력사가 펼쳐지고 이 땅우에 주체혁명의 새 시대가 밝아왔습니다.

여기 만경대에서 시원이 열리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였다.

그이의 말씀을 가슴마다에 새겨가는 새 세대의 일군들은 자기들에게 지워진 송고한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세대의 군사지휘관들을 데리시고 칠골에도 가시였다.

칠골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세대의 군사지휘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동무들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고 우리가 40여년간 해온 혁명사업을 계승해나갈 교대자들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새 세대들에 대한 다함없는 믿음과 기대가 어린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그들은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영광의 기념촬영이 끝나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오늘 동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촬영을 하여주신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새 세대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리시였다.

우리는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이 위한 투쟁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입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수령님을 모시던 그 자세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이의 말씀은 그대로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아로새겨졌다.

새 세대의 일군들은 이때에야 비로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들에게 이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깊은 뜻을 똑똑히 깨닫고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불타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였다.

만경대에서의 하루,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교대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참으로 뜻깊은 하루였다.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하늘엔 별들도 잠들었는데
귀여운 동생아 고이 자거라
너를 두고 머나먼 길 떠나는 이밤
가슴속엔 피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머니 없는 집에 너 홀로 남아
언니를 생각하며 슬피 울겠지
한밤중에 잠이 깨어 내가 없을 때
네 마음은 그 얼마나 슬프겠느냐

꽃은비 내리여도 눈보라 쳐도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먼곳에서 바람소리 들리어오면
이 언니 너 찾는줄 알아주려마

떠나가는 마음이나 남는 그 마음
언니 동생 모두다 피눈물 지네

명가사평 (제 11 회)

사색적이며 섬세한 눈물겨운 서정심리로 일관된 가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에 대하여-

심상길

깊은 감회를 자아내며 불리우는 노래들중에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노래 《뜨
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도 있다.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는 제 4 장 1
경에서 나오는 노래이다.

악귀같은 지주놈에 의해 먼곳으로 달려가던 길
에서 도망쳐 간신히 집에 들린 꽃분이가 눈먼 어
린 동생과 피눈물나는 리별을 하는 절정장면에서
불리우는 이 노래는 처량하고 사색적이며 섬세하
고 절절한 눈물겨운 서정심리적인 선율로 일관되
여 있다.

가사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는 그
심오한 사상정서적 내용으로 하여 착취사회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강요당하는 주인공의 형상을 심
화시키며 명작의 종자에 심어진 나라 없는 민족
의 설움과 고통을 철학적으로 밝혀내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주인공의 내면심리세계를 섬세하고 깊이있게
파고든 이 유순하고 아름다운 곡조는 주인공들의
심리적인 무대행동과 결부되어 처음에는 꽃분이의
깊은 자감상태를 준비하듯 너성소방창(1 절)으
로 구슬피 불리우다가 다음 주인공에 의하여 보
다 애절하고 슬프게 불리운다.

하늘엔 별들도 잠들었는데
귀여운 동생아 고이 자거라
너를 두고 머나먼 길 떠나는 이밤

가슴속엔 피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머니 없는 집에 너 홀로 남아
언니를 생각하며 슬피 울겠지
한밤중에 잠이 깨어 내가 없을 때
네 마음은 그 얼마나 슬프겠느냐

노래는 다시 너성소방창(3 절)으로 그리고 혼성
대방창(결속구)으로 보다 큰 극적 감정을 안고
절절하고 폭넓게 불리운다.

꽃은비 내리여도 눈보라쳐도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먼곳에서 바람소리 들리어오면
이 언니 너 찾는줄 알아주려마
떠나가는 마음이나 남는 그 마음
언니 동생 모두다 피눈물 지네

참으로 가사는 사상정서적 내용을 더욱 심화시
켜주며 주인공에 대한 눈물겨운 동정심을 더없이
자아낸다.

언니, 동생이 당하는 피눈물의 정상을 눈앞에
펼치게 하는 노래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
리》가 사상정서적 여운을 주며 깊은 인상을 안겨
주는 까닭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이 가사가 꽃분이의 아름다운
내면세계와 겹쌓이는 생활의 불행을 인정심리적

인 양상으로 애절히 노래하고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의 본질과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반영한 가사는 사상이 깊고 정서가 넘쳐흘러서 들을수록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꽃분의 한가정에 겹쌓이는 불행이란 착취사회가 주는 비극적인 운명이며 수난당하는 겨레의 눈물겨운 참상이다. 좁쌀 두말 빗진탕에 온 일가가 대대로 머슴을 살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눈이 멀어야 하는 기막힌 세상을 펼치며 주인공이 겪는 통분한 심리세계를 극적으로 체험케 하는 가사의 정서적 색깔은 참으로 인정심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오빠를 빼앗긴 울분도 참을수 없는데 지주놈년들때문에 앞뭇보는 순희를 두고 팔려가는 꽃분이는 혈육이란 하나밖에 없는 순희를 두고 떠나야 하는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하여 가슴을 허빈다. 꽃분이가 떠난 후 눈먼 순희를 누가 돌보아주며 거두어줄것인가, 어머니 없는 빈집에 홀로 남은 순희는 오직 언니 하나만을 생각하며 밤이나 낮이나 슬피울것이니 죽었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이상 어찌 그것을 잊을가.

가사는 꽃분이의 심중에 살아있는 끝없이 소중하고 가룩한 아름다운 인정미를 참으로 진한 정서적 생활의 음향과 색깔, 독특한 인상속에 감득하게 한다. 그리하여 가사는 가극의 기름진 장면을 생활의 화폭처럼 펼쳐주면서 사람들을 꽃분이의 일가의 눈물겨운 동정과 끝없는 인정세계에로 끌려가게 하고있다.

명가사의 견인력은 생활에서 새롭고 아름다우며 의의있는 사상정서를 시적으로 형상하여 들을수록 깊은 인상을 주는데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이 가사는 훌륭한 명가사로서 가극의 주제적 내용을 심화시키고 음악의 양상을 살리는데도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것은 음악을 중요형상수단의 하나로 하는 가극에서 가사는 참신하고 개성적인 생활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정서있게 노래하여 음악의 양상적 특성을 살리는 중요한 형상의 몫을 맡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다 아는것처럼 양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문학예술이 천태만상과 천변만화로 가득찬 생활의 본질을 뜻깊은 생활정서로 다양하게 펼치지 못하며 이렇게 되면 인간학의 미학적 기능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하물며 말하려는 사상의 핵을 틀어쥐고 그것을 생활정서로 세부화하고 탐색된 시어로 인간본성의 사상정서를 인상깊게 노래해야 할 가사에서 양상을 뚜렷이 살리는 문제는 시형상의 초점작업의 하나로 되지 않을수 없다.

가사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는 가극의 발전을 추동하고 장면에 맞는 시적 내용을 인정심리적인 양상으로 일관되게 함으로써 불의와 악덕을 미워하며 의리와 미덕을 지키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은 물론 아끼고 사랑하는 혈육의 따뜻한 인간미와 생활의 본색을 정서적으로 감득하게 하고있다.

다음으로 가사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의 견인력은 생활적인 형식으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시화한데 있다.

생활적인 형식의 가사는 어떤 포착된 특징적인 생활을 소개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개성적으로 탐색된 참신한 생활에서 야기된 감정을 생동하게 노래하여 깊은 감동과 감흥을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가사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는 하늘의 별들도 잠든 깊은 밤에 세상 모르게 잠든 눈먼 순희앞에 서있는 극적인 정황을 포착하고있으며 여기에서 야기된 꽃분이의 감정발전의 계기를 참으로 생활그대로의 모습으로 소박하게 노래하고있다.

귀여운 동생의 단잠을 깨치기 저어하며 가슴속에 피눈물을 삼키는 꽃분이, 빈집에 홀로 남아 슬피 울 순희를 생각하며 발길 떼지 못하는 꽃분이, 굶은비 내리고 눈보라 쳐도 오직 어린 동생에 대 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떠나는 꽃분이의 인정심리적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다.

가사에 펼쳐진 이러한 사상정서적 내용은 주정화된 생활적인 대사로 일관됨으로써 인정심리적 양상을 살리고있다.

가사에 씌여진 《고이 자거라》, 《슬피 울겠지》, 《슬프겠느냐》, 《너를 지키리》, 《알아주려마》 등의 시어들은 꽃분이의 내면세계를 극적으로 부각시켜 주는 생활적인 대사어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당부, 물음, 다짐의 속대사는 리별을 앞둔 가슴아픈 꽃분이의 심중을 깊이 헤아리게 하는 가식 없는 시어들임에 틀림이 없다.

비유나 표현적인 시어들을 골라가며 사상감정을 돋구려는 분식된 흔적은 전혀 없고 생활의 정서를 타고 펼쳐지는 고유한 생활어로 시형상을 펼친것은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명가사 창작의 기교라고 말할수 있다.

사실 가사는 선률없이도 가사자체만을 읽어도 순희와 독백하는 꽃분이의 자감세계에 자연스럽게 끌리어가게 된다.

가사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양상적 특성과 생활적인 시형상의 기교로 하여 주인공에 대한 눈물겨운 동정심을 절절하게 자아내는 음악형상을 낳게 하였다.

실로 꽃분이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고 깊이있게 파고든 생활적인 시형상은 피눈물의 리별을 펼치는 애절하고 처량한 선률과 결합되어 서정심리적

으로 불리우면서 명작에 심어진 설음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된다는 종
자를 철학적으로 밝히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명작의 심오한 종자를 밝히는데 이바지한 이
노래는 오늘 지배와 예측,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

고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남녘의 참상을 고발하
며 착취사회의 비극을 체험 못한 우리 새 세대들
을 지난날을 잊지 않도록 하는 혁명의 노래로 힘
있게 울리게 될것이다.

영예군인앞에

김종원

젊음이 맥박치는 20 대의 이 검은 머리도
그대앞에서는 무겁게 숙여집니다
웃음과 노래 많은 이내 가슴도
은연중 생각이 깊어집니다
영예군인 그대들앞에서는

서툴게 걸음을 짚으면
아들되여 달려가 손잡아주고싶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입맛을 잃으면
친딸되여 원기를 돌려주고싶습니다
조국 위해 위훈 세운 그대들에게

이 조국을 위해
피더운 가슴 아끼지 않은 그들
우리처럼 온몸이 성하진 못해도
가슴마다 달고있는 영예군인메달에
삶의 영예가 빛나는 그들

꽃물결 흐르는 저 유보도밑에도
그대들 붉은 피는 진하게 스며있습니다
구름 뚫고 치솟은 고층건물 저아래도
그대들 났은 소중히 어려있습니다

아 오늘의 약동하는 조국을 위해
자유로울 이 땅의 존엄을 위해

한몸 기꺼이 바친 그들
그래서 더욱 존경의 눈길로 높이 봅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에 귀중한 그들입니다

진정 그래서
동해선열차에 올라도
상점의 매장, 승어국집에 가도
언제나 앞자리에 세워주는것 아닙니까
조국 위해 앞자리에 섰기에
조국이 앞자리를 내여주는것 아닙니까

부럽습니다
조국 위해 위훈을 빛낸 영예군인
조국애로 높뛰는 그 가슴
사선의 앞장에서 번뜩이던 눈길
그 무엇에도 견줄수 없는 그대들의 영예

나도 그렇게 살립니다
조국의 하늘가에 불비가 내리면
그대들처럼
내 피로 조국의 상처를 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땀땀이 보립니다
이 땅을
우리의 후대들을
그대들처럼

불멸의 글발 외 1 편

변홍영

설레이는 청청한 숲
산꽃향기 그윽한 바람결도
투사들의 숨결처럼 정답구나
내결에 없는, 내결에 없는

비바람 사나워도
가야 할 혁명의 길
그 머나먼 길우에
영생의 뉘트로 안고 가라고
저 글발을 새긴 투사들

그처럼 세월을 불태우는
심장의 웨침을
이 천고밀림의 영원한 숨결로 남겼건만
그들은 이름 한자 남기지 않았구나

아, 내 가슴 벅차오는 숭고함이여
총칼도 죽음도 맞받아가며
그들이 바란것 무엇이기에
다시 오지 못할수도 있는 조국땅에
불같은 구호를 남기고갔더니

그들은 지금 내결에 없다
저 글발을 새기며
환희에 넘쳐 바라보았을
내 조국의 하늘은 저리도 푸른데
그들은 이름조차 알길이 없다

혈전으로 날이 새던 그 언덕에서
백두성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장렬한 최후를 마친 투사도 있으리
3대통운이 열린
조국의 번영을 길이 믿으며

마지막 썩던 언 풀뿌리를 거머쥔채
눈속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 공작원도 있으리

아, 그 어느 이름모를 산중에
이름없이 묻혀도 오직 하나
그것이면 웃으며 갈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모든것
투사들은 심장의 붉은피로
여기 새겼구나

-3대통운 만만세
-백두광명성 만만세

그렇더라
조선이 맞은 대통운
그 창창한 해돋이속에
투사들은 피흘려 이룩해가는
성스러운 위업의 승리한 앞날을 보았거니

그것이면 조선의 혁명가가
더 바랄것 없었구나
그것이면 자신은 이름없이 가도
혁명은 승승장구할것이기
세기와 세기를 넘어
조선이 들고갈 구호를 새겨놓고 갔구나

오, 불멸의 저 구호속에
찬란한 향도성을 따라 가고갈
그 하나의 신념
조선의 피가 되고 뉘이 되어
영원히 살아 고동치는
불타는 심장을 두고갔구나!

청춘에 대한 생각

오, 청춘이여 청춘이여
너는 나에게서 떠나갔는가?

아름다운 꿈을 안고 벗들과 거닐던
고향거리의 그 별 많은 밤들도
사랑하는 처녀의 기대에 찬 눈빛앞에
남다른 포부를 약속하던 그 푸른 의자도
이제는 못젊은이들에게 내어줬는가

젊은날에 지녔던 그 모든 희망과
불타는 열정은 꺼져버리고
내 회긋한 머리칼을 만지며 생각도 깊은
이밤의 산책길엔 애뒀한 추억만이 남았는가

아니다, 내 삶의 목적이었던
청춘시절의 그 높은 이상으로
오늘도 가슴은 세차게 뛰고있나니
누구나 뜻있는 사람이면
젊은 날에 세운 그 목표를 향해
한생을 서두르며 걸어가지 않더냐

오, 간편한 배낭을 메고
개팔지로 떠나던 그 차창가
속삭이며 쏟아져내리던 별들이여
다시 안겨다오 내 즐겨부르던

젊은날의 그 노래를

조국과 심장을 맞대고
랑만을 터치던 탐사의 푸른 산정이여
내 앞에 다시 솟아다오
깎아지른 벼랑길에서 물러설줄 모르던
그 기개로 앞길을 열어가리라

천길땅속에 묻힌 광맥을 발견하듯
생활속에서 진리의 구슬을 찾아
내 오늘도 탐구의 불을 커들었나니
청춘시절의 그 포부로 오늘도 밤을 밝히고
청춘시절의 그 이상으로 래일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리라

젊음은 사라져도
귀밑머리 희어져도 늙지 않는것
조국 위해 젊은 날에 간직한 이상이더라
그것이 값높은것일수록
그것을 향해 돌진해가는 인생은
시들줄 모르는 청춘으로 빛나더라

오, 청춘이여 청춘이여
너는 영원히 내 심장과 함께 뛰고있어라

내 한생 오를 메부리

박전걸

그 뉘의 떠미는 손길이 있어
내 들어서는 룡대문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부모형제 있어
내 발길 자주 와닿는 언덕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값높은 생
그것이 어떻게 차례지는가를 말해주는
피로 새긴 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의 거울
청동의 모습들로 빛나고있습니다

오르면
고난앞에서도 웃을줄 아는
참인간의 미소를 간직하는곳
먼길에 풀려지던 이 마음의 탕개도
저 붉은 기폭에 심장을 달구어
다시금 억세게 가다듬는곳

뼈를 깎는 악형에도
흔들릴줄 모르던 굳은 절개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한점 아쉬움도 없던 고결함을
뿌리깊이 이 가슴에 심어줍니다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의지와 신념을
장검처럼 버려주는 이 산마루
태어나고태어나는 세대들이
여기서 이어줍니다 피로 찾은 혁명의 진리를

수령님을 모시고
고난의 장장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의 그 넋이 나래치는곳
불굴하는 백두의 정신을
혁명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주작봉입니다

위대한 당을 따라
우리 걸어갈 혁명의 천만리
그 길에 내 어느때든 여기에 올라
신들메를 조이며 가렵니다
인생의 마지막자욱 짙을 때까지
이 령마루에 마음을 얹어두고 살립니다

오오 려사룡 내 한생 오를 메부리
조국의 이 아들을 위해
이름없는 한 전사의 발걸음을 위해
내 가는 앞길에
언제나 솟아있을 봉우립니다

련시

지구의 어데 가나 그 어데서나

-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의 나날에 -

로재룡

머나먼 대양기슭에서

무성한 잎들에 고였던 이슬방울
구슬인들 모래우에 떨어지는 이 아침
우리는 대서양 기슭을 거니노라
미풍에 설레이는 야자나무밑으로

바라보면 물맑고 기슭도 아름다운데
가슴에 아프게 마쳐오누나
포악한 농장주의 채찍에 끌려간
쇠고랑찬 노예들의 신음소리

오랜 세월을 두고 찍혀진
력사의 수난자들의 원한의 그 발자국
대서양의 물결을 다 쏟아부은들
어이 다 지울수 있으랴

아, 인간의 존엄 자주의 삶
언제가면 찾으랴 그토록 바라던 소원
주체의 태양아래, 향도의 별빛아래
꽃피울수 있게 되었다고
전람회장이 들썩하게 만세를 부르던
남아메리카의 청춘남녀들
이 아침 그들 저 코코아밭에서

우리를 반겨부르누나
소담한 열매를 따며
얼굴에 함뿔 미소를 담고

한고향태생도 아니고
혈육은 더더욱 아니며
언제 한번 오בות한 식탁에
정답게 마주앉은적도 없건만

그들 조선에서
가장 먼곳에 떨어져있어도
우리와 주체의 신념으로 이어져있어
가장 가까운 벗 되었다니

수령님과 친애하는 그이를
경모하는 마음 노을처럼 타오르는
여기 남아메리카의 하늘아래에서도
우리는 환희에 넘쳐 보고있노라
자주의 새 세상 펼쳐질 찬란한 해맞이를

-리마에서-

아프리카의 《진달래》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을
류달리 뜨거운 마음안고 돌아보던
젊은 부부

《진달래》를 부르누나

밖에는 열대의 불모래바람 불고
방안은 전람회장인데
그들이 찾는 《진달래》
조선의 꽃은 아닐진데

순간 《평양산원》 사진앞에 섰던
귀여운 소녀 대답하누나
수룩만리 먼곳에 두고온
《고향집》에서 눈길 떼지 않고

아하 우리 미처 몰랐구나
보석주단 깔은 그 산원

소녀가 태어난 사랑의 집임을
그가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품임을

주체조선에서 받아안은 딸의 영광
그에게 한생토록 지녀주고싶어하는
부모의 그 마음 은정깊이 헤아리시여
친애하는 그이 지어주신 이름

봄마다 백두산에 곱게 피는
투사들의 불멸의 녀이 어린 꽃
조선의 사랑 그 진달래
《진달래》로 태어난 소녀야

아, 향도의 해발안고 태어난 《진달래》야
억센 개척자로 위훈의 창조자로 어서 자라
불모의 땅에 봄향기 뿌려라
조선의 영원한 축복 소중히 안고

니제르강반의 달밤에

니제르강반에 달은 밝은데
기슭에 찰싹이는 물소리 들으니
벗이여 웅장한 주체사상탑 서있는
아름다운 강반이 그림구나

태줄을 묻은 대륙 서로 다르고
언어도 피부색도 서로 다르건만
전람회장에서 만나 친근하여진
아프리카의 미더운 벗이여

니제르강의 쪽배에서 태어나
때없이 울려오는 노예선의 배고동소리
가슴에 비수를 박아주는듯하여
그대 저 부두가로 달려나갔는지

벗이여
락타등에 채찍을 얹으며
달밝은 강변을 오간 길 어드메나
참삶의 등대 투쟁의 화불을 찾아

아, 주체사상, 불멸의 그 사상
자자구구 외워가며 살로 만들고
밀줄을 그어가며 뼈에 새길수록

운명개척의 힘 굳게 다져주고

정의의 성전에선 필승의 기치되고
사막을 황금의 대륙으로 전변시키는
거창한 건설에선 마를줄 모르는 샘줄기인듯
창조의 힘 솟구치게 하여준다지

벗이여 아직도
지배와 예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그 등대 찾아 이 강변을 헤매인다면
이밤의 저 달빛 저 강물소리
수난자들의 가슴을 그 얼마나 허벼주랴

하건만 그대
주체의 빛발 받아안았기에
저 달도 태양처럼 밝게 보이며
삶의 기쁨을 돈구어주지 않느냐

벗이여 우리는 향도성을 모시고
자주세계를 창조해나가는 동행자
언제 어디 가나 잊지 말자
새 세계의 주인된 긍지안고 거닐던
니제르강반의 달밝은 이밤을

안파나나리부의 밤

여기는 인디아양의 섬나라
불을 퍼붓는듯 열풍 뜨거웁던
또 하루 해는 저물고
하늘에 별무리 돌아나는데

한 주체사상연구소조원
래일이면 귀로에 오르게 될
우리를 귀빈으로 초대하였네
정원에 종려수 서있는 집으로

수령님과 친애하는 그이 초상화 모신
아늑한 방에 앉으니
인디아양의 파도소리 대동강물소리인듯 들리어
마음은 평양의 정든 집에 돌아간듯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으니
소조원의 가족과 한식술인듯
보람찬 하루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위훈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아, 하늘의 별들도 부러운듯
창가에 내려앉아 지켜보는
안파나나리부의 못잇을 밤이여
새 사회 건설의 기쁨 나누는 밤이여

한고향 한대륙 태생 아인들 어떠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들 어떠랴
주체의 노을 수록만리에 비껴있어
우리는 한지붕아래서 형제의 정 나누거늘

흐름 멈춘 강에 부치여 외 1 편

김상조

천리 장강-
소백산 줄기를 내려
굽이굽이 서해로 흐르던
력사의 강 대동강

천년을 흘러
만년을 흘러
수많은 노래와 전설을 낳은
어머니강, 대동강

이제는 말하라
흐르는 물결에 띄우던 배노래
어이하여 들을수 없고
밀물과 썰물의 광란
왜 더는 볼수 없는가

오직 맑고 푸른 물
서해갯문 한끝까지 부풀어오른
사랑의 대인공호,
그 뉘 안아오시였는가

차넘치는 단물,

물안개 피는 강물우에
물새들 떼지어 날아들고
오가는 배고동소리 더 유정해
풍처럼 흐느적이는 강반

줄구나
웅장하게 솟은 갯문들,
행복의 큰 배길 열어
산으로 바다로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 실어나르나니

흐름 멈추어
풍만해진 강,
천년을, 만년을 더 젊어져
가는곳마다 새 생활 펼친
락원의 강, 인민의 강이여

이제는 새 노래 엮으라
새 화폭 담아 세상에 전하라
이 땅의 예술가들 불러
강반의 미더운 아들딸들 불러

유구한 네 흐름
영원히 멈추어도
크나큰 어버이사랑

물속깊이 흐르네
사람들 가슴속에 가득차 흐르네

배시간표를 두고

전날엔
배시간
날마다 달랐네

하루 두번씩 변하는
밀물시간따라
썰물시간따라
배 오르내렸네

밤물때엔
오가는 배시간
한밤에도 있었네
새벽에도 있었네
조금일 땐

배 대기조차 힘들어
려객들 발벗고 오르내렸네

그날의 배시간표
이젠 옛날일 되었네
밀물 썰물 없고
강물 언제나 가득차있어
배시간 고정됐네

해쏜는 아침부터
락조비낀 저녁까지
가장 좋은 시간
행복의 배시간 되었네

축복

서진명

기꺼이 기념사진의
배경이 되어주겠노라
화단의 꽃들이 옷소
첫걸음마 땐 아들을
어서 앞에 세우라고

연두빛 새잎이 돌힌
강변의 실버들가지들
훈풍을 안고 속삭이오
골깊은 산중에
저보다 더 좋은 배경 없다고

하지만 내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세운곳은
꽃밭도 강변도 아닌
산악처럼 우뚝 솟아있는

발전소언제

화려한 장식은 없어도
생남의 기쁨 안고 마냥 높뛰던
내 심장의 맥박 어려있고
요람속에 무럭무럭 자라는
아들과 마주 웃으며
일을 해도 일을 해도 피곤을 모르던
나의 진한 땀 어려있는 언제

언제, 너는 먼 후날에도
기념사진속에 남아서 말해주리
조국에 바친 성실한 땀으로
아들의 앞날을 축복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물과 불

김석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날 최성호는 고인을 찾아 교외로 나갔다. 고인의 묘는 이름없는 야산기슭에 있었다.

주위에는 소나무와 잎넓은 가독나무들이 고인을 추모하는듯 묵묵히 서있었다. 숲속에서 울리는 산새들의 우짇음소리도 이 시각엔 엄숙한 정숙을 불러오는가싶었다. 오랜 세월 눈비에 씻기며 다져진 등실한 봉분과 그 주변에는 불그레한 저녁노을이 비껴있었다.

최성호는 대리석상돌우에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온 생화묶음을 올려놓았다. 진작 드렸어야 할 꽃이었다.

그렇만한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해마다 열리는 과학토론회와 두차례의 학위논문발표, 문헌조사 등으로 평양에 자주 올라왔던것이다. 그러나 해놓은 일없이 고인앞에 나설수 없었던 그는 이 량심의 꺼리낌으로 하여 매번 그냥 돌아가곤 했었다. 하긴 박사학위를 받은 지금이라고 해서 그앞에 나설수 있는 떳떳한 자격을 지녔다고 말할수는 없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터지는듯했다. 인생이란 한번 가면 다시 오는법이 없다. 다시 울수 없는 그 인생과 최성호는 어떻게 영결했던가?...

최성호는 퍼그나 많은 시간이 흐른뒤에야 자신을 자제하고 몸을 일었다. 그러나 고인과 있었던 수십년전의 일이 어제일처럼 선히 떠오르며 발목을 잡는바람에 쉬 자리를 뜨지 못했다.

1

바야흐로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있었다.

대학생들은 래일부터 실시되는 학기말시험을 앞두고 휴식짬에도 공부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학습에서 한다하는 축들이 더 극성스러운것 같다.

《여, 〈통신병〉, 〈전투〉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뭘 멍청해 있나?》

금방 밖에 나갔다가들어온 《중기사수》가 최성호의 옆자리에 걸쳐앉으며 하는 말이다.

《안되누만. 어디 머리에 들어와야 말이지. 요즘은 생각이 좀 복잡하구만.》

최성호는 탕개가 풀린 시들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쓸데없는소리, 신심을 가지라구.》

(신심?)

최성호의 기름한 얼굴에 서글픈 미소가 떠올랐

다. 신심을 가져보려고 한두번만 모지름을 쓴 그가 아니다. 제대후 대학에 와서 사건 《중기사수》 김규섭은 그의 돌도 없는 친구이지만 그 고충을 다는 모를것이다.

최성호는 2학년에 올라오기전까지만 해도 학업에 얼마나 열중했는지 모른다. 그때라고 한다하는 축들에게 놀리우고 뒤지는듯한 느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년간의 전선생활은 고중시절에 배워넣었던 지식의 태반을 기억속에서 지워버렸다. 하지만 한해쯤 이를 악물고 공부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려니 했었다. 그때 남들처럼 통감을 자본적도 별반 없었고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어느 하루 늘어지게 쉬어본적도 없었다. 그런데 2학년 진급시험에서 그는 락제를 겨우 면했다.

이를 계기로 최성호는 한 절반 기가 꺾이였다.

때를 같이하여 낫놓고 《7》차도 모르던 화전민의 아들인 자기 두뇌는 천성적으로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간신히 남아있는 마지막 의기마저 꺾으려들었다.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수 없었다. 차라리 대학을 그만두고 훌쩍 고향으로 내려가 적당한 직업을 찾아볼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운명을 그렇게 감정에만 맡겨버릴수 없었다. 이래저래 최성호는 번민이 컸다. 요즘 생각이 복잡하다고한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였다.

최성호는 마지 못해 시험을 위한 참고서를 펼치였다.

교실앞문으로 출석부와 교수안을 한데 모아 열구리에 낀, 지금까지 그들에게 강의해본적이 없는 중년의 남자교원이 들어왔다. 체끈양복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넌긴 그의 얼굴은 갱뽕한편인데 낯이 익었다. 최성호는 어마지무 놀라며 저도 모르게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는 다름아닌 옛 통신중대의 중대장이였다. 적들의 《크리스마스 총공세》가 한창이던 때 련포군의 지휘통신을 보장하다가 척추에 부상을 입고 후송된후 소식을 모르던 사람이였다.

《새로 온 교원이네. 금속공학이 전문이라누만.》

김규섭이 펼쳐놓았던 책을 덮으며 얻어들은 소리를 했다.

교수안을 강의탁우에 놓으며 학생들을 둘러보던 교원의 눈길은 문득 최성호에게 와서 멎었다.

순간 성호는 온몸이 확 불타는듯한 반가움에 휩싸였다. 교원 역시 놀라움을 미소로 바꾸며 눈인사를 보내더니 이어 학생들을 향해 정중하게 말하였다.

《오늘부터 당분간 제가 수학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름은 태수민이라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전쟁의 불길속에서 다시 수업을 시작하였으나 대학들에는 학생수보다 교원들이 적었고 그래서 한 교원이 두과목씩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태수민은 수학을 전문으로 배워주던 교원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대신으로 과목을 담당한 모양이었다.

최성호는 강의시간이어서 그와 인사말을 주고 받지 못했지만 무한한 기쁨과 희망을 느꼈다. 그가 제일 어려워하는것이 수학인데 옛 중대장이 립시로나마 바로 그 과목담임인것이다.

《이보게, 저 선생이 누군지 아나?》

최성호는 자기의 기쁨을 혼자 즐길수 없어 막중한 기회에 친구의 귀에 대고 소근거렸다.

《그래? 동문 복을 받았구만그래. 됐네. 막 시샘 이 나는걸.》

김규섭은 자못 회한해했다.

수업이 끝난다음에 최성호는 옛 중대장을 찾아 강좌실로 갔다. 태수민은 쓰고있던 강의안을 활밀어놓으며 최성호를 얼싸안듯이 맞이했다. 그들은 오래동안 회포를 나누었다.

《난 동무가 대학생이 됐을줄은 정말 몰랐소. 공부하기가 힘들지?》

《힘이 듭니다. 원래 지식이 발은데다가 싸움에 부대끼다보니 고중시절에 배웠던것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태수민은 빙그레 웃으며 턱을 주먹거렸다.

《그대신 얻은것도 있지. 어떤 경우에도 주저않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 돌진할줄 아는 심장이라던가 완강성 같은건 전쟁이 아니고서는 터득하기 힘든 귀중한 재산이지.》

《그건 그런데...아무러나 이제 중대장동지두 곁에 있으니 정말 힘이 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 그저 중대장동지만 믿겠습니다.》

최성호는 신뢰의 정이 다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심정같아선 나는 고민이 많았었다. 공부를 계속하겠는가 말겠는가, 중대장동지가 온다음에야 나는 이 고민거리를 털어버릴수 있었다는 말까지 다 하고싶었다.

태수민은 최성호를 사려깊은 눈길로 이윽히 지켜보다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껄껄 웃었다.

《나만 믿고있다가 랑패를 보지 않을까?》

《원, 선생님두...》

최성호는 그의 말을 새겨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냐고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

2

며칠이 지난 어느날 최성호는 번거로운 생각이 지긋게 달라붙어 수학공부를 하다말고 태수민을 찾아갔다.

그동안 학급에선 여러 과목에 대한 시험이 있

었다. 최성호를 포함한 학급동무들은 이 시험들을 그럭저럭 괜찮게 치르었다. 이제 수학시험만 괜찮게 치르면 어려운 고비를 넘길수 있었다. 그런데 실은 그 고비를 넘기는것이 문제였다.

태수민은 수학복습문제를 자그만치 120 문제나 내주었는데 다른 과목들에 비해 배가 넘는 이 방대한 수의 문제들은 1학기 기간에 배운 교재내용을 전부 통달하거나 완전히 소화할것을 요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아름차기도 하고 절대시간이 모자라기도 해서 학급장을 내세워 태수민에게 문제의 범위를 좀 줄여줄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급장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동무네 학급엔 제대군인들이 많기때문에 특히 그 문제들을 다 학습해야 하오.》

태수민의 이 말을 전해들은 학생들은 실심해서 중얼거렸다.

《할수 없지. 할수 있는것 하는수밖에.》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나온것은 아니었다. 《독특에도 용수가 있다》고 생각한 적지 않은 학생들은 태수민과 이미부터 안면이 있는 최성호에게 달라붙었다.

《우리를 위해 힘써주게. 밀저야 본전인데 한번 찾아가보라구.》

최성호는 그들의 심정이자 자기의 심정이어서 차마 그 권고를 물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두루 생각을 굴리던끝에 태수민을 찾게 된 최성호였다.

태수민은 하던 일을 밀어놓으며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앉으라구. 그래 무슨 일로 왔소?》

친근감을 자아내는 태수민의 말은 최성호에게 무척 반갑게 들리었다. 옛정을 잊지 않고 늘 스스럼없이 대해주는 그에게 무슨 청이든 못들이라. 그리고 자기의 청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의심치 않으며 찾아온 사연을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말하자고 하니 미안한 감이 앞서는 한편 게면적은 생각이 뒤따르면서 저으기 용기가 줄어드는것이였다.

《무슨 일이 있어서 온것 같은데 왜 그러오?》

태수민이 주저하는 눈치를 알아차리고 다정히 물었다. 그의 두눈은 미소를 머금고있었다.

《실은...》

최성호는 말문을 열긴 했으나 다시한번 주저했다. 그는 태수민의 부드러운 눈빛을 보고서야 쑥스러워하며 말을 이었다.

《저... 선생님, 시험문제를 좀 줄여줄수 없습니까? 한 60 문제로 줄여준다면...》

《자신있단 말이지? 허허허...》

태수민은 의자등받이로 몸을 제끼며 껄껄 웃었다. 그 웃음에서 최성호는 자기의 소청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굳히었다. 그런데 한참 웃고난 태수민은 뜻밖의 말을 하는것이였다.

《난 이미 학급장동무에게 말해줬소. 동문 들

지 못했던 모양인데 이젠 알았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구요.》

태수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으나 최성호는 아연함을 금치 못했다. 태수민이가 이렇게 나올줄은 몰랐다.

《원, 선생님두... 전 듣지 못해서 찾아온게 아닙니다. 120 문제를 안고 씨름하다간 어느 한문제도 똑똑히...》

《말을 바꾸면 힘들어서 다 못하겠다는 소리겠지?》

태수민은 동무까지 그렇게 나올줄 몰랐다는듯 실눈을 지으며 그를 눈여겨보았다. 최성호는 유감을 표시하는 그 눈빛을 마주 볼수가 없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선생님은 저를 생각해서라두...》

솔직한 심정을 담아 절절하게 울리는 최성호의 목소리는 사람의 금선을 울릴만 했다. 태수민은 바로 그런 심정을 느낀듯 음! 소리를 내더니 의자에서 일어났다.

《전선에서 싸웠다는 사람이...》

순간 최성호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게 무슨 소린가? 나약하고 비겁하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대 내가 나약해서 그런 말을 했던가? 도움을 받자고 해서 한것이 아닌가?... 흑폐려 왔다가 흑한개를 더 불인셈이 된 최성호는 한동안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장동지두 참, 전 중대장동지를 믿고 왔는데...》

최성호는 그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내리는 마음속의 공백을 메우려고 애쓰며 중얼거렸다. 태수민의 얼굴에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스쳐지났다.

태수민은 그것이 불만스러운지 미간을 모으며 창문앞으로 다가갔다.

《동무들은 120 문제를 꼭 해야 하오. 그것이 단순히 시험을 받아내기 위한것이 아니란거야 동무도 잘 알지 않소.》

최성호는 명령조에 가까운 태수민의 이 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들리었다. 이게 나의 기대와 믿음에 대한 대답이란말인가?... 그런데 그의 이 실망감은 며칠후 절망으로 변하였다.

문제의 그 수학시험마저 그럭저럭 끝난 이틀후 태수민은 학급학생들앞에서 성적이 낮은 다른 두명의 학생과 함께 최성호의 이름도 지척한것이였다.

《...이상의 동무들은 재시험에 응시할 준비를 하시오.》

최성호는 너무도 망신스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줄지에 학급에서 실력이 가장 략후한 학생으로 략인된것이였다.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울분과 원망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한중대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생사를 같이해 온 옛 중대장이라고 해서 그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 중대장때에도 규정과 교범만 따진 사람이라는걸 왜 녀두에 두지 못했단 말인가?)

최성호는 가뭇 잇고있었던 지난날의 불쾌한 일들이 떠오르는바람에 자신을 비웃었다.

태수민은 중대장으로 있을 때 전사 최성호에게 통신기재를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한적도 있었고 땅에 닿은 통신선이음뿔을 내버려뒀다고 닦아세운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쯤은 약과였다. 배변변경을 앞둔 어느날 그의 중대는 가선훈련을 했었다. 그때 최성호는 벼랑이 험해서 그것을 에돌았었다. 중대장이 지도상에서 표시해준 대로 선을 늘이자면 벼랑을 타야 했으나 자칫 잘못해서 바위를 안고 굴러내리는날엔 애당초 임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생각되었던것이다. 이날 그는 벼랑을 에돌다보니련대의 통신결속시간을 3 분이나 지연시켰다. 이것으로 해서 통신중대의 훈련은 《급》으로 평가되였다.

이 일을 두고 태수민은 그를 무섭게 꾸짖었다.

그때 그의 두눈에선 불이 펄펄 이는듯했다.

《누가 벼랑을 에돌라고 했소? 그래가지구야 싸움을 해내겠소? 비겁해, 동문 비겁한 사람이란 말이요.》

그의 충고가 옳다고 생각되긴 했으나 비겁하다는 말만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내려가지 않았다.

(그대 내가 비겁해서 벼랑을 에돌았단말인가?)

최성호는 솟구치는 반발심을 누르지 못했다. 그후 그는 무거운 통신선통구리를 서너틀씩 짊어지고서도 깊은 강과 높은 벼랑을 단숨에 극복하곤 했었다....

(그와 함께 있는 한 나는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시름에 잠긴 최성호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해서 기숙사로 갔다. 시험총화때 망신을 당한 그로서는 차마 동무들과 함께 큰길로 갈수가 없었다.

《좀 늦었구만. 자, 반소. 편지요.》

기숙사현관에 들어설 때 김구섭이 그의 기분을 둔구어주려는듯 편지한통을 내놓으며 떠들었다.

편지는 립산사업소의 고향친구에게서 온것이였다. 전쟁시기 보병부대에서 이름없이 싸운 송아지동무였는데 그는 편지에서 통나무생산에서 떨친 자기들의 위훈을 긍지높이 말하고있었다. 제대후 고향에 배치된 그는 벌써 한다하는 체벌작업반장으로서 회의때면 주석단에 오르며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최성호는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당당하게 제몫을 하며 빠른 발전을 보고있는 그가 부러웠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 능력으로 대학을 끝까지 마쳐내겠는지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적재적소를 찾아가는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중도에서 대학을 그만둔다는것이... 그것은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최성호는 오후 한것을 번민속에서 보냈다. 그러다가 저녁녘에 좀더 생각해보고나서 학부장을 찾아가 실토정을 했다.

《저는 어떻게 해서나 진도를 따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굳어지고보니 저같은 건 대학을 졸업시켜야...》

이마가 벗어지고 하관이 등실한 학부장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문을 열었다.

《동무의 그 심정은 이해되오. 하지만 난 동무가 좀더 깊이 생각해봤으면 하오. 당에서는 제대군인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애를 먹을수 있지만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기만 하면 학습에서 두각을 나타낼수 있다고 보고있소. 그렇게 지식을 습득한 제대군인들은 장차 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서도 큰 몫을 담당하게 될것이요. 동문 기억력이 좋은편이구 고중때 최우등을 한 전적도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소?》

학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히 권고했다.

《아니, 저는 생각할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대학공부를 못합니다.》

학부장은 최성호가 자기 주장을 고집스레 말하자 생각에 잠겨 손끝으로 책상우를 가볍게 두드렸다.

《동문 혹시 나나 우리 교원들에게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건 아니요?》

《아닙니다. 저에겐 아무런 의견도 없습니다. 오해하진 마십시오.》

최성호는 학부장이 태수민에 대한 자기의 불만을 눈치채고 물은것만 같아 약간 덤비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좋소. 토론해보겠으니 돌아가 기다리시오.》

학부장실을 나선 최성호는 발가는대로 터벌터벌 걸었다. 밤하늘에 또글또글 얼어붙은 못별들이 앙상한 나무가지 사이로 그를 굽어보며 조롱하듯 깜빡거렸다.

최성호는 이때처럼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초연에 전 군복차림으로 대학교직원들과 녀대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교정에 들어설 때 그의 가슴은 얼마나 울렁거렸던가. 온 대지를 그리안듯한 희망과 포부, 불타오르는 청춘의 정열과 격동으로 하여 그는 그날밤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나간 오늘은 한없이 부풀었던 그 가슴에 싸늘한 허탈감을 안고 어둡고 쓸쓸한 교정을 맥없이 걷는다...

최성호는 새벽녘에야 뽕뽕 언 몸으로 대학기숙사로 들어갔다.

3

링빈 호실에 혼자남은 최성호는 학부장에게서 퇴학처분에 관한 기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집은 이미 꾸러서 침대맡에 밀어넣었다. 결론만 내려오면 배낭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갈판이다.

그런데 아침시간이 지나가고 낮시간이 되여오는데도 소식이 없다. 기다리기에 지쳐버린 그는 침대우에 드러누워 잠을 청했다.

몇시나 되었는지 복도에서 단조롭게 쿵당거리리는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뒤미처 호실문이 열리었다. 김규섭이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셈령이 좋구만. 등교는 왜 하지 않았소? 빨리 오라오.》

《누가?》

《누군 누구겠소, 수확시간이니 태선생이지.》

태선생이란 소리에 최성호는 가시돋친 소리를 질렀다.

《가지 않겠소. 절대로...》

《아니?! 동문 오늘따라 왜 그러오? 강의를 받으라는데...》

《퇴학생에게 무슨 강의가 필요한가?》

《퇴학이라니?》

김규섭은 그제 무슨 소리냐고 등실한 얼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은 그렇게 됐소. 그런줄 알구 빨리 가서 강의나 받으라구.》

최성호는 김규섭을 돌려보내긴 했지만 속이 불끈거리 견딜수 없었다. 생각할수록 태수민선생이 고약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 기체와 같은 사람... 태수민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안고 이리저리 뒤적거리던 최성호는 복도에서 아까처럼 또 쿵당거리리는 발자국소리가 나는것을 가려듣지 못했다. 그는 호실문이 벌컥 열리고 학급장이 찬기운을 풍기며 안으로 들어와서야 자기를 데리러 또 사람이 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학급장은 대학을 다니다가 전선에 나가 싸운 사람으로서 한 다하는 학생측에 속해있었다. 최성호는 그가 또 찾아온것이 시끄러워 잠이 든체했다.

《성호동무, 일어나오.》

《...》

《일어나라는데. 학급에선 지금 동무때문에 수업도 못하구 채시험도 못치고있소.》

그 말을 들으니 동무들에게 미안한 감이 든다. 최성호는 마지 못해 눈을 떴다.

《그제 정말이요?》

《정말아니면 또 이렇게 왔겠소. 태수민선생은 아직 퇴학처분이 되지 않았으니 동물 꼭 데려오라는게요.》

《말째게 굴어도 분수가 있지. 좋소. 그럼 가겠소.》

최성호는 아예 침대맡에서 배낭을 끄집어내어 둘러봤다. 학급장은 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학급동무들은 배낭을 지고 나타난 최성호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앞자리에 앉으시오.》

태수민은 툭툭하고 엄한 표정으로 채응시자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놓은 교탁앞의 책상을 가리켰다. 책상우에는 시험지가 놓여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최성호는 몹시 격동되었으나 동무들을 생각해서 꼭 참았다. 그는 시험에 응시했다는 표

시로 시험지에 이름석자를 써넣었다. 답안줄 생각같은건 하지도 않았다,

《왜 쓰지 않소?》

반시간쯤 지났을 때 학생들의 복습을 지도하던 태수민이 더 스쳐볼수 없다는듯 엄하게 물었다.

《학급이 수업을 못하고있다가에 저는 왔을뿐입니다.》

금시 폭발할듯한 분격을 누르며 그는 도전적으로 말했다. 태수민도 격해오르는 감정을 이겨내느라고 입을 꼭 앙다문채 불편의 근육을 떨며 서 있었다.

《수업이 끝난다음 남으시오.》

최성호는 이름 석자뿐인 시험지를 그냥 냈다.

수업이 끝났다. 교실에는 태수민과 최성호 두 사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방안에 가득찼다. 두 사람은 서로 격앙된 감정을 건드리기 저어하는듯 한동안 입을 꼭 다물고 각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배낭은 왜 가지고 왔소? 로동현장에 나가면 혁신자라도 될것 같소?》

《락오자로는 되지 않을것입니다.》

《아니요. 동문 한생 자기 량심에 락오자로 남아있을게요.》

《??》

최성호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책상모서리를 꼭 내리누르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사람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중대장동진 제가 통신중대에 있을 때의 그 최성호인줄 아십니까? 전 중대장동지가 아니래두 얼마든지 발전할수 있습니다.》

최성호의 어조에는 자기도 전선에서 미국놈을 때려눕힌 승리자의 한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데 대한 분노의 감정이 굽이치고 있었다.

태수민은 그 말을 듣기가 피로운듯 어금이를 깨물며 창문쪽으로 돌아섰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지동치고있었다. 땅바닥을 밟으며 땀다 달리기도 하고 하늘높이 솟구치기도 하며 사방에 눈가루를 끼여대고있었다.

태수민은 시름겨운 눈길로 함부로 태질하는 그 모양을 내다보다가 돌연히 무게있는 자세로 몸을 돌렸다.

《그러니 동문 자기만 발전하면 다란말이겠소? 그대 동문 자신을 위해 3년간 피흘리며 싸웠소?》

그것은 뜻밖의 반격이 아닐수 없었다.

《...》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 그렇게 말하기엔 너 무도 준엄한 싸움이었으니까. 웁소, 동문 전쟁때 조국의 부름에 충신했소. 그렇다면 지금은 왜 조국의 부름에 외면하고 험한 길로 가려고 하오?》

《조국은 복구건설장으로도 사람들을 부르고있습니다. 나는...》

최성호는 뒤말을 잇지 못했다. 자기를 지켜보

는 태수민의 두눈에서 경멸의 불빛이 쏟아져나왔던것이다. 그것은 전쟁때 자기에게 비겁하다고 했을 때의 그 눈빛을 련상시켰다.

최성호는 그 눈빛을 잊은지 오랬다. 그런데 이 시각 그 눈빛을 다시 보게 될줄이야!

《웁소. 전쟁의 피해를 가셔내구 공장도 거리도 다 새로 건설해야 하니 조국은 거기로도 사람들을 부르고있소. 하지만 그런식으로 자신을 변명하지 마오. 우리는 복구건설이 끝나면 기술개건도 해야 하고 공업화도 실현해야 하오. 아직은 꿈이라고 할수 있는 이 어려운 과제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건 바로 동무들이요. 그런데 동문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소. 어째서 동무는 공부도 조국을 위한 하나의 전투라고 생각 못하오. 전선에서 총을 쥐고 미국놈과 싸워이긴 사람이 그리도 의지가 박약하단말이요? 나는 그래도 동무를...》

태수민은 갑자기 말을 끊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흥분이 도를 넘쳐 부상처라도 아픈듯 허리를 짚고 한참동안 서있더니 힘겹게 말했다.

《갈테면 가시오. 그러나 가도 이것만은 똑똑히 알고 가시오. 동무는 조국을 위한 학업의 전선에서 도주한 비겁분자라는것을 !...》

태수민은 문쪽으로 돌아섰다. 최성호는 책상모서리를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항거의 말을 찾을수 없었다. 전선에서 적의 포사격구역을 달려가면서도 이처럼 머리속이 혼란되고 당황한적은 없었다.

최성호는 끝내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무서운 정열가, 독학가로 변하였다.

책을 보며 걷다가 가로수기둥에 머리를 짚고 이마에 흠이 나기도 했고 대학도서관 일꾼들이 구석진 조용한곳에 그가 남아있는줄 모르고 밖으로 쇠를 잠그고 퇴근하는바람에 열람실에 갇혀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벽보와 속보판에는 《최성호동무, 전선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마침내 우등선을 돌파!》 등등의 글발이 나붙었다.

《여, 〈통신병〉, 이거야 어디 숨이 차서 따라가겠나.》

3학년 진급시험이 한창일 때 지금까지 군말없이 보조를 같이해온 김규섭이 악의없는 불만조로 말했다.

《난 뒤를 돌아볼새가 없구만.》

《그래두 옆이야 좀 돌아봐야지. 이 〈증기〉가 불쌍하지도 않소?》

《허허허... 증기는 좌지에서 땀다 갈겨두 되지만 통신중대 가선수는 그렇지 않네.》

《원, 제길... 동문 자기가 얼마나 높이 뛰어올랐는지 알기나 하고 그러오?》

최성호는 비로소 자기가 달려온 길을 돌이켜보았다. 확실히 높이 올라섰다는것이 알린다. 무슨

힘에 떠밀려 이렇게 치달아오를수 있었는지 자신으로서도 놀랍고 의문스러웠다.

《최우등생 최성호동무를 열렬히 축하한다!》

《금속공학부 최성호동무, 두번째 외국어를 졸업전에 끝낼 결의.》

한해후 벽보판에는 꽃다발에 받들린 이런 글발들이 나붙었다.

하지만 태수민은 그 모든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듯 여전히 평담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또 두해라는 세월이 흘렀다.

4

졸업을 앞둔 최성호네 금속과학생들은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현지로 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현지에서 실습도 하고 졸업논문도 써내야 했다. 최성호가 속한 조는 서해지구의 어느 한 제강소로 나가게 되었다.

떠나기에 앞서 태수민부교수(그는 부교수로 되었었다)는 그들이 가지고 가려는 참고문헌들과 준비품들을 돌아본후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동무들과 같이 가지 못합니다. 나는 대학에 남아있으면서 전국각지에 나가있는 학생동무들과 연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동무들도 나와 꼭 연계를 가지고 논문을 집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강소에선 늘어나는 강재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연구사업들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동무들이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논문제마를 잡았으면 합니다.》

교수의 말은 학생들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강철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문제, 말은 몇마디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초인간적인 담력과 지혜와 탐구정신이 동반되어야 했다. 아마도 태수민은 그것을 알고있었기에 그 문제를 굳이 강조했는지 모른다. 최성호는 단단히 결심하지 않고선 그에게 통장을 부를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최성호가 비상한 결심을 안고 동무들과 함께 현지에 도착했을 때 용해공들과 기술자들은 새 용해법을 도입하기 위해 주야로 분투하고있었다.

그들은 이미 차지당 용해시간을 줄임으로써 이틀에 한번씩 한차지의 쇠물을 더 뽑고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그 한차지의 쇠물을 이틀이 아니라 하루에 한번씩 뽑아낼 생각이라고 했다. 아직은 값을 얻어내야 할 미지수들이 적지 않았다. 최성호는 그 미지수들을 통채로 집어삼킬 생각을 했다.

《너무 아름답보이지 않소? 최첨단의 고등수학 풀이와 높은 수준의 리론이 안반침되어야 할것 같소. 너무 방대하구만.》

김규섭은 지내 어벌이 크게 논다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난 그래서 해보자는게요.》

이날부터 최성호는 공장도서관에 들어박혀 강철생산과 관련되는 부피두터운 원서들과 문헌들

을 돌아가며 독과했다. 장서속에 파묻힌 그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정열적인 탐구와 지칠줄 모르는 완강한 투지앞에서 김규섭은 아예 넋을 잃고 혀를 내둘렀다. 최성호가 《용해시간단축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고찰함》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냈을 때에는 제일 먼저 그것을 보고 그를 덩석 안아올리었다.

《이건 학위도 받을수 있는 논문이요! 난 우리 <통신병>의 담이 이렇게 큰줄 몰랐구만.》

최성호는 평담한 스승도 이제야말로 칭찬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하며 서둘러 대학으로 논문을 올려보냈다.

론문에 대한 부교수의 반응은 한 보름정도 있어야 알려질것이었다. 최성호는 그 보름간을 어떻게 기다려내려야했었다. 그런데 원고를 발송한지 일주일만에 태수민교수가 불쑥 제강소에 나타났다. 최성호는 예기치 않았던 그의 이 돌발적인 출현에 은근히 속을 조였다.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저의 논문은...》

《받아보았소.》

태수민은 교수의 기품이 느껴지는 무게있는 어조로 대답한후 서류가방에서 원고봉치를 꺼냈다.

《자, 받소. 난 이런 논문을 기대하지 않았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동무의 논문에는 넓이 없소. 미끈하게 미장은 잘해놓았지만 현실을 심장깊이 감수한 최성호의 넓, 창조의 정신은 찾아볼수가 없단말이요.》

태수민의 저력있는 말마디는 최성호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리었다. 넓이 없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나는 온넋을 기울여 논문을 썼다. 탐구와 사색, 사색과 추리... 지새운 밤은 또 얼마였던가! 그래서 얻어진 열매다. 그런데... 최성호는 야속하고 억울했다. 만약 논문의 그 어떤 빈구석이나 결함에 대해 지적했다면 얼마든지 접수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듯 심혈을 기울인, 피와 살과 심장이니 다름없는 논문에 넓이 없다고 하니 좀처럼 자중할수가 없었다.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온넋을 기울여 용해시간단축과 관련한 문제들을 고찰했습니다.》

태수민은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최성호가 안타까운듯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건 옳소. 하지만 논문을 다시 보오. 여기 어디에 용해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실질적인 비결이 탐구되어있소? 다문 한가지 세부적인것이라도 말이요? 동문 현실에 나와있으면서도 쉽게 성공할것만 바라면서 책속에 파묻혀 선행리론들을 개팔 해놓은것밖에 없소. 여기에 무슨 창조의 넓이있소? 동문 5년동안 헛배웠소.》

최성호는 책소리에 가슴이 찢리우긴 했으나 5년간의 고심어린 공든탑마저 부정해치우는바람에 솟구치는 분기를 억제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졸업문전에 와서까지... 어쩌면 선

생님의 심장은 그렇게도 차고 딱딱합니까?)

그것은 태수민에 대한 루적된 불만의 폭발이기도 했다. 태수민은 그 폭발에 심한 심장의 동통을 느낀듯 한순간 얼굴이 피롭게 이그러졌다. 얼굴색은 몹시 창백했고 숨소리는 고르롭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런 태수민을 본적이 없는 최성호는 흠칫 몸을 떨었다. 이상하게도 꼭 림종을 앞둔 환자의 얼굴을 본것만 같았다.

《제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제 논문이 잘못된거야 없지 않습니까? 사실 대학생의 논문으로서야 통과시킬수도 있는...》

《동문 바로 그 생각이 글렀소. 우리가 논문을 무엇때문에 쓰요? 총명과 지식을 뽐내자고 쓰요, 글재간을 보이자고 쓰요? 한줄의 글을 써두 시대와 현실이 요구하는 문제에 보탬이 되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왜 못하오?》

최성호는 답변할 말을 찾지 못했다. 느껴지는 바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달게 접수되는것은 아니었다.

태수민은 그가 잠자코 있자 의자에서 무겁게 몸을 일었다.

《아니, 어딜 가시려구...》

태수민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갔다. 최성호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나섰다.

바깥날씨는 무더웠다. 이마우에서 지글거리는 태양은 바람한점 없는 공장구내에 불멸을 쏟아붓는데 길가에 피어난 꽃들은 더위에 데쳐진듯 시들 시들했다. 어쩌면 태수민의 모습도 것처럼 시들어 보였다.

그의 귀밑머리는 희끗희끗했다. 나이에 비해 너무도 일찌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태수민이었다. 그 모습이 최성호에겐 눈뿌리 아프게 안겨들었다. 태수민의 나이는 이제 겨우 쉰하나이다. 그런데 예순살나이의 로인처럼 늙어보인다. 어쩌서 갑자기 한생을 다 산 사람처럼 곁늘어보일까?... 지금까지 전사들을 이끌며 불타는 고지우에 통신선을 늘어가던 중대장, 학생들에게 새 지식과 과학의 찬란한 세계를 안겨주던 정열적인 교수만을 보아온 최성호는 선듯 그 까닭을 이해할수 없었다.

태수민은 용해장으로 걸어갔다.

여러개의 로들에서 지동치듯하는 전극의 아크 소리가 귀청을 찢며 심장을 뒤흔들고 팔죽처럼 풀떡거리는 이글이글한 쇠물빛과 뜨거운 열풍이 가득이나 단 몸을 찌물쿠러들었다. 그속에서 로안에 탄소를 투입하는 용해공들의 긴장된 작업모습은 격전을 방불케 했다.

태수민은 저으기 격동된 얼굴로 그들의 작업모습과 로안의 상태를 살피고나서 로상으로 올라가는 쇠사다리의 란간에 손을 짚었다.

용해작업이 한창일 때 로상에는 용해공도 정해진 사람외에는 함부로 올라갈수 없었다. 고압전류의 인입선이 있고 랑각판들이 깔려있는 그곳은 그만큼 위험한곳이었던것이다. 최성호는 교수의

손목을 잡지 않을수 없었다.

《오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럼 용해공들은 어떻게 오르내리오?》

《그들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선... 정 올라가 보시겠으면 출강을 끝낸 저 3호로우에...》

그 순간 태수민의 술이 적은 두눈썹이 꿈틀했다.

《이제 보니 동문... 그러니 동문 백열하는 로상에는 올라가보지 못했겠소?》

태수민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다소 격하게 울려나온 그 음조에는 가혹하다고 할만치 최성호를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채찍이 있었다. 너는 비겁하다. 비겁한 사람이다. 그리구두 전선에서 싸운 사람이라구? 동문 대학공부만 헛한것이 아니라 군대복무도 헛했소. 보이지 않는 그 채찍은 이렇게 뽄뽄거리며 그의 흉벽을 마구 두드려대는가 싶었다. 최성호는 그 아픔을 목새길수 없어 변명하려고 했다. 대학생들을 아끼는 현장일군들은 누구도 그들이 백열하는 로상에 올라가는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로상에 올라가지 못한것을 비겁성으로 단정하고 규탄할수야 없지 않은가?... 최성호는 마지막무렵에 와서까지 자기를 《비겁한 사람》으로 단정해버리는 태수민이가 여간 한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일군들이 있는곳이어서 그 심정을 토설할수도 변명할수도 없었다. 최성호는 이름할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감, 태수민에 대한 누를수 없는 분노로 하여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으나 울며 겨자먹기로 쇠사다리를 타고 로상으로 올라가는 태수민의 뒤를 따랐다.

증기와 열풍속에서 옷자락을 날리며 로상태를 살피고난 태수민은 발밑을 가리켰다.

《랭각수의 온도를 더 낮출수 없겠는가 생각해 보우. 그러면 상대적으로 로의 열을 더 높일수 있을게요.》

최성호는 그가 용해시간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문제를 톡겨주었다고 생각되긴 했으나 눈앞이 아득했다. 이제 그 문제를 풀자면 또 한바탕 모지름을 써야 하는데 그 기일에 대해선 대중할수가 없는것이다. 최성호는 그의 말이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리었다.

태수민은 그의 심중을 헤아린듯했다. 그를 한동안 물끄러미 지켜보고난 태수민은 묵묵히 걸음을 옮기었다. 로상을 내려면서도 공장구내길을 걸으면서도 최성호에 대해선 가뭇 잊은듯 제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걸었다. 언제까지든 그렇게 걸을상실던 태수민은 어느 한 정자나무밑에 이르러 문득 걸음을 멈추고 삼면자크가방에서 두툼한 원고뭉치를 꺼냈다. 내놓기 아쉬운 소중한 물건을 매만지듯 표지를 쓰다듬기도 하고 갈피를 번져보기도 하던 그는 마침내 마음을 굳게 가다듬은듯 추연한 빛이 어린 얼굴로 최성호를 돌아보았다.

《동무에게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소. 한번

읽어보우.》

태수민은 그 원고를 넘겨준후 대학으로 돌아왔다.

그에게서 좋은 평을 받은 동무들은 논문을 정리 하느라고 불긋불긋한 얼굴들에 열이 올라있었으나 최성호만은 풀풀 한숨을 쉬며 책상머리에 맥없이 앉아있었다.

최성호는 자기의 논문이 김규섭이네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학위도 받을수 있는 논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실용적 가치가 없다는 리유로 혹평을 받고 여지없이 기각되었다. 최성호는 이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수 없었다. 태수민은 물과 같은 사람이다. 정확히 말하면 물이다. 불을 끄려드는 물, 물! 하지만 이 세상에 불이 존재하듯이 나를 꺼버리진 못할게다! 문득 이렇게 마음속깊이 부르짖고난 최성호는 머리를 싸매고 일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태수민이가 주교간 원고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될줄 어이 알았으랴. 로가동과 보수작업 과정에 취한듯한 각종 기술테라들이 인용되어있는 그 원고에는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려고 모대기친 집필자의 피어린 고심과 진지한 탐구정신이 반영되어있었다. 미완성원고이기는 했으나 한 학생의 졸업론문에 리용하는것으로 그 치기에는 자료가 풍부하고 그 지향이 너무도 소중한것이였다....

... 십여일간의 고심끝에 새 논문을 집필완성한 최성호는 동무들과 함께 대학으로 돌아왔다. 학부장이 실습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따듯이 맞아주었다.

《성호동무, 그 논문을 이리 주오. 수고가 많았구만.》

《수고랄게 있습니다. 전 부교수선생을 만나야 겠습니다.》

최성호는 입학이후 처음으로 자기 손을 잡아친 학부장에게 꾸념조로 말했다.

《성호...》

학부장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말고 창밖으로 눈을 돌리였다. 매지구름이 떠도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는 그의 두눈에는 슬픔을 누르는듯한 심상치 않은 기색이 비껴있었다.

(?!)

《성호, 놀라지 마오. 부교수선생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소. 며칠전에 우리결을 떠나가셨소.》

그때의 슬픔이 되살아난듯 비통하게 울리는 학부장의 말은 최성호에게 청천벽력처럼 들리였다. 그래서 자기 귀를 의심했다. 열흘전에 제강소를 다녀간 태수민이다. 그런데 무슨 불상사가 있어 그리도 갑자기 우리결을 떠나갔단말인가?...

학부장은 그의 심정을 읽은듯 비분강개한 어조로 그간에 있는 일을 이야기했다.

... 달포전 대학병원 의사들은 태수민의 몸에서 척추에 박혀있는 파편조각을 발견하고 절대안정을 요구했다. 원래 태수민은 대학입직초기부터

교편을 잡을수 없는 몸이였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 사람은 태수민자신이였다. 그러나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요구하며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길을 걷고있는 조국의 준엄한 현실을 가슴아프게 감수한 태수민은 일손을 잡지 않고선 견딜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쟁전에 교편을 잡고 있다가 전선으로 나갔던 그는 다시 교단에 나섰다.

하지만 학부에선 그의 건강이 웬간한줄로 알았다. 학부장자신도 의사들이 태수민에게 절대안정을 요구하며 이 사실을 학부에 알려왔을 때에야 그에게 깊은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는 우선 학생들을 떠라 현지에 나가려는 태수민을 학부에 불러앉혔다. 이런 일이 있은후 보름이 지나간 어느날 학부장은 제강소에서 보내온 최성호의 졸업론문을 앞에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태수민을 발견했다.

《난 최성호가 이런 논문을 내놓을줄 몰랐습니다. 물론 대학생의 논문으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는 논문을 통해 그동안 높이 쌓아올린 자기의 풍부한 지식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만약 이 논문을 그냥 통과시킨다면 최성호는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혈하게 해먹으려는 버릇을 고치기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과학자 아닌 과학자로 되고말것입니다. 난 아무래두 제강소에 다녀와야겠습니다.》

학부장은 교육자의 숭엄한 모습앞에서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몸으로야 어떻게?... 학생을 불러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지생활을 하면서도 책에서 출로를 찾은 학생을 말입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럼 제가...》

《학부일은 어떻게 하구... 제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로 학부장을 불러앉힌 태수민은 이튿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제강소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아-!...)

최성호는 가슴을 움켜쥐였다. 척추에 파편이 박혔다는것은 죽음을 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리하게 열차를 타기도 하고 현장을 돌아보기도 하며 극도로 흥분하기도 했으니 파편이 박힌 그 환부에 가해진 타격이 얼마나 컸으랴.

최성호의 눈앞에는 심장의 동통을 느낀듯 한순간 얼굴이 해쓱해지며 괴롭게 이그러졌던 태수민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최성호는 꼭 림종을 앞둔 환자의 얼굴을 본것만 같아 흠칫 몸을 떨었다. 그런데도 이 최성호는 미련하게도 그를 원망했고 불을 끄려드는 물이라고 저주했었다.

최성호는 숨이 막혔다. 것처럼 웅심깊고 그토록 희생적인 그 뜨거운 마음을 나는 왜 보지 못했는가?...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태수민선생이 잘못된건...》

최성호는 목이 꺾꺾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제 가슴만 쿵쿵 두드렸다. 그는 바위가 앞에 있으면 거기에 제 몸을 태칠듯한 험한 기상이었다. 학부장은 견잡기 어려운 그를 의자우에 눌러앉혔다. 그리고는 숨을 돌리고나서 말을 이었다.

《성호, 부교수선생은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남기었소.

〈성호학생이 돌아오면 내 사과의 말을 전해주소. 실은 졸업후에 하자던 말이었는데... 최성호는 전쟁때 나와 함께 싸운 전우요. 그는 전선에서도 잘 싸웠구 대학에 와서도 자기 힘껏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한몫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난 그에게 험한 길로 가려는 한가지 부족점이 있다고해서 늘 가슴아픈 말을 했지요. 왜 따뜻한 말로 타일러주지 못했는지 지금와서 생각하면 가슴이 뻐뻐 내려가지 않는구려. 최성호는 승벽과 자존심이 강한 학생입니다. 때문에 반발력도 강했구 그런 반발력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서운 힘과 정열을 날군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반발심에 불을 지르곤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크게 반발했으니 꼭 현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논문을 써가지고 올것입니다. 이렇게 그와 나는 상극이었습니다. 물과 불처럼 말이지요.〉...》

물과 불! 어쩌면 태수민도 그런 생각을 했던말인가? 너무도 신통한 일치였다. 그러나 물과 불을 두고 한 그들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 시각 최성호는 물은 그가 아니라 자기자신이였으며 태수민은 그 물을 불처럼 뜨겁게 끓여주고 또

끓여준, 그리하여 증기를 내뿜고 그 증기의 힘으로 줄곧 앞으로 내달게 한 고마운 불이었음을 똑똑히 깨달았다.

태수민은 불이었다. 불을 안고 산 사람이였다. 것처럼 뜨거운 불을 안은 사람이였기에 내가 벼랑을 예돌았을 때에도, 대학공부를 단념하려고 했을때에도, 그리고 이번에 실용적 가치가 없는 논문을 내놓았을 때에도 나를 가차없이 채찍질할수 있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조국의 현실과 함께 숨쉴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준것이였다. 최성호는 태수민의 생전에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이 저주로와 가슴을 쥐어뜯었다.

(나도 태수민선생처럼 살자! 남의 덕에 끓는 물이 아니라 제힘으로 물을 끓이며 나가는 불이 되자!)

스승을 잃은 비분을 안고 최성호가 다진 이 결의는 그후 그의 변함없는 생활신조로 되였다. 최성호는 그런 불을 안고 살았기에 모진 시련속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끊임없이 분발하고 전진할수 있었으며 태수민이가 착상했고 또 일정하게 추진시켜온 문제를 연구완성하고 오늘의 높이에 올라설수 있었다.

...한점의 바람이 최성호의 옷깃을 스치며 가볍게 불었다. 그러자 엄숙한 정적속에 묵묵히 서있던 나무들의 이파리들이 살랑거리고 묘지를 덮고있는 잔디밭에서 잔물결이 일었다. 그것들은 고인의 심정을 담아 끊임없이 속삭이며 최성호박사의 성과를 축하하는듯했다.

가사

귀향의 밤

림유길

그립던 어머니 정다운 눈빛인가
조국의 하늘가에 별빛도 유정해라
떠나면 항해길 위훈안고 돌아온
이 아들이 장해서 반겨주는 웃음인가
아 어서 어서 닳을 내려라
안아보자 쓸어보자 떠나못살 조국아

헤쳐온 날바다 그 길은 몇천리나
수평선 저 멀리 폭풍도 헤쳐네
꿈결에도 불러본 어머니 내 조국

네가 있어 헤쳐못갈 길이 없었네
아 어서 어서 닳을 내려라
안아보자 쓸어보자 떠나못살 조국아

어머니 젖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만시름 다 잊은 내 마음 설레네
이 세상 한끝으로 또다시 떠난대도
마음의 닳줄은 아니올릴 품이어
아 어서 어서 닳을 내려라
충성 효성 다 바쳐 빛내갈 조국아

만근에 대한 생각

장동일

만근이란 사전에 쓰여있듯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다는 말이다. 매우 단순하고 알아듣기 쉬운 어휘다.

우리는 이따금 공장정문의 속보판에서 1년만근한 김아무개, 혹은 3년 만근한 박아무개를 축하한다는 글발을 볼 수 있다. 1년이나 3년을 만근한다. 이것은 만근이라는 짧은 어휘처럼 그렇게 단순치 않다. 여기에 담겨진 뜻을 로동생활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는 얼마전에 무산광산에 나가 현실체험을 하는 과정에 무산광산 운광려단 대형차운전수 리시훈동무를 만났 적이 있다. 그는 자기의 직종에서 20년 가까이 만근을 했다고 한다. 1년이나 3년도 아니고 20년을!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해발 1,000미터를 헤아리는 철산봉에서 20년을 만근하다니?!...

나는 취재수첩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그런데 그에게서 남다른 체질적인 우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로동자거리의 출퇴근길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로동자의 소박한 모습이다. 다르다면 남달리 키가 크고 50이라는 나이에 비해 머리에 일찌기 흰오리가 많아진 것이다.

나는 그가 청춘시절에 어떤 크나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악하게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여 그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그는 책상위에 놓은 큰손을 마주잡고 공연히 주무르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한일이 없습시다... 그저 하루도 빠짐없이 철산봉으로 출근했을뿐입니다. 나야 대형차운전수가 아닙니까.》

후에 안 일이지만 리시훈동무는 무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산광산대형차운전수 양성소에서 2년간 운전기술을 배운다음 철산봉에 올라가서 대형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는 남다른 기질이란 배구를 잘 쳐서 이따금 선수로 선발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이미 20대에 끝났다. 그는 매일 선참으로 첫 인차를 타고 운광대 자기 작업반 휴계실에 도착하였으며 작업배치를 받고 차를 몰고 로전채굴계단을 달리였다. 차가 고장이 나건 대수리를 하건 그의 출근길과 로동시간은 변함이

없었다.

그 나날에 그는 통신으로 고등운수전문을 졸업하고 기수가 되었다. 그후 1급운전사가 된 그는 30여건의 크고작은 기술혁신을 하였으며 20여명의 운전사들을 1, 2급으로 키워냈다. 그 운전사들속에는 영웅도 있다고 한다.

리시훈동무의 이 《만근의 력사》에 담겨진 위훈에 대하여 물론 그자신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얻어들을 수가 없었다. 마침 운광려단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리시훈동무를 숨은 공로자의 명단에 등록하고 그의 자료를 종합하고있는중이였다. 초급당지도원동무는 이제 곧 리시훈동무를 공훈운전사로 추천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시훈동무는 자기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며 그저 하루도 빠짐이 없이 철산봉으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소박한 대답을 다시금 외워보면서 그가 한 한마디의 대답속에 얼마나 값높은 위훈과 빛나는 창조적 로동의 열매가 있는가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소박한 대답은 무산광산의 리시훈동무만이 아닌 우리 나라 다른 공장의 이름없는 로동자한테서도 들을 수 있다.

제철소의 용광로와 해탄로, 탄광의 지하수천척막장과 건설사업소의 제관직장... 이 나라의 수많은 직장과 작업반의 출근부에 등록된 수백수천만의 로동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출근시간이 되면 자기 교대, 자기 작업반에 어김없이 출근한다. 여기에는 그 누구의 독촉도 없으며 그 어떤 조건타발도 없다.

그들은 새 전투과제를 받고 그것을 넘쳐해낼 신념과 희열에 넘쳐 웃고 떠들며 작업반휴계실을 나선다. 용광로와 해탄로 앞에서 시원한 탄산수를 마시며 창조적 로동의 긍지를 느낄 때의 소감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는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3년, 5년, 10년을 만근한 사람들을 허다하게 알고있다. 얼마전에 나는 제철소에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나에게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워준 박아바이를 만났는데 그는 36년째 만근하고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년배인 최아바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작년겨울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출근길을 걸어 자기

의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또 일하며 만근의 나날을 이어가는 그런 노동자의 창조적 노동의 하루, 하루에 빛나는 위훈이 깃들어있으며 우리 당이 내세우는 숨은 영웅의 높은 정신세계가 비껴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만근-여기에는 진지하고 소박한 인간의 근면성과 가장 깨끗한 양심이 비껴있다. 그것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가가 바로 만근이라는 두 글자에 있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강직한 노동계급의 완강한 의지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낳았고 그 정신으로 우리는 전쟁으로 채터미만 남았던 빈터우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웠다. 하여 세계는 조선사람을 영웅적 조선인민이라고 부르고있다.

나는 오늘아침도 출근길을 메우며 활기있게 걸어가는 노동자들의 릉름한 모습앞에서 조선노동계급의 성격을 보며 조선인민의 기상을 보며 이 땅에 도래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그날을 보고있다.

시대의 기수이며 선도자인 우리 작가들은 바로 이들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현실체험을 하며 그들속에서 노동계급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단숨에 달려왔노라 나의 수도여

최정기

단숨에 달려왔노라

나의 수도여

난생처음 찾아온 견학생이라고

이리도 반가이 맞아주는가

아 정다운 품이어

가까이 손잡아이끄는듯

푸른손 쪽 퍼들고 반겨주는 가로수들이여

텔레비죤화면에서 보며 울렁이던 마음

이렇게 가까이 보니

가슴이 부풀어

유원지로 줄지어 들어서는

저 사람들속에도 흠없이 섞이고싶구나

기증기 춤추는 어느 건설장이든

제 일터처럼 성큼 들어서고싶구나

덥석 안아보자 높이 솟은 기념비들이여

안아보자 눈물이 나도록 반가운 거리여

수령님 우리 공장에 오셨을 때

승용차 바퀴에 흐르던 비물이

어느 거리

너의 어느 골목길에 젖어내렸느냐

우리 지도자동지

나의 기대앞에 오셨던 새벽

차우에 소복이 쌓였던 그 흰눈이

푸실푸실 날리어

너의 어느 가로수밑에 녹아내렸느냐

한일도 없는 나의 훈장내신서를

소중히 받아준 품아

나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정령을

당보로 찍던 그 인쇄기들은 어디 있느냐

신문에 난 내 이름을

기쁨속에 읽어보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내 이렇게 지금 왔어도

밤낮 일감을 안고

기대앞에 찍은 혁신의 발자국들

위훈속에 흘린 충성의 땀방울들이

여기에 다 모여

지금 나를 받들어주고있는게 아니냐

잘 왔노라고

반겨주는 거리거리

너를 위해서라면

내 그 무엇을 서슴으랴

부푸는 가슴속에 맹세도 새로워라

아, 이 가슴에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새 숨결을 넣어주고

창조와 열정의 샘을 부어주는

혁명의 심장이여

휴일의 공원에서

김광민

웃음소리
꽃향기 넘친 공원길로
아장아장 다가오는
귀여운 아이

불우물이 고와
맑은 두눈이 귀여워
어서 오라 손내미니
생긋 웃는 눈
왜 이리도 나의 마음 사로잡는가

정쟁이말을 빠지며
쳐다보는 그 눈
넋کم 안아올리니
앵두입술새로 씹어넘기는 말
-아저씨 무슨 일 하나

뭐라고 말해줄까
통일성전에 한몸 바친 몸
무엇을 한다면
아이가 알것인가
생각도 굴리기전에
다시 묻는 말
-우리 아빠 집짓는다
아저씨 오늘 무슨 일 했나?

아-
이제 겨우 말을 뻔
철없는 아이의 물음이

사나이 이 가슴 휘젓는다
내 오늘 정녕 조국앞에
무엇을 해놓았던 말인가

베꾸는 사랑속에
저 기쁨넘친 거리우에
저 맑고 티없는 아기의 눈동자에
하나로 통일된 하늘을 이어놓으리라
다짐하고 나선 청춘이 아닌가

나를 쳐다보는
저 애들의 세대에
통일을 물려주지 못한 세대로
여생을 행복에만 취해 산다면
내 무슨 이 시대에 태어난 청춘인가
내 무슨 우리 당의 참된 아들인가

말을 못한다고 탓하지 말아
기어이 통일의 대문을 열고
이 손으로 너를 높이 추켜안고
우리의 하늘과 땅이 다 든도록
소리쳐 그날을 자랑하려니

믿어다오 아이야
레사로온 휴식의 날에도
이 가슴에 채찍처럼
시대의 임무를 자각케 해준
고마운 아이야

가을날 들길에서

조창제

차창으로 불어드는 바람결도
구수한 낱알향기
종구나
풍년바람에 취해
풍년바다에 떠실려

자동차도 흥에 겨워 달리는듯
차창에 스칠듯 날으는
빨간 잠자리도 춤추는 가을
수염발 헤치고

웃는 얼굴같이 내여민 강냉이이삭도
하늘에 땅에
보는이 누구에게나
웃음을 더해주는 이 좋은 날

황금물결우에 선녀같은
처녀들의 웃음도 여물었구나
안면없는 사이라고 뉘 흠하랴
내 잠시 풍년들 지나는 운전수여도
누구에게나 기쁜 마음 터놓고싶은
홍에 겨운 가을인데야
수고 많다 손 흔들어줌이...

풍년자랑 손집 가득 채운것인가
도시 사는 아들집에 떠난 걸음인가
길에 나선 할머니도 홍에 떠서 걷는듯
차를 세워 태워드릴도 흥겹구나
집도 닝큼 안아 올려놓아드리고
풍년기쁨 함께 나누이 더 좋구나

벼수확기 몰아가던 처녀도 잠시
나를 향해 꽃수건 흔들어주누나
들판의 처녀들 합창하듯
잘 가라고 모두모두 손흔들어주누나

홍에 들뜬 코노래도 절로 나누나
할머니도 차창으로 손흔들며
누구에게라 없이 화답하는 길
등뒤에선 따라서는 쟁쟁한 목소리
《운전수동무! -잘-가-세-요-》

온갖 열매 무르익는 이 가을날
나는 차를 몰며 생각했네
혹시 이 할머니의 손녀가
저 처녀들중에 있는게 아닌지
아니면 저 처녀들도 풍년바람에 들떴는가

그럴수도 있으리
허나 내 가슴에
잘 익은 낱알향기처럼
흘러드는 생각은

아 조국 위해 수고많은 농장원처녀들에게
내 손흔들어주며 지나고싶었던것처럼
내 소박한 좋은 일에
저 처녀들 그리도 기뻐한다는것을
착한 일을 한 사람
언제나 정다운 인사를 받으며
살수 있다는것을!

탄전의 마음

김희철

아침부터 분주하네
막장지원 간다고 어서 가자고
인민반 너인들 서로 찾는 소리에
저란장 탄더미도 어깨를 솟구는듯

갓 시집은 탄부의 안해
수집어선가 조용히 묻네
서두르며 떠나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일터가 어디예요》

송진내 상기 향긋한
문을 열고 나서며
이제는 세대주가 된
제대군인탄부는 빙긋

어떻게 대답할가
어디라고 대줄가
갈래갈래 많은 굴길
시간마다 깊어지는 막장

어찌 알랴
날마다 일하는 우리의 탄부들도

교대를 넘겨받으며 어리둥절
놀라며 바라보는 그 막장을

늘쌍 탄부들과 함께 있고싶어
날마다 찾아오는 기사도 발걸음 더듬고
전차운전공처녀도 경적소리 길게 찾으며
찾아와선 다시 놀라는

어떻게 대답할가
깊어질수록 조국이 더 가깝고
깊어질수록 자량이 더 많아지는
마음속 이 기쁨, 이 행복을

신들메를 조이며
제대군인탄부
싱글벙글 대답했네
《내 일터야 조국의 맨 앞자리지》

《아이참 그 앞자리 뒤흔면 어쩔담》
따라섬 방긋 웃는 그 마음
탄전을 지켜가는
뜨거운 마음이어

우리 시대의 청년전위-3 대혁명소조원의 형상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최연경

청년전위라는 칭호는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지는 그런것이 아니다. 그것은 참다운 혁명가만이 지닐수 있는 가장 값높은 영예이다.

우리 혁명의 첫 공산주의청년전위들인 김혁, 차광수, 그들의 이름은 그 얼마나 고귀한 혁명가의 삶으로 빛나는것인가.

바로 이 열혈의 청년전위들이 있었기에 피바다에 몸부림치던 이 나라의 뜻있는 청춘들이 위대한 향도의 태양을 우러러 하나의 자주적 생명체를 이룰수 있었고 갈길을 몰라 헤매던 조선혁명은 마침내 주체의 항로를 따라 닦을 높이 올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수 있었다.

이 청년전위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척된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 충성의 길은 혈전만리, 눈보라만리, 《북만원정》의 길로 이어졌고 철화를 뚫고 사선을 헤치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이어져 갔다.

청년전위들의 거룩한 뉘은 오늘 우리 시대로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그것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우리 당의 구호에 집약되어있다.

우리 시대를 굽이치고있는 이 영웅적 대하의 앞장에 우리 시대의 혁명전위인 3대혁명소조원들이 서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 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과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함으로써만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의 3대개조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제시한 우리 당의 방침에는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어있으며 계속혁명의 위대한 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어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인 3대혁명을 앞장서 수행해나가는 3대혁명의 전위이며 80년대의 청년전위들이다.

바로 여기에 항일혁명선렬들과 영웅전사들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계승성과 함께 우리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체현한 3대혁명소조원의 혁신적 성격이 있는것이다.

80년대의 청년전위인 3대혁명소조원들은 일찌기 조선혁명이 개척되어나가던 혁명의 려명기에 첫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의 충신들이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은 그들의 성격을 특징짓는 기본풍모이다.

이와 함께 그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투쟁의 목표로, 삶의 리상으로 내세우고 살며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다. 여기에 또한 이전시기의 청년전위들과 구별되는 3대혁명소조원의 새로운 성격적 특질이 있으며 보다높은 차원의 정신세계가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우리 시대의 청년지식인들이다.

이 모든 사상정신적 특질과 자질로 하여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시대의 참된 청년혁명전위로, 우리 당의 미더운 핵심력량으로 되는것이다.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여러가지로 복잡한 가운데서도 끄덕없이 3대혁명의 붉은기치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 당이 제시한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함께 3대혁명소조원들을 3대혁명의 전위로 내세우고 이끌어준 우리 당의 한없는 위대성을 웅변으로 확증해주고 있다.

참으로 3대혁명소조원들과 같이 미더운 혁명의 전위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랑이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시대의 영웅이며 혁명의 전위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빛나는 투쟁을 형상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 문학은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에 바쳐진 첫 작품인 영화문학 《빛나는 세대》를 비롯하여 《청춘의 심장》, 《자신에게 물어보라》, 《농장의

팔》 그리고 《군당책임비서》, 단편소설 《해빛을 안고온 청년》과 일련의 시, 가사 등 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문학은 아직 3대혁명소조원들의 투쟁을 반영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지 못하고있으며 특히 소설작품을 본격적으로 내놓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개척한 창작적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3대혁명소조원을 훌륭히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본격적으로 창작함으로써 우리 시대 청년들과 근로자들을 3대혁명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다.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근본문제, 심각한 인간문제를 전면내 내세우고 깊이있게 해결하는것이다.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인간문제는 혁명적 량심에 대한 문제이다.

혁명적 량심을 떠나서는 참된 혁명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과 수령에 대한 참된 충성심도,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도 그리고 혁명적 신념과 지조도 그 모두가 다 혁명적 량심과 결부되어있다.

3대혁명소조원은 말그대로 혁명의 전위이다.

그들은 남에게 요구하기전에 자신이 실천하여야 하며 남을 혁명가로 개조하기전에 자신이 참된 혁명가로 되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대중은 그를 따르지 않으며 군중이 따르지 않는 소조원은 혁명의 전위로 될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리춘구의 두편의 영화문학 《청춘의 심장》과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실로 귀중한 긍정적 경험을 준다.

작품들은 혁명적 량심에 대한 문제가 현시기 얼마나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심각한 현실적 문제인가를 날카롭게 제기하고있다.

영화문학들은 다같이 혁명적 량심에 대한 문제가 운명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할 혁명가의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영화문학 《청춘의 심장》은 그러한것을 어느 한 선박수리소에 파견되어 우리 당의 인민경제주체화방침을 관철해나가는 주인공 채숙의 형상을 통해 잘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소조원 채숙은 친히 이곳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꽃다발을 받으시면서도 수리를 하지 못하여 세워둔 배를 보니 마음이 기쁘지 않다고하신 그날의 그 심려의 말씀을 순간도 잊을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배수리에서 걸리고있는 수입체원료인 코베트메달을 국내산 원료로 대용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것이다.

낮과 밤을 이어 기울인 노력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 최종시험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운명이 결정되는 이 마지막순간에 넘기

어려운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다. 최종시험에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유독성가스가 나오는것이다.

실로 혁명가의 진가가 결정되는 준엄한 시각이 왔던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지금까지 이 사업을 기술적으로 말아 해온 명호기사가 모든것을 포기하고 로골적으로 물러섰다. 생명의 위협에 겁을 먹고 본색을 드러낸것이다.

그는 그런 무모한 희생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하면서 자기도 인간이기때문에 그런 희생을 할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3대혁명소조원 채숙은 바로 인간이기때문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채숙은 비장한 결심을 품고 유독성가스가 생명을 위협하는 그속으로 서슴없이 들어가 끝내 최종시험을 해내는것이다.

영화의 주제가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는 불타는 심장을 바치는 이 길에 청춘의 영예가 빛나고 혁명가의 참된 삶이 있다는것을 굳게 믿었다.

천백번 죽을수도 있는 이 길에서 지켜진 채숙의 혁명적 량심, 이것은 결코 문학작품에서나 읽고 볼수 있는 하나의 미담이 아니며 혁명하는 길에서는 피할수 없이 부닥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생사문제와 같이 혁명가의 량심을 검열할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없다. 혁명을 위한 길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사람만이 혁명적 량심을 지킬수 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맞받아나간다는것이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우기 그것이 원수와 총구를 마주하고있는 전쟁터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터에서 부닥치게 될 때 더더욱 그러한것이다.

혁명적 량심에 대한 문제를 생사와 관련되는 심각한 인간문제로 날카롭게 제기하고 그에 생활적 해답을 준 여기에 혁명의 참된 전위로서의 3대혁명소조원 채숙의 형상의 의의가 있고 작품의 성과가 있다.

혁명적 량심에 대한 문제는 특히 그것이 혁명과 개인, 집단과 《나》의 계선에서 제기될 때 더욱 절박한 생활적 문제로 된다.

혁명적 인생관은 곧 집단주의적 인생관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참된 혁명가로 되는 과정이란 곧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개인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시련많은 혁명의 길에서 크고작은 혁명과 집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혈육의 행복부터 생각할 때 혁명의 량심은 지켜지기 어렵다.

영화문학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바로 이 심각한 인간문제를 안고있다.

3대혁명소조책임자 문석주와 방목공처녀 산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어떻게 제 앞길을 막을 결심을 그리도 쉽게 하셨는가요?》-이것은 도시로 시집을 가려는 자기를 막아나서는 문석주에게 묻는 산매의 말이다. 이에 대하여 문석주는 《동무도 량심이 있을테니까.》라고 대답한다.

산매가 다시 누구에게나 량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고 하면서 허끝이 아니라 심장에 붙은 량심에 대하여 말할 때 문석주는 또한 《사람의 심장이 하나듯 이 량심 또한 하나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이것은 실로 생활론리로 보아 산매와 문석주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산매는 그 품이 너무도 고마와 당의 호소를 받들고 여기 해발 1,700메터나 되는 매봉등판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는 온갖 고생끝에 마침내 소방목에 성공을 하고 한다하는 처녀방목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으며 동무들은 그에게 사서 고생을 한다고들 하였다. 사실상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간 동무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굽높은 구두에 화려한 옷을 입고 편안히 잘 살아갔다.

그리하여 산매는 마침내 자기가 스스로 가꾸고 개척해온 그 생활에 환멸과 권태감을 느낀 것이다.

문석주의 시점에서 볼 때 산매의 이런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었으며 또 소조책임자인 그에게는 그것을 일깨워 고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오늘의 산매와 같은 청춘의 그 시절을 해주-하성철도전선장에서 보내며 희생을 보람으로 간직해온 문석주에게는 산매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도 당당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니 문석주는 산매가 다시 한번 자기에게 유박하여 《그럼 동지의 심장과 함께 있는 깨끗한 량심한테 물겠어요. 만일 지금 동지앞에 앉아있는 이 농장처녀가 남이 아니라 동지의 친딸이었다면 그래도 동지의 량심은 못간다고 하겠나요?》라고 물었을 때 그만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 얼마후 석주는 자기의 당적 량심에 비추어 동무가 내 친딸이었다 해도 이 어려운 초소를 지키라고 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산매가 이 초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면 소조책임자의 세 딸중의 누구든 데려올 수 있지 않는가고 하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과는 상대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을 때 참으로 자기에게는 아직 산매에게 대답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는 것이었다.

사실상 지금까지 도시에서 책임지도원으로 사

업하여온 문석주는 이곳 산골농장에 파견되어 그 처럼 아글타글 애써 일하면서도 그것을 혁명과업으로만 생각하였지 이 농장의 운명을 자기 운명, 자기 가정의 운명과 결부시켜서까지 생각해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문석주와 같이 준비된 혁명가에게 있어서도 아릅찬 높은 요구인 동시에 그러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는 우리 혁명이 그 해결을 절실하게 바라는 절박한 현실적 문제였다.

이것을 자각한 순간 문석주는 주저없이 딸들을 데리러 집으로 가며 자기의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였을 때 자기자신이 이 매봉산등에 영원히 뿌리내릴 것을 결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의 혁명적 량심을 끝까지 지켜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의 참된 혁명의 전위로서의 문석주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있으며 그 성격의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 시대의 혁명전위들은 그 정신적 이상과 지향성에 있어서 만족과 정지를 모르며 그것은 숭고성과 고상성에 있어서 실로 무한대의 것이다.

자신의 이 벅찬 체험을 두고 당조직앞에 26년간의 당생활을 총화하며 자기를 돌이켜보는 3대혁명소조원 문석주의 모습은 얼마나 가슴뜨겁게 안겨오는 것인가.

이러한 아버지의 깊은 뜻을 받들고 마침내 때 묻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인 셋째딸 수림이 여기 매봉으로 달려온다.

산매와 수림이 극적인 상봉을 하는 이 절정의 장면에 또한 작품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심오한 사상예술적 해답이 있다.

산매라는 그 처녀는 아직도 소조책임자의 량심을 믿지 못할가고 묻는 수림에게 산매는 《그 처녀는 이렇게 대답할게다.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다 너의 아버지같았으면 우리 수령님께서와 당에서 얼마나 마음편하시겠니〉 하구...》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한 작품의 기본문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허끝에 붙은 량심》이 아니라 《심장에 붙은 량심》이 진짜배기 혁명적 량심이며 혁명적 량심을 참답게 지켜가는 거기에 진정한 충성과 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작품이 체현하고있는 심각한 문제성은 우리 시대의 혁명전위인 3대혁명소조원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높은 차원에서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새 세대들에 대한 혁명관교양에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하였다.

참으로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지켜가며 충성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어나가는 3대혁명소조원 문석주의 형상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따라배워야 할 참다운 혁명전위의 본보기로 된다.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뜻깊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인간개조의 심각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것이다.

사상혁명 3대혁명에서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사상혁명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개조, 인간의 사상개조과정이다. 3대혁명의 전위로서의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은 마땅히 인간개조과정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의 능동적 요인은 사람이며 따라서 인간개조를 떠나서는 기술혁명도 문화혁명도 수행할수 없다.

3대혁명소조원을 그린 모든 작품들이 인간개조자로서의 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영화문학 《자신에게 물어보라》와 《청춘의 심장》의 주인공이 그러하며 또한 《빛나는 세대》와 《농장의 딸》의 주인공이 그러하다.

인간개조자로서의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인간개조와 기술개조 과정을 밀착시켜 보여주면서도 어디까지나 인간개조과정을 보여주는데 기본을 두고 그린것이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기술혁명은 3대혁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3대혁명의 전위로서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전 시기의 혁명전위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중요한 특질의 하나도 그들모두가 기술혁신자일뿐아니라 기술혁명의 선구자, 기술들이라는데 있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인 청춘의 기질과 대하과정을 통하여 체득한 높은 전문과학기술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하며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게 하였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기술개조과정속에서 그리게 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술개조과정을 반영한다는것은 곧 우리 문학이 기술혁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다룬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마땅히 기술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 과학기술적 자질 그리고 거기로부터 벌어지게 되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인간개조의 심각한 과정과 밀착시켜 보여주어야 한다.

영화문학 《군당책임비서》는 기술개조과정을 보여주면서도 어디까지나 인간개조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좋은 실례로 된다.

영화에서 보는바와 같이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옥천강발전소 기사장인 박우필의 개조선이다.

물론 박우필의 개조과정에는 기술문제도 놓여 있다.

박우필은 당의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을 받들고 수입제연료인 증유대신에 우리 나라에서 많이 나는 갈탄으로 점화로에 불을 지피는 방법을 연구해 낸 태성묵의 창발적인 기술혁신제안을 애당초부터 묵살해버린다.

이것은 기술문제 그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단순한 기술실무적 문제가 아니며 우리 당의 주체화방침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태성묵은 언제 우리 선조들이 불쏘시개로 남의 나라것을 쓴적이 있는가고 하면서 책임비서동지는 순간에 리해하는 진리를 기사장동지는 왜 10년이 지나도 리해하지 못하는가고 말하는것이다.

박우필의 이러한 그릇된 행동의 기초에는 로동계급의 창조적 능력을 보지 않고 대중을 무시하며 자기 개인을 집단과 대중우에 올려세우려는 소총명과 독단, 개인영웅주의가 놓여있는것이다.

지어 그는 당조직도 안중에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가 자기를 키워준 혁명선배인 최관배로인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게 된것도 바로 이러한 사상적 병집에 근원한것이다.

박우필의 이러한 개인영웅주의와 그로부터 나오는 소총명과 독단은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으며 인간관계에서 평등의 원리와는 대비할수 없는 높은 차원의 원리인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온 사회를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수 없는 개인주의적 인생관인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박우필은 최관배로인이 말한바와 같이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수령의 은정도 모르는 의리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3대혁명소조원은 박우필의 이러한 사상적 병집을 고쳐주기 위하여 타협없는 투쟁을 하는것이다.

그는 로동계급인 태성묵이 제기한 창의고안을 묵살해버린 박우필을 두고 기사장동무의 편견과 독단에 의해 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고 강하게 비판한다.

지어 그는 박우필이 소조원의 말은 옳으나 그것은 지상공론이라고 하면서 경제사업은 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반박해나서자 《제가 기사장동지의 딸같지요?》 하고까지 은근하면서도 아프게 들이댄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함께 3대혁명소조의 이러한 방조속에서 박우필은 마침내 자기의 사상적 병집을 깨닫게 되며 갈탄에 의한 점화로 불지피기방법도 성공하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갈탄에 의한 새로운 점화로 불지피기방법

법의 도입과정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정인 동시에 보다 더 중요하게는 당과 대중도 안중에 없이 소총명과 개인영웅주의에 사로잡혀 독단을 부리는 한 기술일군을 참된 혁명가로 개조하는 심각한 인간개조과정이었다.

바로 이 뜻깊은 인간개조과정, 사상혁명의 중심에 우리의 미더운 혁명전위인 3대혁명소조원이 서있었던 것이다.

예술영화 《청춘의 심장》에서 벌어지는 수입제 코베트메달을 국내산으로 대용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정도 인민경제를 주체화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정인 동시에 혁명을 위하여 심장을 바칠 줄 모르는 한 기술자를 참된 충신으로 개조해나가는 심각하고 첨예한 사상혁명과정이었다.

인간개조자로서의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개조대상, 3대혁명의 대상으로서의 부정의 성격을 현실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탐구하고 그 개조과정을 혁명발전의 높은 요구와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옳게 그리는 것이 다.

여기서 부정적 성격에 대한 탐구가 부정을 조장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는데 복무한다는것은 더 말할것 없다.

류형화된 판박이부정이 아니라 비반복적인 부정적 성격을 새롭게 찾아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동시에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미학적 문제의 하나로 된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과 단결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긍정이 온 사회를 더욱더 확고하게 지배하고있다.

그러나 낡고 뒤떨어진것으로서의 부정은 의연히 존재하고있으며 그것은 비록 미미한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혁명이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매우 심각한것이 아닐수 없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시대의 전진을 더디게 하며 3대혁명수행을 방해하는 부정적 성격들을 예리하게 찾아내고 그를 개조하는데서 3대혁명소조원이 노는 전위적 역할을 옳게 보여주어야 한다.

실로 우리 현실속에 존재하는 부정의 성격은 다양하다.

부정에서 가장 보편적인것은 영화문학 《농장의 딸》에서 보는바와 같이 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혁명화되지 못한 성격들이다.

예술영화 《농장의 딸》은 알곡소출을 높이는것과 동시에 농민혁명화를 위해 투쟁하는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여기서 혁명화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말쑥꾸러기 과부농민과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 그리고 무탈하고 무뎡한 작업반장의 형상은 그대로 우리 현실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부정들이다.

3대혁명소조원은 임자는 왜 농촌에 와서 나같은것을 만나 고생을 하는가고 하는 과부농민에 대하여서는 긍정감화교양을 하여 분조장도 시키며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가려는 건달청년에 대하여 서는 실천감화교양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작업반장도 스스로 자기를 깨닫게 한다.

부정의 특징으로부터 작품에서는 첨예성을 띠는 갈등과 강한 성격충돌이 없이 부정을 개조하고있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영화문학 《빛나는 세대》에서의 부정은 또한 그와는 다른 고유한 양상을 띠고있다.

부정인물인 화학공장의 직장장은 오랜 로동계급 출신으로 일찌기 토지혁명때 로동자파견원으로 농촌에 나가 소조원의 아버지와 함께 토지개혁을 수행하였다. 그는 주관적으로는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려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수양하고 혁명화하지 않은 결과 당정책관철에서 민감하지 못하고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주관적 욕망과는 반대로 혁명의 짐이 된 그런 부정적 성격인것이다.

그러한것은 기술혁명을 하려는 소조원에게 《정치사업만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말 한마디에서도 뚜렷이 엿볼수 있다.

해방후 당을 따라 혁명해온 오랜 혁명가이며 지도일군인 직장장의 이러한 성격이야말로 3대혁명소조원들이 도와주고 고쳐주고 이끌어주어야 할 주되는 개조대상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부정의 성격을 새롭게 탐구하고 그 개조과정을 형상하는데서도 영화문학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일핏 보면 두 주인공인 문석주와 산매가 호상 갈등대상인물인것처럼 보이며 지어는 부정의 성격이 문석주에게 많이 부여된듯이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한것은 특히 작품의 제목으로 되고있는 《자신에게 물어보라》라는 문제가 문석주에게 걸리고있으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심각한 논쟁이 석주와 산매 사이에서 진행되기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혁명의 초소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시로 떠나려는 산매의 행동을 두고 보면 그가 또한 부정적 성격을 체현했다고도 볼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결코 산매도, 문석주도 부정인물이, 갈등의 대상인물이 아닐뿐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전형들이다.

작품에서는 《심장에 붙은 량심》을 지닌 참된 충신으로서의 3대혁명소조직업자 문석주의 형상이 《허끝에 붙은 량심》을 가진 관리위원장의 형상과 대립하고있으며 주체형의 참된 새 세대인 방목공처녀 산매의 형상이 개인적 안락과 행복만

을 추구하는 새 세대의 부정인 문석주의 만딸, 둘째딸의 형상과 날카롭게 맞서고있다.

관리위원장은 입만 벌리면 청년들에게 농촌에 뿌리를 내리라고 허끝의 소리를 하였으나 자기의 다섯 아들딸은 모조리 도시로 내보낸것이다.

부정적 성격은 특히 목가적인 행복에 빠진 나머지 자식들에 대하여 눈먼 사랑을 하는 문석주의 이해, 매봉으로 오라는 아버지의 요구앞에 동요하는 만딸 수정이와 특히는 그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서는 둘째딸 수련이에게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수련은 산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동무는 방목공이 싫으면 어서 시집이나 갈것이지 무엇때문에 남의 행복한 가정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요? 그래 고지식한 우리 아버지를 궁지에 몰아넣고 동무는 무엇을 얻자는건가요? 우리가 무슨 머저리라고 그 산간벽촌에 가서 소풍밑에 자기의 일생을 물어버리겠나요.》

산매에게 보낸 수련의 이 모욕적인 편지와 행동은 오늘 우리 시대의 적지 않은 청년들에게서 볼수 있는 부정적 성격을 매우 진실하게 드러내 보이고있다.

《우리가 무슨 머저리라고 그 산간벽촌에 가서 소풍밑에 자기의 일생을 물어버리겠나요》- 지금까지 그 어느 작가도 새 세대들속에 있는 부정의 본질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그리고 솔직하고 예리하게 집약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여기에 인간개조문제해결에서의 작가의 새로운 탐구와 귀중한 발견의 한 측면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발견은 3대혁명소조원 문석주의 새로운 성격탐구에 있다.

작품의 주인공들인 문석주와 산매의 긍정적 성격은 이상과 같은 부정인물들과의 날카로운 갈등속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문석주와 산매는 서로 부족점을 비판보충해주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그들의 부정적인 성격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참된 충신으로서의 성격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주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매혹시키고있다.

바로 여기에 또한 영화문학 《자신에게 물어보라》가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에서 새롭게 개척한 중요한 미학적 기여가 있는것이다.

방목공치녀 산매가 3대혁명소조책임자 문석주에게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하였을 때 그것은 결코 문석주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에 기초한 비판이 아니였으며 어디까지나 초소를 떠나지 말라는 그의 권고가 틀림없이 관리위원장과 같은형의 일군들이 번번이 하는 허끝량심의 말일것이라는 추측에 기초한것이였다. 산매가 말한바와 같

이 그러한 허끝발림의 말은 신물이 나도록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것이다.

그러나 문석주는 자기에게 던진 산매의 말을 결코 남에 대한 비판으로, 일반적인 비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산매에게 제기했던 자기의 요구를 자기자신에 대한 요구로 새삼스럽게 제기해보게 된 문석주는 주저없이 한달음으로 딸들을 데려오려고 불원천리하고 집으로 달려가는것이다.

충신이라고 믿었던 자기의 가문에 수정이, 수련이와 같은 배신의 존재를 가슴저리게 자인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진정으로 량심의 가책을 느끼는것이다.

초급당비서를 찾아가 자신의 그러한 량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보이며 피로와하고 끝내는 딸들이 오지 않는 그 매봉등판에 자신이 영원히 뿌리내리기로 결심을 하는 문석주, 그러다가 막내딸 수림이 이곳으로 왔을 때 그것을 그리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3대혁명소조원의 모습은 진정 그 얼마나 미덥고 진실하며 숭고한것인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그 순도에 있어서 순금처럼 한점의 티도 없으며 그 열도에 있어서 태양과 같이 뜨거운 충성심을 심장에 간직한 참된 충신, 참된 혁명전위의 전형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문석주의 말과 행동에는 가식이 없으며 량심에 어긋나는 거짓이 없다.

순금덩어리에는 금이 갈수 있어도 이러한 충신의 심장에는 비량심이 자리잡을 틈이 없다.

이처럼 진실하고 순결한 충신의 전형을 형상하는데서 실로 부정의 새로운 성격탐구와 독창적이고도 깊이있는 개조과정은 매우 중요한 미학적 의의를 가지고있다.

사상혁명의 대상인 그런 부정이 다름아닌 문석주의 이해이며 딸이라는 여기에 문제의 보다 큰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성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형상은 그자체만으로써도 충신의 가정이라고 하여 저절로 충신이 나오는것이 아니라는 심오한 혁명의 진리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작품에 그려진 부정의 성격들은 그 신랄한 진실성과 사회적 문제의 예리성으로 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과 새 세대교양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며 3대혁명의 전위로서의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창조에서 하나의 새로운 경지에 대한 개척으로 된다.

우리 문학은 이미 이룩한 창작적 성과에 기초하여 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풍년비》 내리는 미루등에서

도정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완성하였기때문에 큰물과 가뭄피해로부터 논밭과 농작물을 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기적적인것에서는 물론 작고 평범한것에서도 당정책의 생활력과 위대한 사상의 정당성을 감득할 때가 있다.

며칠전 취재차로 신계군 미루등에 갔던 나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초저녁에는 이것저것 생각을 고르느라 잠 못드는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된 나는 그날도 어떤 글을 쓸것인가를 곰곰히 사색하며 미루등관을 거닐고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청개구리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청개구리에 대한 옛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면서 부모들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었다. 하지만 그 옛 이야기보다는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는 굳어진 생각이 나의 머리속에 깊게 자리잡았던 탓에 나는 비가 오려나부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하늘에는 크고작은 별들이 밤 《바다》를 빼곡이 채우고 끝없이 명멸하고있었다.

이 자연세태생활의 불일치에 의혹이 생긴 나는 청개구리울음소리가 나는곳으로 걸음을 옮겨갔다. 청개구리들은 분수식 발판개가 완성되어 물을 뿜어 올리는 강녕이밭에서 요란스레 울어댔다.

(비오는 날에만 울어댄다는 청개구리가 별이 총총한 날에도 울다니? 분수식 발판개가 좋긴 좋구나!)

순간 나의 머리를 스치는 이런 생각은 나를 끝없이 흥분시켰다.

금년에도 야박한 하늘은 비를 적게 주었으나 개표리가 돌기 시작한 무연한 등판의 강녕이밭은 깊은 바다속 같이 검푸르게 독이 올랐다. 길이 한발에 뿔이 벌게 넓은 잎이 달린 강녕이대는 안고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을만치 실하다.

《금년에도 대풍이 들겠구나!》

나는 실한 강녕이대를 매만지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건 그럴것이 뻔하다.

우리 수령님께서 늘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농사를 잘 지을데 대해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차창가에 문득 비끼는 하나의 전주대를 보시고도 콩크리트관으로도 분수식 발판개를 할수 있겠다고 가르쳐주시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나는 저도 모르게 발가운데로 들어섰다.

별이 총총한 하늘아래 좌좌 소리내어 쏟아지는 《약비》를 맞으려니 생각은 절로 깊어졌고 지난날의 아버지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인간의 압박과 자연의 구속을 연약한 어깨에 멍에처럼 걸메고 애리한 피부가 피약별에 벗겨지도록 눈물지으며 농사를 지어야 했던 해방전의 아버지.

아버지의 고향인 미루벌은 원래 가문데다 몇해째 왕가물이 계속되어 사람들이 더는 살래야 살수 없어 정처없이 하나 둘 떠나가버렸다.

길바닥은 몽당가루가 풀썩이고 논판의 개구리알은 다 말라붙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나마 그 땅을 버릴수 없어 겨우 모를 낸 논판을 부여안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안달복달하는 땅우의 생명들을 내려다볼뿐 비 한꼬치 떨어지지 않았다.

하늘가에 비긴 조각구름만 보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태우고 잠결에 바람소리만 들어도 비소리가 아닌가 하여 눈을 비비며 정지문을 열곤 하던 아버지는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논을 보다 못해 어느날 지주가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물 몇 초롱을 길어다 논에 부었다.

이 저수지는 원래 물을 나누어쓰자고 약조를 하고 온 마을이 떨쳐나 공사를 한것이였다. 그런데 몇해전부터 지주놈은 소작지를 주었다뻔었다 하는것으로써 자기가 저수지의 주인인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가물이 몇해째 계속되는 지금에는 누구도 얼씬 못하게 하였던것이다. 누구든 물과 관련해서 지주의 눈밖에 나는 날이면 땅이 무사치 못하였다.

하물며 지주의 승인이 없이 물을 썼고 더구나 물을 썼다고 행패질하는 지주에게 대들기까지 한 아버지는 그날로 땅을 떼웠고 온 가족은 한지로 나앉고말았다.

하여 고향땅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던 아버지는 정처없이 땅이 없는 고향을 떠나 류량의 길에 올랐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한가위가 되자 아버지는 허위단심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고향에 왔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산소는 파헤쳐지고 유골은 형체도 없었다.

마을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주놈이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안오자 명산에다 송장을 묻었기때문에 하늘이 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뒤산의 묘를 모두 파버렸다는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아버지만 겪은 일도 아니며 우리 고향에서만 생긴 이야기도 아니다. 해방전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은 어디나 매일반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땅과 함께 물을 마음껏 쓰면서 농사를 지어봤으면 하는것이 우리 농민들의 숙망으로 되었는데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개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다. 다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는 크고작은 저수지만 하여도 수천개에 달하며 저 북쪽의 두만강관개로부터 금야관개, 평남관개, 분계연선의 연백관개를 비롯해서 기본 관개수로의 총 길이는 십만여리를 헤아린다.

거기에 분수식 발판개를 위해 늘인 관의 길이까지 합한다면 그 천문학적 수자를 어떻게 다 부를수 있으랴.

지구 세바퀴를 돌고도 남을 분수식 물줄기가 혈관처럼 뻗어갔다니 이 말을 듣고 어찌 놀라지 않으며 자연의 구속에서까지도 인간을 완전히 해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에 탄복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것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나

라에서만 볼수 있는 현실이다.

무슨 일을 해도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인민들에게 리롭다면 바다도 막고 인민들에게 해롭다면 산도 떠옮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황금으로 제방을 쌓더라도, 대포로 참새를 쏘는 격이지만 물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우리 수령님의 철리에 따라 수천년 내리기만 하던 물이 꺼꾸로 사품쳐오르는 시대, 땅속의 지하수가 쿵쿵 소리치며 솟구쳐오르고 하늘에선 젖비가 내리는 우리 나라!

언제인가 어느 한 시인은 분수식 발판개를 보고 《약비》가 내린다고 표현하였다.

물론 형상적인 단어이지만 나는 여기에 불만족이다.

강냉이밭에 분수식 발판개가 됨으로써 농사가 잘 되리라는것은 한치의 드림도 없이 너무나 확정적이기때문이다. 그렇다. 《풍년비》가 내린다. 우리 나라 어딜 가나 《풍년비》가 내리고있다.

나는 농업과학자도 아니며 봄철에 개구리울음소리만 듣고도 한해 농사가 잘되고 안됨을 알아맞춘다는 실농군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저 청개구리울음소리를 들으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명백히 말하고싶다.

만풍년의 비결을 알고싶거든 여기 조선으로 오시라고...

정녕 우리 나라는 세세년년 흉년을 모르는 풍년의 나라이라고.

그 마음과 속삭였네!

차영택

그리웠네!

여기서 충충 고층건물 쌓아가면서

추녀낮은 고향집어머니

떠나올 때 배낭끈 정히 조여주던

그 모습이 그리웠네

그리웠네!

바람결에 저 멀리 어데선가

기적소리 들려와도

뒤울안 배나무잎 소리조차 그리웠네

허나 휴가받고 찾아간 고향집

기다려준 어머니 그 손길

변함없이 파스했어도

어찌하여

창밖에 바람불면 건설장의 세멘트 생각-

눈이 오면 갓 미장한 벽체 생각-

깊은 잠 못들었던가

내 휴가 마치고 돌아온 날

천막 밖에선 눈보라 기승을 부려도

곤히 잠든 동무들곁에서

편히 잠들며 생각했다네

(어찌하여

고향집 아래목에선 잠들지 못하던 마음

여기에선 편히 잠이 올가...)

아-그만에 웃으며

마음과 속삭였네

내 이전 고향집 어머니 사랑을 받기보다

어머니조국에 사랑을 바쳐간다고...

지향

김근엽

때 현대
 곳 어느 철광산
 사람들
 전금 광산실험실 실장
 홍석 과학원 실장
 소영 전금의 딸, 대학생
 김문 광산 기사장
 남룡 광산선광공

무대

채석장들이 바라보이는 광산지구. 좌측 좀 둔덕
 진곳에 단층으로 된 기사장방이 자리잡고있다.
 우측 경사지를 따라 길이 나있고 길옆엔 백일
 홍이 활짝 피여있다.
 그뒤로 멀리 보이는 선광장, 전용화물렬차가 움
 직이는 구내 철길, 좀더 우측으로는 고층주택
 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노동자구

다.
 △ 발파소리와 함께 선광장의 기계소음이 은은하
 게 들리다가 멀어지면 전화종소리가 길게 울리
 는 속에 막이 열린다.

△ 김문이 시외전화를 받고있다.

김문 평양! 평양! 과학원이지요? 예 리홍석실장
 동무를 바꿔주십시오, 예? 오늘아침에 출장을
 떠났다고요? 나 이거 참...

△ 전금이가 기술문건을 안고 나와서 문기척소리
 를 낸다. 밖에서 그냥 듣고 섰다.

김문 (수화기에 대고)아, 우리 광산 실험실장 전
 금동무의 기술문건을 올려보낸지 3개월이 되도
 록 기술평정을 내려보내지 않아서 또 독촉을
 하는겁니다. 예, 좀 알아보구 또 얼마나 기다려
 야 하는지 알려주시우, 예, 전 이 광산 기사장
 입니다.

△ 전금이 조용히 들어선다.

△ 김문이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놓으며 투덜댄
 다.

김문 에이... 새 기술을 그렇게 대하다니 ?...

전금 기사장동무! 그 기술문건때문에 너무 애를
 쓰는구만요.

김문 아, 실험실장동무요. 글썽 지금 당에서는
 광물생산을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는데 도
 대체 새 기술 평정하나 제때에 내려와서 안하
 구 뭇들을 하는지 원.

전금 누구하구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

김문 누구겠소. 기술평정을 하게 된 리홍석이네
 부실장이 나왔길래...

전금 홍석동무예요?

김문 예, 그 홍석실장만 있었다면... .

△ 전금이는 홍석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약
 간 놀란 표정이다.

전금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가요?

△ 침묵

△ 이때 전화종소리

△ 김문이 수화기를 든다.

김문 예? 예, 제가 금방 시외전화를 걸었던 광
 산기사장입니다. 예? 홍석실장이 아침에 우리
 광산으로 떠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 기뻐하는 김문과 전금.

김문 (수화기에 대고)글썽 그러면 그럴것지... 알
 려줘서 고맙습니다. (수화기를 놓는다.)전금동
 무! 됐소. 이제 기술평정만 받으면 전금실장동
 무가 25년간 애써온 시약선광법이... 예익! 광
 물생산을 부쩍 올리게 되겠군. (신이 나서 휘파
 람을 분다.)

△ 그것을 보고 전금이도 웃는다.

전금 아니 호호... 기사장동무!

김문 허허... 홍석이가 그러면 그럴테지. 옛 학
 우들의 성과를 물어버릴수야 있나 허허...(또
 휘파람을 분다.)

전금 아니 참... 아직 그 대학시절의 기타수 숨
 씨가 나올것 같은데요. 호호...

김문 대학시절 숨씨? 아니 인젠 안돼, 50줄인데
 뭐.

전금 정말 그 대학시절이 어제만 같은데 다들 5
 0줄을 바라보게 됐어요.

김문 (생각에 잠겨)정말 세월두... 그간 전금동문
 광산에서 25년간 많은 발명을 했구... 지금두
 탐구와 열정은 변함이 없지만...

전금 늙는다는거지요 ?... 하긴 우리 소영이가
 인젠 대학졸업론문을 쓴다구 실습까지 나와있
 지 않아요.

김문 하긴 그 애두 벌써 그렇게 자랐지.

전금 기사장동무! 한통 더 작성해오라고 한 《시
 약선광법》발명문건입니다. (문건을 넘겨준다.)

김문 (받으며) 정말 전금동문 이걸 발명하느라구
 수고가 많았소. 이제 홍석동무가 내려와 기술
 평정을 하느라... 전금동무가 녀성의 몸으로
 25년간 어떻게 고심하여 얻어낸 열매인가를!...
 크게 놀랄거요. 그는 청춘기에 꿈을 안고 이
 광산에 왔다가 가버린 도주자니까 하하...

전금 홍석동무의 지난날 이야기는... 더 상기하지 맙시다.

김문 하긴 그러고보니 내가 옛 학우에 대해 뒤소리를 한것 같구만. 안됐소. 리해해주오. 나두 인젠 기술평정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만 짜증이 난 모양이요. 지친것 같소...(기술문건을 살펴보며)이걸 한통 다시 요구한건 초급당에서 필요하대기에...

전금 초급당에서요?

김문 초급당에서두 이미 당중앙 해당 부서에 기술통보보고를 올렸다고 하오.

전금 아니 이걸 당중앙에까지요?

김문 그렇소. 그 문젠 당에서도 크게 관심하는 기술문제요.

전금 하지만 과학원으로 남룡동무를 보냈는데... 이제 홍석동무와 함께 내려오겠는데 괜히 소문만 크게 내구...

김문 걱정 마오. 초급당에서도 다 생각하는바가 있어서 그랬을거요.

전금 (생각속에 걷는다.)

김문 전금동무가 이번 발명의 성과를 가지구두 또 남룡동무를 내세우려 한다는걸 난 아오.

전금 사실 그 동문 선광공으로서 탐구심이 있구... 그래서 저와 25 년의 세월을 함께 시약적 방법을 찾는데 바쳐왔어요.

김문 그러니 함께 애써준 그 보상때문에 그를 올려보내면서까지 그러오? ...그의 이름을 내주자구?...

전금 이름이야 누가 발표되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빨리 철생산을 높이기만 한다면야...

김문 (뜨겁게 지켜보며) 전금동무! 난 동무앞에 설 때마다 머리가 숙어지오. 동문그간 광산에서 많은 새 기술을 발명했지만 평가는 다 다른 동무가 받게 하지 않았소. 지금 남룡이 하나만 봐두 대학공부두 못한 그 선반공을 인젠 기사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키웠지... 동문 준박사를 받을 때두 어쨌소? 기술발전실장이 행정적으로 보장해준것밖에 없는데 글썽 무엇때문에 논문보고서에 성과의 몫을 그한테까지 넘겨놔서 동문 준박사밖에 못됐나 말이요. 당당한 박사논문들 가지고...

전금 기사장동무두! 박사면 어찌구 준박사면 어떻게 지나간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김문 아니요! 이번만은 양보할수 없소.

전금 기사장동무!

△ 교복차림의 소영이가 《큐리부인》책과 안경을 들고 나와 기사장방문에 손기척을 하려다가 놀란다.

소영 아니, 어머니가 여기에 와 계신걸...(하며 주춤거린다.)

전금 (소리)저는 실험을 하다가 와서...(하며 일어선다.)

소영 (숨을 곳을 찾다가 전금이가 여는 문뒤로 숨는다.)

△ 전금이 문을 닫고 가려는데 소영이가 그의 두 눈을 손으로 감싸친다.

전금 아니 너 소영이 아니냐?

소영 호호... 어머니! 두손 내들어요.

전금 왜-애?...

소영 글썽, 빨리!

전금 (두손을 내든다.)

△ 소영이는 손에다 안경을 놓아주며 웃는다.

전금 (안경을 보고 놀란다.) 아니 안경은 웬거냐?

소영 어머니! 안경도수를 바꿔야겠더군요.

전금 (딸을 정찬 눈길로 지켜본다.) 네가 인젠 어른이 다 됐구나!... 이젠 어디서?...

소영 어머니! 평양에 있는 그 한학급 남동무가...소포를 보내왔어요.

전금 그 동창생?!...

소영 예-에...

전금 너 그 사람을?!...

소영 그런건 묻지 마세요.호호...

△ 전금이도 웃는다.

△ 좁전에 뒤로 나왔던 김문이도 웃고 섰다.

전금 가지 않겠니?...

소영 먼저 가세요.

김문 자 갑시다. (전금에게 손짓한다.)

△ 소영이 김문의 꿈무늬를 잡는다.

김문 (알아채고)그럼 실장동무! 먼저...(하고는 소영이를 데리고 밖으로 들어간다.)

△ 전금이는 언덕길을 넘어나간다.

△ 소영이 걸려있는 기타선을 텅기다가 말한다.

소영 저... 논문제마를 하나 토론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김문 나보다야 어머니가 더 잘 토론해주실텐데?...

소영 어머니 판산에 실습 나왔으니 여기서 제마를 택하라지요 뭐, 전...

김문 그럼 더 요란한데서 찾은게지?

소영 그럼요. 철광문제와는 대비도 안되는...

김문 허?... 첫 논문에서 벌써 준박사나 노벨상 같은걸 건주는게 아니야?

소영 들어보시겠어요? 음... 《바다에서 에네르기 광물채취의 가능성과 그 전망》이예요.

김문 허허... 거 제목만 해두 요란한걸?...산골철광산에 와서 바다의 에네르기광물을 연구한다?...

소영 예?... 아이참, 우리 어머니와 같은 말씀을 하시네?...

김문 같다? 하하... 거 왜 그럴가?...

소영 얼마나 흥분시키는 제마예요?

김문 물론 그건 그래.

소영 그런데 어머니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

요.

김문 왜 그럴까?...

소영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한 학도의 조급성에서 착상된 허황한것이라나요. (손에 들고있던 책을 보인다.) 이건 큐리에 대한 책이에요.

김문 큐리?!...음... 그래서 에네르기광에 매력을 가졌니?... 자신을 그렇게 세계적 과학의 판도에 세우려는 목표야 좋지. 그 지향말이다.

소영 그렇지요! 다 지지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다들 기사장동지처럼 지지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글썄 이 큐리만두 보세요. 소르본느대학을 졸업한후 물리학자 피에르와 결혼하구 방사선을 연구하면서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해서 일찌기 노벨물리학상을 받지 않았나요.

김문 (웃는다.)

소영 (얼결에) 아저씨!- 아?... 실례했어요.

김문 헛허... 실례는 무슨?...

소영 용서하세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는 과학밖에 몰라서... 기사장동지책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자라던 그 아이적 버릇이 아직...

김문 하하...

소영 웃지만 마시구 제 구상을 다 들어줘요.

김문 (그냥 웃는다.)

소영 기사장동지두 20대, 30대 박사, 준박사가 많이 나오길 바라시겠지요?

김문 그야 물론!

소영 이 착상은 저의 과학에로의 행군의 첫 출발점과 같아서 심중한거예요.

김문 심중하구말구. (대견해한다.)

소영 저라구 세계적 발명을 왜 못하졌어요! 전 우리 나라 숨은 과학자들처럼 일생을 과학에 바칠 목표인걸요. 어머니두 제가 큐리같은 그런 세계적인 조선의 녀학자가 되길 바라실게거든요. 호호...말이 별나케 번져가는군요. 호...

김문 (웃는다.) 그건 솔직한 심정이구... 어서 말해라.

소영 전 어떤 발명두 결심먹구 달라붙으면 능히 할수 있다는걸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 느꼈어요. 또 우리 나라에는 과학자 숨은 영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처럼 생활의 지향만 명백하면 그다음은... 당에서 다 밀어주지 않나요.

김문 그런 자세면 돼. 그리구 참 오늘 너의 어머니의 그 새 기술문건에 대한 기술평정을 내려온다.

소영 예? 어마나! 인젠 됐군요. (춤을 추듯 기뻐서) 우리 어머니가 끝내!... 성공의 날이 드디어 왔군요. 아,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아요?

김문 알구말구. 금방 알구 갔다.

소영 야!- 어떤 분이 내려오세요?

김문 어떤 분?(웃다가 생각에 잠기며) 이런고장

엔 한번 내려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지 하하...

소영 (의아해 서있다.) 예-에?...

△ 이때 전화종소리

김문 (수화기를 든다.) 초급당입니까. 예, 발명문건은 곧 가지고 가겠습니다. (수화기를 놓고 기술문건을 안는다.) 내 초급당에 갔다올테니 기다리거라. 우리 좀더 논의해보자. 넌 무엇이든 할수 있다, 있구말구! 하하...(나간다.)

△ 소영이는 힘을 얻고 기뻐하다가 방안에 걸려있는 기타를 조심히 안고 노래 《나는 생각해》를 반주하며 조용히 속삭이듯 노래를 부른다.

△ 이때 자동차소리가 가까와지다가 멎더니 남룡이가 홍석이와 함께 나온다. 홍석이는 광산지구를 바라보고있다.

남룡 실장동지, 저 방입니다.

홍석 (따라선다.)

△ 울려나오는 기타소리에 의아해지는 홍석이.

남룡 기사장동지는 일이 잘 안될 때나 기쁠 땐 저렇게 기타를 타군합니다.

홍석 그래 음... 대학때의 그 기타솜씨가 여전하구만 허...(앞서는 남룡을 잡아세우며)가만...내 좀 놀래워볼까? 이 홍석이가 나타난걸 보면 깜짝 놀라게 하... (문을 벌컥 열며 소리를 지른다.) 이 랑만가! -

△ 소영이 깜짝 놀라서 일어선다.

홍석 (무안해져서) 아?... 이거 실례했소. 난 기사장동무와 친구간이여서...그만...

소영 예?!...(의아해한다.)

△ 남룡이가 들어선다.

소영 남룡아저씨! 언제 오셨어요?

남룡 음 지금 오는 길이다. 기사장동문 어디 갔니?

소영 초급당엘...

남룡 초급당? (나가려다가 소영이를 소개한다.) 저... 우리 실험실장동무의 따님입니다.

홍석 (놀란다.) 어-영?- 전-금-동무의 딸이?... 음...(좀 쑥스럽다)

남룡 어머니의 발명 기술평정을 내려오셨다.

소영 어마나!...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한다.) 저의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세요.

홍석 (얼버무리며) 음... 그야 물론... (남룡에게 다가가) 기사장을 보면 이 홍석이가 왔으니 빨리 오라고 하요.

남룡 알았습니다. (나간다.)

소영 (혼자소리)홍석?...홍석...(기억을 더듬어보려고 애를 쓴다.)홍-석?!...(기뻐하며 홍석에게)제가 가서 어머니를 찾아오겠습니다.

홍석 아니, 처녀동문 일을 보오. 그새 난 지배인동무를 만나보고 오겠소. 아직 인사를 못했소. (나간다.)

△ 소영이도 마당으로 따라나선다.

△ 홍석이 나가자 차소리 멀어진다.
 △ 소영이는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한다.
 소영 (혼자소리) 인젠 어머니가 그렇게 속을 쓰
 신일두 풀리게 됐구나 아!- 어서 알려야지(나
 간다.)
 △ 이때 전금이 마주 나온다.
 전금 소영아!
 소영 어머니! 과학원에서 어머니의 발명을 평정
 하려고 내려왔어요.
 전금 왔니? 그런데 어디를 가셨니?
 소영 지배인방으루... 어머니! 인젠 어머니의 새
 발명이 세상을 들끓다놓겠지요.
 전금 철이 없기두...(웃는다.)
 소영 어머니 축하해요. (손을 잡고 돌아간다.)
 전금 (끌려 돌아가며 웃다가) 이걸 봐라. 숨이
 차구나. 봐라 봐!...호호호...
 소영 어머니가 웃는걸 오랜만에 보네.
 △ 소영이 그만 《큐리부인》책을 펼군다.
 전금 (책을 집어들다가 좀 주춤한다.) 여전히 손
 에서 책은 놓질 않는구나. 좋은 일이다. 요즘에
 나온 우리 나라 새 기술 통보를 많이 봐라.
 과학이 어떤 추세에 올랐나. 그리고 우리 나라
 숨은 영웅들과 과학자들의 수기들두 빼놓지
 말구 다 봐야 한다. 그러면 과학자는 조국과
 시대 앞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더 잘 알고
 실습의 목적두 실천으로 뿔게다.
 소영 어머니 또 제가 논문제마를 택한것과 관련
 시켜 혼시군요.
 전금 년 철광산에 와서 실습을 한다면 생각은
 다른 분야에 가있으니 그게 어디 과학도의 자
 세냐?
 소영 어머니... 더 토론해보지두 았구? ...
 전금 현실성, 실천성을 떠난 창조성은 백해무익
 해. 과학자는 새 기술을 창조하며 시대를 앞으
 로 이끌어가는 개척자야!
 소영 그야 누가 모를가 뭐...
 전금 그런 과학자만이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본분을 다 할수 있다.
 소영 ...
 전금 년 지금 몸은 현지에 와있지만 생각은 판
 데 있어. 발을 못붙이구...
 소영 ? ...
 전금 과학도의 량심과 의리를 잊으면 조급성이
 머리를 쳐든다. 년 지금 하나의 발명과 논문에
 진심을 기울여갈 때 그것이 10년, 20년, 한생
 이 걸려도 후회가 없을 그런 지향으로 살고있
 지 못해.
 △ 소영이 머리를 떨군다.
 전금 알겠니?... 이 땅에 발을 못붙인 사람들의
 조급성이 어떤건가를 말이다.
 소영 어머니! 알겠어요.
 전금 그런 사람들은...당이 맡겨준 초소도 서슴

없이 떠나버릴수 있단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
 고있다.
 △ 소영은 책을 만지작거리고있다가 표제안에서
 《홍석 기증》이라는 글을 보자 머리를 틀며 외
 운다.
 소영 리홍석 기증?!...(전금을 본다.) 아니 이 이
 름이 여기에?!... 어머니?!...
 전금 왜 그러냐?
 소영 어머니! 이 책을 어머니에게 기증한 리홍
 석이 누구예요?
 전금 (당황해한다.) 아니...그건... 왜 ?...
 소영 중학생때는 그저 무관심했던 이름인데 .우
 리 대학의 박사선생님들과 교수들의 집에 갔다
 가 본 책들에서두 이 홍석이라는 이름을 보곤
 했어요.
 전금 (주저하다가) 말을 해주마. 그 사람은 지금
 과학원에서 내려왔다.
 소영 예?!... 그럼 아까 그이가? ... 이...홍석?...
 전금 그 사람은 나하구 대학동창생이다.
 소영 동창생이에요? 그 리홍석실장이요?!...
 전금 ...
 소영 아이, 잘됐네! 그래그래! ... 내 이 정신봐
 요. 난 과학통보서에서두 그 이름을 많이 봤어
 요. 요전엔 《새로운 기계에 의한 새 선풍법》
 이라는 새 기술자료두 읽었는데 바로 그 리홍
 석이란 사람의것이였어요. 리홍석!...
 전금 읽었을게다.
 소영 그런데두 어머니를 돕는 기술평정을 내려
 오셨구만요. (기뻐한다.)
 전금 과학계의 동무들이 얼마나 고맙나.
 소영 그러고보면 우리 어머니는 너무 순박하게
 혼자만 애를 써왔어요. 그런 유력한 동창두 있
 었는데 왜 아직... 난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전금 년 지금 뭘 말하니?
 소영 어머니가 혼자 애쓰며 고생하신걸 생각하
 면 ...어쨌든 과학자야 발명한것이 실현돼야 조
 국과 시대 앞에 떳떳할것 아니예요. 어머니!
 전금 결과만을 먼저 생각하는 과학자는 진심을
 바칠수 없어.
 소영 이제 성공의 마당이니 아무 말을 해두 다
 들겠어요. 그러나 전 아버지가 그 새로운 시약
 선풍법 연구의 시약시험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
 나실 땐 겨우 소년단베타이를 땀기때문에 과학
 자에게 어떤 고충이 놓여있는지조차 몰랐고 결
 과가 어떤 과정속에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오늘까지 25년...나는 너무 늦게 모
 든것을 알게 됐지요.
 전금 그만해라.
 소영 글썽 왜 여직 그 유력한 리홍석이란 사람
 의 도움을 받지 못했냐말이에요. 어머니 참...

전금 (피롭다.) 너는 다 모른다.

소영 예? 어머니! 그건 무슨 소리에요?...

전금 이제는 너도 어머니에 대해서 알 때가 되었구, 네 생활에두 참가가 되겠으니 말해두자.

소영 ?... 저에게 참가가 된다구요?!...

전금 그 동무두 대학을 졸업할 때 포부가 컸다. 그래서 이 광산으로 내가 배치될 때 함께 왔었지.

소영 이 광산으로요?

전금 음, 그때 네... 그... 큐리부인책을 기념으로 주면서 날더러 조선의 큐리와 같은 과학자가 되라고 했다. 우리가 과학을 탐구하는 출발점은 같았지만 큐리를 놓고 서로 견해가 달라지면서 자주 논쟁을 했다. 때로는 어성까지 높이면서...

소영 ?...

전금 난 그때 그들이 발견한 방사선에 대한 연구와 그로부터 얻어낸 물질 폴로늄과 라듐에 대해 찬양을 하곤했다. 그런데 그 동무는 보다도 그것으로부터 과학자에게 차례진 노벨물리학상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갖고 자주 외우더구나. 그리고 내가 그들이 금속라듐의 분리에서 성공한것을 놓고 인류앞에 남긴 업적을 찬양하면 그 동문 보다도 그 발견으로 해서 1911년에 다시 두번째로 받은 노벨화학상만을 극구 외우면서 그로 해서 세계 최초의 첫 라듐연구소까지 생기게 됐다고... 그것으로

과학자가 연구소 소장으로 된것을 부럽게 말하곤 하더구나. 어쩌냐? 두 견해가 비슷한것 같지만 본질상의 요구는 엄격히 다른것이 아니냐. 그 동무는 발명된 물질의 존재와 사회적 복리보다 과학자에게 차례지는 명예문제를 더 앞세우고 있더라말이다.

소영 명예! ... (생각이 깊어진다.)

전금 너 과학자가 개인의 명예부터 앞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당을 기만하고 조국과 인민 앞에 죄악을 범할수도 있다.

소영 어머니! 어쨌든 그 사람은 현재 어머니보다... 실제로 어머니의 발명권 실현문제까지 두... 쥐고있지 않아요...

전금 내 말은 다 끝나지 않았다. 물론 그때 그의 지향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산에 온지 1년도 못돼서 과학원으로 갈것을 고집하더구나. 급하게 논문 하나를 썼는데 실천과는 동떨어진 순수 리론으로 되는 논문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자 광산을 영영 떠나버리고 말더구나.

소영 (생각이 깊어진다.) 어머니! 왜 그때 도와주지 못했어요?

전금 글썄 그때는 도와준다는것이... 물론 나도 마음이 뒤숭숭하지 않은것은 아니였댔다. 남자

들도 왔다가 돌아서는데 너자인 내가... 하고말이다. 그러나 내 생활의 목표, 삶의 지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광산에 다녀가신 때부터 마음속 신념으로 확고해졌어.

소영 어버이수령님께서요?

전금 난 그때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강령적 지침을 받아안을수 있었어.

소영 (더욱더 놀란다.) 어머니-가-요?...

전금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광산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우리 나라 지질조건과 광물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채굴방법과 선광방법을 적극 찾아내고 널리 받아들이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때에야 나는 책상머리에서 리론으로만 느끼던것을 실천과 결부시켜 볼수 있게 됐구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관철하려고 연구사업에 뛰여든 너의 아버지를 알게 됐다. 너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였다...숨이 지는 순간까지 시약병을 놓지 않았지...

소영 어머니! (흐느킨다.) 저는 이렇게 다 크도록 어머님이 애쓰는것만 보았지 가슴속에 안고 사는 그 신념의 넋과도 같은 불덩이는 못봤어요.

전금 소영아!-

소영 어머니!-

△ 이때 승용차소리가 가까와지더니 김문과 홍석이 나온다.

△ 홍석이가 기술문건을 김문이에게 준다.

홍석 이걸 올려보냈던 전금동무의 새 기술문건 일세.

김문 (받으며) 그런데 이걸 왜 도루 주냐?

홍석 우선 받아두라구. 그리고 난 이번기회에 어쨌든 전금동무를 꼭 데리고 가야겠네.

소영 (들다가) 홍석?!...(놀라며 물러선다.)

전금 (역시 놀란다.) 홍-석-동무-가? ...어-째-면?...

△ 전금은 저도 모르게 나무뒤로 물러서서 딸애와 함께 그들을 지켜본다.

김문 홍석이!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만.

홍석 뭘 모르게 있냐?

김문 난, 홍석동무가 내려왔다길래 그 시약선광법을 평정하구 생산에 도입하도록 도와주자고 하는가 했더니? ...모르겠어. 홍석 나두 전금동무의 일을 두고 생각하면 피롭네. 그러나 우리 과학원에 그에게 마찰한 자리가 있을 때 올려놓으면... 인생 말년에라도 난 그를 도와주는 것으로 되지 않겠나...

△ 놀랍기도 하고 피로와서 듣고섰는 모녀.

홍석 김문이! 그래 자넌 그를 그냥 여기에 잡아두는것이 그를 위한 우정이라고 생각하냐?

김문 (대답을 못한다.)

홍석 왜 대답이 없냐?

김문 홍석이! 전금동문 이 새로운 선풍법때문에
25 년을 바쳐왔어. 녀성의 몸으로 그것도 혼자!...

홍석 그걸 알기때문에 나두 그가 이전에 론문을
제출했다가 준박사를 받고만걸 여기 기술발전
실장의 제기대로 재사정도 하고 박사학위도 다
시 받도록 도와주겠다지 않나.

김문 그건 나두 기쁘게 생각하네.

홍석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구 그를 여기에 더
몰어두지 말구 올려보내지 응?

김문 그가 연구사업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을걸
세. 그리구 홍석이 자네두 그의 연구성과가 경
제적 효과성이 어떻다는건 모르지 않겠지?

홍석 (대답이 없다.)

김문 그걸 알면서도 그걸 내세울 생각을 앓는다
면... 이진 나라앞에 죄악이야.

홍석 그러게 누가 그걸 아예 물어버리겠나?

김문 그야 과학자의 명예까지 묻는게지.

홍석 아니 그걸 그저 물어버리나? 대신 이전 준
박사론문을 재사정하구 박사학위가 차레지도록
돌렸다는데... 이것이면 과학자로서야 최고명
예지.

김문 명예라... 그렇다면 내 한가지 묻겠네. 혹시
전금동무의 시약선풍법이 제기되면 자네의 그
기계선풍법이 실용성을 잃게 되기때문은 아닌
가?

홍석 (좀 당황한다.) 무슨 소리를 하나?... 내 론
문은 보았나?

김문 기술통보서에 뒀든군.

홍석 (더 말을 못한다.)

김문 내 물음에 어서 대답하게.

홍석 뭘 말인가?

김문 만일 전금동무의 론문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네의것이 0 으로 될가봐 그러는건 아닌가? 내
말이 지나친 억측이거든 용서하게만...

홍석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인간인 이상 자기의것을 옹호하
고싶은 생각은 없지 않네. 리해해주게.

김문 리해?!...

△ 전금 몸의 균형을 잃는다.

△ 소영 전금을 부축한다.

△ 홍석 담배를 찾아 주머니를 뒤진다.

홍석 담배 없나?

김문 난 안피네.

홍석 담배를 차에 두고왔군. (다시 나간다.)

△ 소영이가 김문이에게 달려나온다.

소영 기사장동지! -

김문 음. (피롭다.)

소영 어머니의 25 년이... 그렇게야... 아저씨!

김문 엉? 음...

전금 (듣다 못하여) 소영아! -(나온다. 김문에게)
나에겐 박사학위는 필요없어요. 발명권두...

김문 예?

전금 저의 시약적 선풍법이 기계적 선풍법을 발
명한 홍석동무의 한생의 운명문제를 막는다면
제것을 그 동무에게 넘겨주어도... 발명권이야
누가 갖든 나라의 광물생산만 빨리 높일수 있
다면... 저두 더 바랄것이 없어요.

김문 음?... (피로와한다.)

소영 어머니?! 그건 안돼요.

전금 넌 뭘 안다구? 가만 있거라.

소영 어머니! - 안돼요. 그건 안돼요! ...

전금 물러가라는데!

김문 (문건을 전금에게 준다.) 이 기술문건은 건
사하오.

△ 피롭게 지켜만보고 섰다가 떨리는 손으로 받
고 석상처럼 서있는 전금.

△ 담배를 붙여문 홍석이 나온다.

△ 김문이가 흐느끼는 소영이를 달래며 방으로
들어간다.

△ 홍석이는 전금을 보고 주춤거린다.

△ 전금이는 말없이 걷는데 홍석이가 그에게로
조심히 다가간다.

홍석 전금동무!

전금 (돌아선다.) 먼길에...

홍석 그동안 혼자서 큰일을 제끼느라구 고생이
많았더구만.

전금 뭘요. 온 광산이 다 달라붙어서 한걸요. 제
가 한게 있다면...

홍석 허허... 전금동문 여전하군... 그래 어떻게
지내오?

전금 동지들이 다 돌봐줘서 걱정없이 지내지요.

홍석 허허... 말을 할 재미가 없군.

전금 저야 원래 그런걸요...우리 광산엔 발길을
영 안하시려나 했겠지요.

홍석 광산에 내려올 면목두 없구... 더구나 전금
동무는 녀성의 몸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난
홀렁 떠나버려서... 난 동무의 과학탐구의 출
발점에 아픈 상처를...상처를 남긴 사람ियो.

전금 상처야 이미 아문지가 오랬는걸요. 그러나
출발점에서 마음에 다졌던 지향만은... 끝내
간직했지요.

홍석 (말문이 막힌다.) 음... 그러니 난 신념두...
없는 사람이라는건데... 하긴 량심에 찢리는 때
두 있었소. 오늘까지도... 하지만 그런 과거사
에 대해선 더 론하지 맙시다. 피차 가슴만 아
프게 할텐데...

△ 침묵

홍석 (다시 시작한다.) 이번에 내려온건...

전금 알고있어요.

홍석 음?... 그래...

△ 사이

홍석 전금동문 과학자로서 마감을 잘하고있소.

전금 지난해 과학통보사에서 보니 홍석동무두...

홍석 읽었소? 고맙소. 이제 최종비준이 끝나면
광산들에서 그 기계에 의한 새 선팡장 건설에
착수하게 되오.

전금 그럼… 그것때문에…저를 소환하시렵니까
?

홍석 (체면도 잃고 비열해진다.) 실은…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걸… 왔소.

전금 인생의 마지막 장식때문예요?…

홍석 전금동무!… 사실이… 그렇소…동무야…
해놓은 일만도 많지 않소.

전금 (홍분을 참다가) 비열해요… 아직도 동문?
아, -…

홍석 전금동무!… 날 이해해주오. 그렇게 해-주
-리-라고 믿소.

전금 나라의 과학!… 나라의 존망보다도 자신의
명예, 그것때문에…(더없이 피롭다) 물론…전
제 이름따위는 물어버릴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새 기술 도입문제만은… 그것만은 물어버릴수
없어요.

홍석 아니, 전금동무?…

전금 우리 과학자들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
구 서로 협조할 생각보다도 네것이 성사되면
내것이 망한다는 그런 리기심부터 앞세우면서
나라에 주게 되는 경제적 효과성은 안중에 없
고…이러기들을 한다면 우리 과학을 언제야 당
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울수 있겠어요?

홍석 전금동무?… 뭔가 오해하고있는게 아니요?

전금 오해요?…(결심하고 기술문건을 꺼낸다) 실
장동무! 이 기술문건에는 오늘을 보지 못하고
시약적 시험의 나날에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한 혁명동지의 고귀한 피와 광산로동계급들의
노력의 땀이 숨배었어오. 그래서 이것은 그 어
느 한 과학자의 명예때문에 물어버릴수 없어요.
저는 제 이름때문에 과학에 한몸바친것도 아
니예요. 다만 새 기술이 나라의 철생산 발전에
빨리 기여할것만을 바라는것만큼 동무에게 기
술문건을 그대로 넘겨주겠어요. 동무에게! 생산
에 도입만 해주세요. 여기에

서 김전금이라는 제 이름 석자는 물어두 돼요.
이 세상에 없다고 보고…

홍석 전금동무!…이러지 마오. 동무가 이렇게까
지 나을줄은 정말?!… (반지 못하고 고민한다.)

△ 기술문건을 그의 곁에 놓아주고 돌아서는 전
금이 비칠거린다.

△ 소영이 그것을 보고 흐느끼며 주저앉는다.

소영 흐-옥… 어머니… 25 년 세월이나 바쳐온
저것을? … 안돼요. 안돼 아저씨! - (김문의의
품에 안기며 흐느낀다.)

△ 홍석이 석상처럼 서있고 전금이는 조용히 어
깨를 떠다.

△ 그를 지켜보는 홍석이도 량심이, 동정이, 지난
날의 배반의 죄의식이 괴롭히는지 전금에게

다가간다.

홍석 전금동무!… 피로워마오. 동문 오늘까지 철
생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소. 많은 일을
한 땀땀한 과학자가 아니오.

△ 전금은 대답이 없다.

△ 사이

△ 전화종소리

△ 김문이 수화기를 든다.

김문 예, 광산 기사장입니다. 과학원 홍석실장동
무가 여기에 와있습니다. 음… 뭐라고요?… 예?
홍석실장동무의 기계적인 선팡법의 생산도입
문제의 최종토론 문제때문에 당중앙위원회 해
당 부서에서 급히 올라오란대구요?… 알-겠-습
-니다. (수화기를 놓는다.)

소영 기사장동지?…

김문 (혼자소리로) 홍석이! 너는 그런 사람이였
구나… 그래서 그 문건을…그렇게두 기술평정
을 하기 꺼려했구 미루었겠구나…

△ 소영이는 창문모서리를 붙잡으며 흐느낀다.

김문 (밖으로 달려나간다.) 홍석이! -

홍석 (머리를 든다.)

김문 자네의 기계에 의한 선팡법문제의 최종토
의 때문에 우에서 찾네.

홍석 (밝아진다.) 그래?!… (전금을 본다.) 전금
동무! 고집을 부리지 말구 충고를 받아주기 바
라오. 우리들의 년령기로서는 이런 기회가 언
제나 있는건 아니오.

전금 (더욱 실망한다.)

홍석 전금동무야 오늘까지 조국앞에 해놓은 일
만으로도 과학자의 한생존화야…

김문 (참지 못하고) 홍석이?!

홍석 음?… 아니 왜 이러나 김문이?!

김문 자네두 인간인가?

홍석 아니?… 김문이?!…

김문 어찌면 자네는?…

홍석 아니 내가 어쨌다는건가?

김문 량심이 없네.

홍석 량심이라니?…

김문 도대체 동무에게 심장이 있는가? 오늘은
자신을 속여 승리자인것 같을테지만 과학은 그
것을 판결할거네. 명예가 뭐길래 동지의 의리
두 팔구…도와는 못줄마정 남의 성과를 그렇게
문어버리려 할수 있나? 음?

전금 그만하세요.

김문 아,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
리지 않는 인간,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동
지도, 친구도 서슴없이 디디고 올라서려는 속
물!… 그래 동무에게는 녀성의 몸으로 25년을
탐구와 고심끝에 얻어낸 열매를 어서 당과 혁
명에 바쳐지기만을 바라고 제 이름마저 고스란
히 묻으려는 저 숨은 마음, 저 순결함이 보이
지 않는가?

△ 무거운 침묵.

김문 생활은 한명의 과학자, 기술자가 공명을 추구하면서 현실을 기만하면...그때는 쉽게 달성할수 있었던 성과도 후대에 가서는 몇갑절의 노력을 기울여서야 회복할수 있게 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서는 잃는것이 많아지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권위마저 손상당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지고있지 않나.

전금 기사장동무! 그만... 하세요.

김문 (양보하지 않는다) 원래 량심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창조적 열정도 기대할수 없네. 량심이 깨끗한 과학자, 기술자만이 진리앞에서 지조가 강하고 필요하다면 목숨도 바칠수 있는것이며 다른 사람의 영예가 결코 자기의 영예를 침해한다고 생각지 않는것이네. 이런 고상한 도덕관을 지닌것으로 하여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높이 보이고 참된 존재로 되는것이 아닌가. 전금동무는 탐구의 나날에 비애와 고통과 피로가 겹쳐들어도 선택한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줄 몰랐네. 동무는 물러갔지만!...

△ 더욱 무거운 침묵

김문 그래 어떻게 할셈인가?

홍석 (응대없이 움직이지 않고 섰다)

김문 대답하라구!

△ 홍석이는 그냥 섰다가 비칠거리며 말없이 돌아선다.

김문 홍석이?!-

홍석 (역시 대답없이 선다.)

△ 더 무거운 침묵속에 소영이의 흐느낌소리만 들려온다. 그는 끝내 전금이의 품에 안긴다.

소영 어머니!- 흐-음...

전금 소영아!- (어깨만 들먹거리다가 훌쩍진 기술문건들을 모아들고 홍석이에게로 가지고 가서 내민다) 자, 필요되겠는지...참고하세요.

소영 (흐느낌소리 더욱 높다.)

△ 이때 남룡이 뛰어들다. 몹시 흥분하였다.

남룡 실험실장동지! -

전금 (돌아본다.)

남룡 초급당에서 기사장동지와 함께 빨리 오시랍니다,

전금 남룡동무, 왜 그래요?

남룡 초급당에서 전금실장동지의 연구성과를 상급당에 보고했는데 그것이 당중앙에까지 반영되었다는것 같습니다.

전금 뭐라구요?

소영 예?

김문 그래서?

남룡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몹시 기뻐하시며 전금실장동지를 만나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금 아니, 지도자동지께서요?!

홍석 (크게 놀란다.)

소영 어머니! (달려가 안긴다.)

△ 전금 말을 못하고 흐느킨다.

김문 실장동무! 어서 올라가 보고를 드려야지요.

전금 아, 지도자동지! 흐-음...

△ 홍석이 머리를 떨군다.

움직일줄 모르는 홍석이.

△ 흐느껴 우는 전금이.

△ 그의 품에서 흐느끼는 소영이.

△ 여기에 노래가 울려온다.

△ 홍석이 무거운 마음 안고 걷는다.

탐구의 나날엔 시련이 많아도

언제나 보살피네 고마운 당

아, 한생을 바쳐 받드는 마음

오직 한마음 당의 뜻 따르네

김문 (전금이에게) 실장동무! 어서...

전금 (움직이지 못하고 어깨만 댄다)

소영 어머니! 어서요.

전금 오-냐...

△ 김문이 석상처럼 서있는 홍석이에게로 다가서며 말한다.

김문 홍석이!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삶의 방식을 멀리서 보려 하지 말구... 전금실장동무처럼 오직 당의 뜻을 변심없이 따르는 그런 지향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구. 그 누가 몰라도 알려지지 않는곳에서도 빛나는 량심만이 조국에 부를 더해줄수 있고 조국을 빛내갈수 있네.

홍석 용서하게 용서를...

김문 물론 나도 그런 높이에서 살아오지는 못했네. 그러나 나는 오늘 누가 인생을 얼마나 보람있게 보냈는가 하는것은 오직 사람이 자기생에서 쌓아올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창조적 열매의 무게로써만 잴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네 홍석이! 우리야 지성인들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똑똑히 살라구.

△ 김문, 전금, 남룡이들이 언덕길을 넘어간다.

△ 소영이도 섰다가 나가려는데 홍석이 부른다.

홍석 소영아! -

△ 소영이 멈춰선다.

홍석 소영아! 과학자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결속 못지 않게 출발점 역시 더없이 중요하다. 자기를 내세울줄 모르는 너의 어머니의 그 웅심깊은 숨은 마음이 딸의 가슴속에도 깊이 뿌리내렸으리라고 믿는다. 난 오늘 다시 그런 인생의 첫 출발점에서 새 마음을 안고 간다.

소영 (머리를 소곳이 한채 서있다.)

홍석 (소영이의 손에 들린 《큐리부인》책을 보더니 들고 본다.)이건?...

소영 (머리를 떨군다.)

홍석 《큐리부인》! ... 이런 책두 다 봐야지...

음...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너의 어머니와 같이 신념과 생활지향이 확고한 숨은 과학자들을 소개한 자랑스런 책들이 얼마든지 있다.
 소영 (홍석을 지켜본다.)
 △ 《큐리부인》책을 소영이에게 넘겨주던 홍석이 둔덕길을 넘어서려다가 무엇이 또 걸리는지 광산을 지켜보며 무겁게 되새긴다.
 홍석 아, 당의 뜻으로 삶을 꽃피워야 하는 우리

의 인생지향은 어찌해야 하는가... 그 출발과 마감은 전금동무가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 홍석이 둔덕길을 넘어선다.
 △ 승용차의 시동소리.
 소영 (자랑에 넘쳐) 아, 어머니!-
 △ 소영이 기쁨에 넘쳐 자랑에 넘쳐서 둔덕길을 넘어서는데 그의 마음인듯 온 광산지구엔 노을이 붉게 탄다.
 △ 서서히 막이 내린다.

탐사의 길

남련희

흘러간 중학시절 나날과 함께
 수업은 교정에서 이미 끝났어도
 풀물 오른 목직한 배낭을 멜 때면
 가슴이 울렁인다
 탐사대학의 수업을 받으러 가는듯

글줄에서 외워보며
 맑고 푸른 하늘밑에 그려보던
 내 나라 그 모든 산과 강이
 탐구의 새 교과서 되어
 눈앞에 펼쳐지거니

숲의 설레임소리, 산새소리
 바람결에 풍기는 꽃향기
 지상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나를 유혹하건만
 내 넘고 건너온 산과 강 그 얼마던가
 신비로운 지하의 그 비밀을
 조국이 주는 숙제의 답인양 찾아내며

길없는 숲속과 물속만이라
 깊은 골짜기와 칼벼랑만이라
 비에 젖은 옷을 입은채 말리우며
 탐사의 마치소리 올리며
 조국의 지맥을 짚어가는 나의 자욱자욱이여

아, 하늘의 별을 따온들
 그리도 내 기뻐오라
 한덩이 새 광물을 찾아낸 그 감격
 피어나는 환희의 노을에 담아
 어머니조국의 하늘가에 얹어보면
 그 산정은 어디

누기찬 풀잎을 깔고
 밤의 덤불속에 누워 돌이켜보면
 지나온 나의 발자욱우에
 높이 솟은 시추탑의 불빛은
 내 가슴에 보람과 긍지를 채워주누나

기쁨도 어려운 사연도 많은 나날
 나의 발걸음은 천만산발도 학교운동장처럼
 빈 자리 하나 없이 다 밟아보고
 나의 눈은 수천척 땅속
 새 광맥을 들여다보았나니

멀고도 험난한 탐사의 길이어
 너는 이 평범하고 애젊은 탐사대원에게
 광산개발의 발파소리 드높이
 새 생활을 펼치는 창조자의 영예
 오늘에 벌써 다 안겨주는
 성스러운 투쟁의 대학이여라

구성의 견지에서 본 작가의 개성

백영철

소설작품의 구성은 작가의 개성이 높이 발양되는 예술적 공간이다. 다시말하여 구성은 한 작품을 다른 작품과 구별짓게 하는 형식일뿐아니라 작가의 창작적 개성이 구현되는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소설작품에 심어놓은 좋은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워 의의깊은 사상을 강조하려는 소설가의 사상미학적 의도는 구성을 합리적으로 특색있게 조직할줄 아는 세련된 예술적 기교가 없이는 원만히 실현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았다고 하여도 그에 알맞는 구성을 세우지 못하면 작품의 사상을 명백하게 드러낼수 없다. 구성은 극에 설정되는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뚜렷하게 살리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기본형식이기때문에 작가는 구성을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낼수 없다.》

구성은 현실에 있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꾸미는 독특한 형식일뿐아니라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요소들을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형식이다.

구성형식은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소설의 기본묘사대상으로서의 인간과 그들의 생활은 실로 다양하고 풍부하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따라서 그것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소설작품의 내용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작품의 내용의 다양성과 풍부성은 불가피적으로 그 예술적 반영 형식으로서의 구성의 다양성과 비반복성을 필수적 요구로 제기하며 따라서 작가가 몇개의 구성적 틀을 가지고 생활을 창조한다면 류사성과 도식에서 벗어날수 없다.

소설의 구성은 이처럼 내용에 의하여 제약되면서도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그에 반작용을 한다.

작품의 종자가 제아무리 좋고 축적된 생활 자료들과 세부들이 제아무리 생동하고 풍부하며 훌륭한것이라 할지라도 구성이 짝이지 못하고 류형적이며 도식적일 때에는 형상이 자기의 독특한 맛과 체취를 풍길수 없다.

구성이 노는 이러한 역할은 그에 따라 작품의

양상이 달라진다는것을 말해준다.

작품의 구성은 또한 작가의 창작적 개성에 따라 그 특색이 좌우되기도 한다. 다시말하여 구성은 작가에 따라 제나름으로 고유한 특색을 나타낸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작가에 따라 그 형식을 여러가지로 할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은 한 작품을 다른 작품과 구별짓게 하는 기본형식일뿐아니라 작가의 창작적 개성이 구현되는 예술적 공간이라고 말할수 있다.

구성조직에서 작가의 개성이 훌륭히 구현되자면 소설가들이 기존구성형식을 자기류로 옹계 활용하고 그것을 시대적 요구와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학과 예술에는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몇개의 구성형식들이 있다. 그가운데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있는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발전하며 절정에 이르렀다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이야기줄거리를 순차적으로 엮어나가는 순차적 구성형식과 현재와 과거의 생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회상식 구성법이 있는가 하면 생활반영의 형식과 범위의 다양성에 따르는 여러가지 구성형식들인 대비적 구성형식, 년대기적 구성형식과 병렬적 구성형식 등이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기존구성형식들가운데서 생활의 요구와 시대의 미감에 맞는 구성형식들을 옹계 살려쓰면서 합리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 자기들의 개성을 주장하고 살려나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작가들가운데는 기존구성형식을 생활의 요구와 시대적 미감에 맞게 살려냄으로써 자기의 개성적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오랜 력사적 시기를 걸쳐 공고화된 구성형식을 숨쉴있게 살려쓰고있는 작가로서는 석운기를 들수 있다.

석운기는 무엇보다먼저 소설의 기본줄거리의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놓이도록 하면서 대비의 수법을 능란하게 활용하고있는 작가라고 말할수 있다.

이 작가의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의 구성형식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행군로정의 순차성에 따라 이야기의 기본줄거리를 순차적으로 엮

어나가면서 대조의 수법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주제적 내용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작가는 소설의 환경전개부분에서 남패자회의를 앞두고 남패자밀림으로 오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모습과 남패자를 포위하고 박종학을 통하여 귀순 공작을 시도하는 적들의 음모,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열린 남패자회의 등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보게 되며 적들의 발악적 책동에 대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동방향에 대하여 짐작하게 된다.

작가는 환경전개에 뒤이어 사건발생부분에서 박종학의 처단과 적들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내용을 소설에 담고있다.

사건발전부분에서는 2편에 그려진 간고한 행군과 소금사건, 3편에 주어진 조선인민혁명군의 분산전술과 사령부를 《소멸》했다는 놈들의 허위선전을 극복하는 과정, 야산에서의 숙영과 대도로 행군을 통한 결사전, 4편에서 보게 되는 13도구 전투와 부대의 집결 등을 체계적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작가는 절정부분에서 13도구전투의 대승리로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치는 내용을 보여준 다음 철직당한 하시모도와 놈들의 참패상을 보여주면서 고난의 행군의 승리를 총화하는 북대정자회의와 유격대의 조국진군으로 끝을 맺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석운기는 이야기의 기본줄거리를 환경전개, 사건의 발생, 발전, 절정, 해결의 과정으로 엮어놓으면서 대조의 수법도 숨씨있게 쓰고있다.

대조의 수법은 한 생활현상을 다른 생활현상과 대비하여 생활의 본질을 명백하고 깊이있게 밝혀내는 주도적 수법이다.

모든 생활과 사물현상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조될 때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대조의 수법은 작품에 설정된 갈등을 예리화하고 사건을 첨예화하며 인물들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부각하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적 내용을 깊이있게 뚜렷이 밝혀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석운기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력사가 일찌기 그 류례를 알지 못하는 그 준엄하고도 간고한 고난의 행군이 가지는 불멸의 의의와 그 승리의 요인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기 위하여 고난의 행군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기본으로 형상의 대를 세우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주체형의 인간들의 불패의 위력을 반증하기 위하여 적들의 형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의 해결부에 그려진 철직당한 하시모도와 놈들의 참패상, 일본제국주의가 길러낸 애승

이 청년장교의 참전과 죽음의 과정, 그와 대비하여 고난의 행군의 승리를 총화하는 북대정자회의와 유격대의 조국진군장면에 대한 묘사 등은 그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구성조직에서 나타나는 이 작가의 개성적 특성은 또한 실재했던 방대한 력사적 사실들과 사건, 자료들을 작품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첨예한 극적 갈등속에서 줄기차게 엮어나감으로써 폭이 매우 크고 깊이있는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고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석운기는 생활에 대한 폭넓은 예술적 일반화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자기의 창작적 개성을 뚜렷이 살리고있는 작가로서 알려져있다.

작가는 시대에 대한 폭넓은 예술적 일반화의 독특한 솜씨로 하여 서사시적 화폭창조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작가가 생활을 그만큼 폭넓게 보고있다는것을 의미하며 큰 형식의 작품, 서사시적 화폭창조에서 자기의 독특한 솜씨를 보이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1부)의 구성조직에서 자기의 특기를 보여준 석운기는 그이후에 내놓은 소설들에서도 자기의 고유한 창작적 솜씨를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의 구성을 보기로 하자.

작가는 이 소설에서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의 국제정세와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를 실재한 사실과 자료들에 기초하여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류혈적인 5. 30폭동을 비롯하여 일제놈들의 모략적인 음모책동에 의하여 꾸며진 만보산사건과 만주사변 등 력사적 사변들이 주어졌을뿐아니라 그 당시의 국제적 환경에 대해서도 폭넓게 전개되고있다.

그밖에도 1925년에 가파내각당시에 음흉하게 조작된 파쑈테로단체인 《흑룡강동지회》와 그의 검은 내막, 왜놈군부에서 조작되는 교활한 음모들을 력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사실주의적으로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내륙침략에 광분하던 일제의 침략책동을 날날이 발가놓고있을뿐아니라 시대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고있다.

이 작가가 보여주는 폭넓은 소설적 구성은 자연과 사회, 인간생활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관련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풍부하고 다면적인 지식은 정치적 안목과 함께 생활을 전형화하는데서 필수불가결의 요인으로 된다.

작가 석운기는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 군사와 법률 등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해박하고 풍부한 지식에 기초하여 시대에 대한 폭넓은 예술적 일반화를 실현하고있으며 이것으로 작품의 인식적 내용을 그만큼 풍부히 하고있다.

이리하여 이 작가의 작품에서는 하나의 사실과 현상도 그것이 시대를 일반화하는데만 복종되고 있는것이 아니라 작품의 인식적 내용을 풍부히 하며 형상의 품격을 높여주는데도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석윤기가 이야기줄거리를 순차적으로 엮어나가면서 대조의 수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사상주제적 내용을 깊이있고 뚜렷이 밝히고있을뿐 아니라 실재했던 방대한 역사적 사실들과 사건, 자료들을 작품의 내용으로 끌어들여 당대 사회상과 사회력사적 환경을 폭넓게 묘사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작가들가운데는 석윤기의 경우와는 달리 사건전개와 인물배치에서 순차성에 의거하지 않을뿐 아니라 사건체계의 기초에 성격들의 착잡한 호상관계를 맺어두거나 다양한 생활측면들을 끌어들이기보다는 비교적 단순하며 직선적인 이야기를 끌고있는 작가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생활에 대한 주관적 파악에 기초한 서사적 묘사에 주되는 창작적 관심을 돌리고있는 작가에게서 찾아보게 된다.

변희근 역시 구성조직에서 남다른 기교를 보이고있는 작가의 한사람이다.

이 작가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소설창작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면서 예술적 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는 특성을 보이고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소설의 화폭에 정중히 모시면서 당일군으로서의 신철민의 성격적 높이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수 있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변희근은 로동계급의 형상에 창작을 바치면서 자기의 개성을 발전시켜나가는 작가라고 말할수 있다.

이 작가의 개성은 로동계급의 형상과 잇닿아있으며 그의 작품들에는 로동하는 인간들의 체취가 풍기고있다.

이 작가는 로동계급을 자기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울뿐아니라 그의 운명을 위대한 수령님과 혈연적으로 련결시키는 특징이 있다.

《생명수》의 주인공 대성이의 운명이 바로 그러하다.

봉산벌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성보의 오랜 양수기관리공인 대성의 아버지 박덕삼을 찾으시는것이다.

박덕삼의 영웅적 최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랑하는 전사의 잇을수 없는 모습을 회고하시면서 그의 아들 대성이가 아버지의 뜻을 잇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

어주신다.

그리하여 주인공 박대성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대자연개조의 원대한 구상을 가슴에 받아안고 봉산벌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나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은 어지돈관개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주인공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그의 모든 운명에 뜨겁게 미친다.

어지돈관개공사가 한창 긴장하게 벌어지고있던 때에 또다시 건설공사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대성이와 그의 어머니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신다.

이리하여 대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고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나가는 충성의 대들보로 더욱 믿음직하게 자라나는것이다.

작가는 또한 구성의 짜임새에 남다른 관심을 돌리면서 그 중심선을 격동적으로 돈구어내고있다. 다시말하여 구성조직에서 나타나는 이 작가의 개성적 특성은 문학적 이야기를 변덕스럽게 짜고 비트는 잔재간에 있는것이 아니라 구성을 빈틈없이 조직하고 그 중심선을 격동적으로 돈구어내는데서 나타난다.

작가가 탐구해낸 종자에 기초하여 생활의 논리에 맞게 조직한 구성형식은 그자체가 빈틈없이 짜일것을 요구한다.

구성이 빈틈없이 짜일 때 작가가 탐구해낸 구성 자체도 의의있는것으로 될수 있으며 작품의 종자를 실현하는데 참담게 이바지하는 참신하고 특색있는 예술적 구성으로 될수 있다.

작가들이 구성의 짜임새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구성조직, 인간관계의 설정과 그 해결에서 나타나는 이 작가의 개성적 특성은 로동계급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옹호의 사상감정과 함께 그의 예술적 취미와 기호와도 관련된다.

변희근의 예술적 취미와 기호는 로동계급의 취미와 기호 그대로 명백하고 단순하며 그러면서도 정서있고 무게있는것, 예돌지 않고 직선적인것에 대한 지향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그리하여 이 작가의 작품에는 많은 경우 제기하는 사회적 문제가 보다 통이 크게 되며 그것을 안고있는 인간관계도 빈틈없이 맞물려 명백한것이 특징적이다.

이 작가는 갈등설정에서도 자기의 고유한 창작적 솜씨를 보이고있다.

작품의 사상주제적 과제의 해결에 이바지하는 예술적 갈등은 작가들의 개성에 따라 특색있게 설정되고 해결된다.

우리 창작가들가운데 현실에 존재하는 적대적 모순을 작품의 기본갈등으로 설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용적 모순을 기본갈등으로 설정하는

창작가도 있다. 지어는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도 작품의 구성미를 감명깊게 둔구어내는 작가도 있다.

석윤기가 주로 적대적 모순을 작품의 기본갈등으로 설정한다면 김병훈은 단편소설창작에서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도 작품의 구성미를 특색있게 둔구어낸다. 그런가 하면 변희근은 사회주의 현실내부에 존재하는 상용적 모순을 작품의 기본갈등으로 설정한다.

갈등설정에서 나타나는 변희근의 개성적 특성은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비롯한 일련의 소설작품들을 상기해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작가의 개성은 또한 기존구성형식을 다양하게 살려쓸뿐 아니라 참신하고 특색있는 구성형식을 새롭게 탐구리용하는 과정에도 높이 발양되어야 한다. 시대와 사회의 끊임없는 변화와 사람들의 예술적 사고능력의 발전은 구성형식을 새롭게 탐구할 것을 필수적 요구로 제기한다. 작가는 기존 구성형식이 이미 실천을 통하여 다듬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절대화하지 말고 발전하는 현실생활과 문학예술의 본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구성형식을 찾아내고 완성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 자기의 개성을 주장하고 발전풍부화시켜나가야 한다.

새롭고 특색있는 구성형식의 탐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작품의 구성이 단순히 사건조직으로 될 것이 아니라 감정조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새로운 구성형식은 작가가 의의있는 생활을 찾아서 그의 내용적 요구에 맞게 인물들의 풍부하고 굴곡있는 감정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 때만이 탐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을 섬세하게 펼쳐나가며 그러한 생활이 덧쌓여지는 과정에 그들의 감정이 축적되고 폭발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펼쳐지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시대 인간들의 풍부한 사상정신세계를 여러모로 깊이 있게 펼쳐나가는 예술적 기교 또한 작가들의 개성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난다.

최근 시기 창작된 우수한 소설작품들은 우리 작가들이 새롭고 특색있는 구성조직을 통하여 자기들의 독특한 솜씨, 예술적 취미와 기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김삼복은 새롭고 특색있는 구성조직으로 향토적인 감정정서가 짙게 우러날 수 있도록 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돌리고 있는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작가의 중편소설들인 《세대》와 《향토》의 구성형식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작가는 《세대》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몇 해전에 농촌에 진출한 애젊은 농촌청년이 로세대당원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점차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고향땅을 지켜갈 새 세대의 참된 행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소설의 구성체계는 그야말로 사건이라 할만 한 것도 없고 심각한 갈등관계도 밝혀있지 않으며 다만 전쟁때 입은 부상의 후과때문에 작업반장 일을 그만둔 로세대당원인 최명서아바이와 그의 양아들과의 직접관계가 설정되어있을뿐이다. 여기에는 오로지 그 애젊은 진출자가 열흘동안 풀베기군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러저러한 현상을 보기도 하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며 자기와 함께 진출 나온 동창생 처녀와 은근한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 극히 평범한 생활화폭들이 향토감이 짙고 수수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 청년진출자는 《풀베기반장》으로 변함없는 성실성을 발휘하고 있는 로세대혁명가의 일본새와 자랑찬 지난날의 생활경위에서 그의 높은 정신세계를 감득하게 되며 농촌을 버리고 떠나간 자기의 양아들때문에 웅심깊은 자책을 하는 그의 깨끗한 량심과 양아들을 끝내 돌아오게 하는 크나큰 감화력도 목격하게 된다.

이것은 작가가 골라진 종자의 요구와 생활소재의 특성에 맞게 농촌에 진출한 젊은 세대가 로세대당원의 생활을 거울로 삼아 삶의 참된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을 종래의 사건전개식 구성형식으로써가 아니라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편소설 《세대》가 감정이 예민한 청년진출자 《나》의 감정변화발전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르면서 생활을 진하게 펼쳐보였다면 《향토》는 회상식 구성법으로 준인공의 성격을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다. 두 소설은 이처럼 구성상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향토적인 감정정서가 짙게 우러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점을 보이고 있는바 바로 여기에 이 작가의 개성적 특성의 일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편소설 《향토》는 향토애와 관련된 감정정서가 짙게, 그러면서도 특색있게 우러날 수 있도록 회상의 수법을 새롭게 활용하여 구성미를 둔구어냈다.

작가는 무엇보다 먼저 회상에 들어가기 이전의 생활정황을 감정정서가 짙고도 독특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특색있게 설정하고 있다.

소설에서 작품의 첫머리에 놓이는 생활정황을 어떻게 형상하는가 하는 것은 독자들을 작품세계에 깊이 끌어들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보기드문 뜻밖의 사실이나 심각한 사건으로 생활정황을 펼쳐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런데 작가 김삼복은 사건적인 것보다는 감정정서적인 것을 기본으로 생활정황을 펼쳐보이는

특성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 《향토》에 등장하는 도형이가 처한 생활정황만을 보기로 하자.

수도의 어느 한 연구소에서 일하던 도형은 고향마을의 리당비서 오근풍이가 사경에 처했으니 급히 와달라는 전보를 받는다. 눈내리는 바로 그날 밤 고향으로 향한 열차에 몸을 실은 도형은 자기 한몫을 돌보지 않고 한생을 고향땅에 고스란히 바쳐온 예순나이의 오비서를 두고 근심에 잠기며 그를 회상한다.

독자들은 여기서 오비서에 대한 친숙감과 존경감, 고향에 대한 애착과 애뜻한 정서세계에 잠기면서 그가 어떻게 향토를 위해 일해왔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의문은 향토적인 감정정서와 유기적으로 련관된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사건적인것보다는 감정정서적인것을 기본으로 생활정황을 펼쳐보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작가는 회상내용도 역시 향토적인 감정정서가 짙고도 독특하게 우려낼수 있도록 특색있게 형상하고있다. 이렇다하게 일관된 사건조직이 없는 《향토》에는 감정정서를 돌구는데 이바지하는 생활자료들이 배렬되어있다. 도형의 과거생활과 마찬가지로 오비서의 도움으로 새 생활의 길을 걸을수 있었던 명호와 오비서의 관심속에 고향마을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자라난 영금인들이 돌이켜보는 지난날도 다 그들의 향토적인 애뜻한 추억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생동한 생활자료들이

다.

이밖에도 작가는 1인칭형식의 어느 소설들처럼 《나》를 한명으로 내세우지 않고 여러명으로 내세워 생활을 묘사한 특성을 보이고있다. 작가는 도형이, 명호, 영금이 이 세 인물의 이름으로 《장》 제목을 달고 한 《장》의 생활은 어디까지나 그 인

물의 시점, 《나》의 시점에서 형상함으로써 생활을 자유분방하게 립체적으로 형상하면서도 향토적 정서가 독특한 색채를 띠고 질게 살아나도록 하였다.

이 모든것은 작가가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차넘치는 농촌생활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면서 짙은 향토적인 감정정서가 독특하게 살아날수 있도록 구성조직을 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이것은 동시에 작가들이 사건조직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도 인물들의 극적 체험세계를 섬세한 감정조직으로 개방하기 위한 탐구를 진지하게 한다면 참신하고 특색있는 구성미를 제나름으로 얼마든지 돌구어낼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작가들은 구성조직에서 자기의 개성적 특성을 뚜렷이 살려 소설작품의 형상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미학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 소설문학의 화원을 더욱 다채롭게 꾸려나가야 할것이다.

분계선초소에서

신흥국

여기는 나라의 국적을 밝히며
표말이 서있는 그런곳이 아니다
한 나라의 언어와 풍습이 끝나는곳에
차단봉을 가로지른 그런 초소도 아니다

여기는 찾고 부르는 거래의 부름이
피빛 석양아래 흩어지는곳
이따금 어린 풀벌레소리
숨가쁜 정적을 흔드는 전연초소!

나는 왜 여기에 서있는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에 전호를 두어야 하는가

한강토의 물을 마시고 자랐어도
침략자에 아부하는 매국노가 생겨
이 땅을 물고늘어진 가시철조망을
제 나라 국경처럼 타고왔은 미제가 있어

분렬의 어언 반백년
이 나라가 당하는 고통은 얼마이나
무심한 바위조차 가슴터쳐
돌이 되어 흙이 되어 몸부림친다

그 원한 안고 한평방 수풀속에
우리의 청춘이 흘러가도
위장망 벗지 않은채
철갑모를 눌러쓰고 복수의 날창 버리거니

그렇다! 통일은
우리 바라는 통일은
세대에 넘겨주는 계주봉이 아니다
초소의 교대물림도 아니다

아 통일의 축포소리
병사는 듣고싶다!
허리 끊어진 조국이 아닌 하나의 삼천리조국땅을
병사는 영원토록 지키고싶노라

나는 양덕을 사랑한다

김호진

나도 노래하고싶어

내 타고난 천성이어서
글짓는 재간 정말 없노라
시를 짓는 그 재간은 더더욱 없노라

하지만 요새는
끓어오르는 걱정을 모아
한자두자 글을 쓰노라
시상을 더듬어
심장의 박동을 실어서
한련두련 쓰고 또 쓰노라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하리
군당책임비서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시를 쓰는가고

아마도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리
남은 여생에 있는 힘 다해
그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려 한다고

허나 내 어이
열정에 넘쳐
희열에 넘쳐
때로는
아이들처럼 뛰어다니는지
다는 모르리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짜이 모시고 일할 때에는
부모를 모신 자식의 마음처럼
형님을 둔 동생의 응석처럼
만시름 놓을수 있었다만

군의 호주가 되어
내 양덕에 집을 푼 그날에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노라
크나큰 그 신임과 기대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양덕의 물맛처럼
사람좋은 일군들을 만날줄이야
그처럼 근면하고 마음어진
인민들을 만날줄이야

제 나서자란 고향땅을 사랑하는
인민들의 끝없는 그 자부심
떠나선 못사는 어머니대지에
진정을 쏟는 그 열정을
나는 노래하고싶노라

정녕 눈과 귀가 아닌
심장으로 보고 듣고 느낀것
티없이 맑고 깨끗한
황금산의 노래를
나는 한자두자 쓰고 또 쓰노라

어버이수령님께서
별방부럽지 않게 잘살 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현실로 펼쳐놓은 양덕을
나는 노래하고싶어라

산은 산마다 황금으로 주렁지우고
포전은 포전마다 은하리로 꽃피우며
양덕사람들이 이 땅에 쓴 시를
타끓는 심장의 펜을 들어
나는 이 종이우에 읊기노라

나의 설계

나는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말수더구 치마폭같은
아낙네들의 지청구에서
그 무엇을 찾아낸다

거기엔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단도리가 있어

그것은 곧
군의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작전해야 할
중요한 결심의 한고리

나는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귀에 대고 그 몇번을 말해야
겨우 알아듣는
그런 늙은이들의 조언에서도
그 무엇을 찾아낸다

때로는 길가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사람들과 마주앉아 진정을 터놓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묻는다
래일의 양덕을 두고...

해야 할 일 많고많아

열어젖힌 창문가로
싱그러운 바람결이 날아들 때면
범석 떠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를 부르며 놀래운다

그러면 일보러 들어왔던
군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위원장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
《해수욕장에서 애들이
살력을 만났다고 저 야단이 아닙니까》

아 참 그렇지
살림살이는 늘어나도
욕심은 끝이 없어
해놓은 일은 감감
해야 할 일만 마음을 재촉하니

이번에는 들었다놓는
처녀 총각들의 웃음소리
웬일이냐고 물으니
쁘트장에 배놀이가 신바람 났다누나

그래그래
도시의 아이들이나
산골의 아이들이나

마음은 매한가지
바라는것도 매일반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이제 뽕개천 기슭따라
유보도도 펼쳐주고
가로등도 세워줄테니
아예 이고장에서 떠날 생각
하지들랑 말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감사를 주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약차공장도
중소형 발전소들도
새형의 문화주택들도
모두 너희들을 위해 일떠세운것 아니냐

해야 할 일 많고많아
언제나 만족을 모르는 이내 마음
해야 할 일 많고많아
언제나 젊은이들에게 기대를 두는
이내 마음

아 언제면
그 언제면 다 할수 있을까
해야 할 일 아직도 많고 많아라

사색가

불밝은 행복의 창가마다
별들이 속삭이며 내리는
풍요한 가을 산촌의 밤

거리에 늘어선 돌배나무 가로수
아지마다 무르익은 돌배
그 향기 함뿍 실은 소슬바람
열오른 내 이마를 식혀주며
조용히 묻누나

-너는 또 그 무엇을
사색하고있느냐

나는 사색을 즐기노라
길을 걸어도
잠을 잘 때에도
버릇처럼 사색속에 잠기노라

사색은 그 누구에게나 소중한것
사색이 없이야
삶이 그 무엇이라
당일군에게는 더더욱 그러 한것

어디선가 들려오는
손풍금소리에 어우러진
행복의 노래소리에 실려
내 사색의 노를 저어간다

저기 저 골짜기마다
수력의타빈은 돌고돌아
그 어디 가나 집집마다

전기난방화의 혜택이 차례지리라

이해부터는
골마다 산마다 조성한 잣나무숲에
아지마다 황금열매 주렁지고
사슴떼는 더 늘어나
양떼처럼 흘러가리라

석탄도 세멘트도
자급자족할수 있는 군이 되었으니
농장마다 문화주택을 더 짓고
읍에는 도시 부럽지 않은
극장과 경기장도 번듯이 들어앉히리라

종구나
오곡백과 무르익어 풍겨오는 낱알향기
저기 저 비탈쪽에선
바람결에 실려오는 구수한 잎담배향기
또 새로운 사색의 나래를 펼쳐주누나

저 온천골엔 닭공장을 건설하고
도자기공장도 새로 지어야지
저 들메봉우엔 정각과 그네터
멋진 공원도 하나 더 꾸려주어야지

아 사색속에 깊어가는
풍요한 산촌의 밤이여
행복한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을 약속하는 즐거운 밤
미래가 밝아오는 밤이여

응석받이

어머니는 모두 들어주시였습시다
철없는 자식의 무릅없는 청을
때없이 내미는 두손에
이 세상 그 모든것을
어머니는 아낌없이 들려주시였습시다

슬하에서 사랑으로 키운 자식에게

군의 살림살이를 맡겨 멀리 떠나보내시고
눈비내려도 찬바람이 불어도
단 한순간도 마음 못놓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신 나의 어머니

그래서는 안된다고 타일러주신 일까지도
스스럼없이 말씀올리는

도리를 벗어난 행동까지도
꾸짖어 아픈 매를 들대신
자식의 응석으로 받아주신 어머니

어머니를 모시는 자식으로
하나라도 보탬을 줄대신
민망스레 내미는 손에 어머니가 쥐여주신것은
황금산을 가꾸는 묘술의 열쇠였습니다
제발로 걸어가는 지혜와 슬기였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못내 그리워 달려가 안기는
어머니 그 품에 안겨 내가 자라고
귀전에 쟁쟁한 그 가르치심 받들어
오늘의 양덕이 꽃했습니다

응석받이 이 자식이
따르는 어머니 한분입니다
이 자식의 머리에 백발이 흠날려도
내 언제나 보답의 응석받이로 살아
어머니를 길이 모셔갈 효성의 한마음뿐입니다

어머니당이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양덕의 이 응석받이
이제 가슴속에 안고사는 단 한가지 간절한 청은

무엇인가 더 달라고
때없이 내밀던 이 두손에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꽃핀 이 양덕땅을
소중히 떠받들어 올리고싶은
오직 한가지 소원뿐입니다

내가 제일 기쁜 때

내가 제일 기쁜 때는
버릇처럼 굳어진 아침산책의 길에
열어젖힌 집집의 부엌마다에서
흰쌀밥 찾는 구수한 냄새
군침도는 고기국냄새에 실려 풍겨올 때

내가 제일 기쁜 때는
하루해가 모자라는 아쉬운 저녁
쌍쌍이 젊은이들 무도회장에서
늙은이들을 반겨 맞아들일 때
새로 지은 회관에서 어서 오라 날 부를 때

내가 제일 기쁠 때는
락동강전투참가자며
모범교육자세대들이
새집들이 흥성이는 경사에
하루일의 피로가 공지로 풀릴 때

내가 제일 기쁠 때는
산중턱을 밀어내고 새로 선 마을에
양지마을, 은덕마을... 새 지명을 새길 때

황금산에서 파낸 행복의 열매가
꼬리긴 렬차에 실려 동서남북으로 떠날 때

내가 제일 기쁜 때는
팔소매를 부르건고
새 일판을 벌려나갈 때
로동자들과 더 좋은 래일을 약속하며
내 마음속에 먼저 양덕의 미래를 안아보는 때

아 내가 제일 기쁜 때는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 일을 해놓고
마음속에 지척인 평양하늘 우러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기쁨의 미소를 그려보는 때

이런 때면 아 이런 날이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강녕이오사리모자를
벗어들고
내 입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말 외우노라
친근하고 근면한 양덕사람들에게

나는 양덕을 사랑한다

1

내가 왜 양덕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산 좋고 물이 좋아서만 아니여라
더우기 이고장에 태를 묻은것도 아니여라

말해다오
긴긴 세월
이 땅을 굽이쳐흐른 대동강 물결아
5천년 력사국과 더불어
거연히 솟아있는
양덕의 메부리 치마대여

아!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저 수려한 산천초목의 설레임소리에 실려
그때의 환호성 들려오는듯

백두의 령장
전설적 영웅이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
달리던 차를 멈춰세우시고
마중나온 이고장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시던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이여

그때부터였어라
위대한 태양
향도의 별이 뿌려주는 재생의 채광이
첩첩이 드리운 산정의 암운을 걷어내고
양덕의 새 력사를 펼쳐주었거늘

그때부터였어라
인자하신 백두의 너전사
친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땅에 행복의 화원을 펼쳐주셨거늘

말도 쉬여넘는다는 마식령
호랑이도 넘기 힘겨워
한숨 쉬었다는 아호비령아
너도 알리라

어느 나라 어느 력사에
한 나라의 위대한 수령이
이름없는 화전민을 찾아
길도 없는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험한 령을 넘은적 있었더냐
초라한 귀틀집 멍석우에서
끄스름나는 광술불밑에서
갈구리같은 화전민의 두손을 잡아주며
허물없이 장밤을 지새운적 있었더냐

오직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실수 있어라
나도 농군의 자식이라며
고향집의 조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신다며
모든 산에서 황금을 파내라고 적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라고 하실 때
무엄하게도 장군님을 미쳐 못알아본 로인이
너무도 감격하여
두손을 합장하고 꿇어앉으며 아뢰었다
그 은덕을 대를 이어 잊지 않겠노라고
그 말씀을 대를 이어 꽃피워가겠노라고

아!
딱딱한 목침을 베시고
잠시나마 눈도 붙이지 못하신채
다음날 장군님은 새벽이슬 맞으시며
해발 1,000메터
구지골 치마대에 오르시였다
태고적부터 광풍이 너무도 세차
풀 한포기마저 볼수 없는
험한 바위산을 뚫아오르시였다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마련해주시려
온 나라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
행복의 열매를 무르익혀주시기 위해

2

어제는
은하리의 새 세대들을
온 나라의 자랑으로 내세워주고

오늘은
《모범보건군》
《지방예산제모범군》의 영예도
척척 안겨준
어머니당의 자애로운 손길이어!

해놓은 일보다
받아안은 그 사랑 그 은덕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뜨거워
내 오늘에야 비로소 깨닫노라
이제야 철이 들어가는 자식처럼

아! 바로 그것이였구나
몸가짜이 두고싶었지만
생소한 두메산골 새 일터로 자식을 떠나보내던
어머니의 말없던 그 속마음!

아! 바로 그것이였구나
옆에 있는 자식의 땀은 헤아리지 못해도
멀리 떠난 자식의 땀은 꼭 내놓았다 주는
어머니처럼
힘겨울 때면 버릇없이 내미는
이 철없는 자식의 두손에
그 무엇이든 죄다 안겨주던 그 사랑!

그때에는 미처 몰랐더라
그 크나큰 신임과 믿음을
그때에는 정녕 다 몰랐더라
어이하여 나를 여기로 보냈는가를

내 이제는
어머니의 그 속마음을 헤아려본다
내 이제는

어머니의 그 다심하신 사랑의 손길을
사무치게 헤아려본다

나는 불멸의 사적이 깃든
영광의 땅을 책임진 군의 주인!

내 이제는
푸르싱싱 자라는 남새밭을 앞에 둔
단층집에 더 정이 가노라
벽계수의 그칠줄 모르는
이 산골의 시내가가
도시의 유보도 부럽지 않노라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에 현실로 꽃피워가는 군의 호주!

내 한생 변함없이
나를 키워주고 믿어주고 떠밀어준
어머니당을 위하여
충성을 바치리 효성을 바치리

아!
력사의 땅 영광의 땅 양덕이어
내 너를 안아일으켜
당의 뜻 더욱 활짝 꽃피우리라
제일먼저 공산주의리상촌으로 일떠세우리라!

나의 사랑
나의 희망
양덕이어!

나무와 잎사귀의 노래

김국용

록음에 우거진 여름의 한낮
오동나무잎사귀 자랑하였네
뿌리야 아지야 너희들 아느냐
달디단 영양소 내가 주는줄

푸르른 잎사귀 자랑 들으며
뿌리와 아지는 대답을 했네
잎사귀야 안단다 너희의 수고
허지만 우리 떠나 너도야 못살아

가벼운 바람결에 춤을 추면서

잎사귀는 해종일 생각했네
남을 위한 헛수고 보람이 무언가
나혼자선 왜 못살아?

비바람 사납던 그날 한밤에
아지에서 떨어진 푸른 잎사귀
한낮의 햇빛에 시들어가며
혼자선 살수 없음을 뉘우쳤다네

아 떨어져선 살수 없구나
뿌리에서 떨어져선 살수 없구나

걸음씨

리재준

갯망건에 두루마기를 입은 량반이 길을 가다가
꽃밭이나 아는 옷마을 혼장을 만났다.

《량반님, 안녕하시오이까?》

《안녕한가?》

《어딜 가시웁기에 벌써 예까지...》

《응, 고을엘...》

그때에야 량반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해는 이제야 동산마루를 갓 벗어나고있었다.

(하아, 량반의 걸음씨가 너무 빨라졌군!)

《임자가 아니었다면 망신할뻔했네구려.》

량반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 자기집 대문에서부터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흔들흔들 량반의 걸음씨로...

웃지 않고는 들을수 없는 량반의 걸음씨에 대한 이 일화는 마을사람들속에서 전해지는 옛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물론 걸음씨는 사람나름으로 다를것이고 직업에 따라서도 갈을수 없다.

소낙비가 쏟아져도 체면때문에 한발자국도 뛰지 않는 《완행》의 걸음씨가 있는가 하면 몇발자국만 뛰면 탈수 있는 빠스를 놓치고 온종일 강걸음을 걷는 《거부기걸음》도 있으니 말이다. 하긴 천천히 걷는 걸음이 의젓하고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정말 그럴것는가?

나는 사람들의 걸음씨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잊혀지지 않는 한 처녀의 모습이 떠오르곤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는가 거두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 직접적 담당자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상래와 일본새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윤성희동무가 신의주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농장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어온것은 몇해 전이였다.

합숙에 배낭을 벗어놓고 리당사무실을 처음 찾아갈 때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달려갔었다.

소조원의 첫걸음을 그는 이렇게 떼였다. 그런데 그후 담당작업반에 나다니는 때도 그는 그 걸음씨를 한번도 바꾸지 않았다. 하루도 아닌 소조사업 전기간을 그 탄력있고 약동하는 걸음씨로 뛰여다녔다.

한때 어디서 난 말인지는 몰라도 윤동무의 걸음씨를 두고 그는 대학의 마라손선수였다느니 롱구선수였다느니 하는 말이 돌았지만 알고보면 그런것도 아니였다.

지난해 봄 분수식발관개공사장에서 양수설비를 설치하던 날이였다. 농장원들은 그날로 시운전까지 끝내자고 욕속 하는데 그러자면 피복선 100여메터가 있어야 했다. 보장부문 일꾼들이 그걸 미처 타산 못했던것이다. 전투장에서 농장원들과 같이 땀을 흘리던 윤동무는 대뜸 자기가 전기줄을 해결하겠다면 현장을 떠났다. 그때는 한낮이 썩 지난 때였다. 40리길을 달려간 그는 군배전부에서 저녁 9시에 출장지에서 돌아오는 소장을 만나 끝내 전기줄을 해결받고야 말았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다. 배전부일꾼들은 아침이면 그쪽으로 나가는 차가 있겠는데 그 차를 리용하라고 권고했지만 발관개건설장에서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농장원들을 생각하여 그밤으로 20키로나 되는 전기줄을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다. 그날 양수기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끝냈을 때는 동녘이 흰히 밝아올무렵이였다.

뿌무개마다에서 썩썩 뿜어올리는 물줄기는 노을빛에 물들어 더욱 황홀하였다. 와와 환성을 울리며 기뻐하는 농장원들을 바라보던 윤동무는 어제밤 있던 일은 까마득히 잊은듯 뿌무개를 살피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압의 세기도 가늠해보고 물량도 알아보았다. 이러는 윤동무의 등을 밀며 농장의 한 일꾼이 이젠 마음놓고 좀 앉아 쉬라고 진정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는 별에 감실 감실 탄 갸름한 얼굴에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소조원이 앉아 쉬면 전진하던 3대혁명도 멈춰설것만 같아요. 호호.》

그는 또 등마루로 달려갔다.

날렵하고 강단이 있어보이는 몸매, 언제나 열정에 넘쳐 빛나는 머루알의 두눈, 가쁜하게 신고 다니는 까만 천편리화...

그는 그 걸음으로 샘골 파수반의 수도화를 위해 20리나 떨어진 대동강변을 몇차례나 오가며 골자재원천을 찾아냈고 마을의 집집을 찾아다니며 이 고장에 흔한 막돌로 현대적 미감에 맞게 울담장을 쌓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늘 시간이 모자라서 속을 태웠다.

군이나 도에 회의에 갈 때도 쓰던 글을 끝내노라고, 혹은 누구와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느라고 제일 나중에야 속소를 나서곤하였다. 그래서 정류소까진 멀지 않아도 그는 뛰여야 했다. 소조기간을 마치고 우리 농장을 떠나는 날마저 그는 담당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판정을 위한 세부계

획을 의논하느라고 늦게야 마을을 떠났다. 뺨스는 벌써 정류소에 다가오고있었다. 처음 올 때처럼 같 때에도 그는 또 뛰어서 뺨스에 올라야 했다.

소조기간을 쉽없이 달리고달리며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을 앞당겨 관철하기 위해 애쓴 윤성희 동무!

얼마전 그가 담당하고 날마다 찾아오던 4작업반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었다. 이날 온 작업반이 명절날처럼 흥성거리는데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가 농장적으로 선찬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게 되는데는 윤성희소조원의 노력이 많이 깃들어 있다고...

참으로 사람들의 걸음씨는 어떻게 형성되는것이겠는가!

한 인간의 성격과 직업을 말하기전에 시대의 요구와 혁명의 전진속도를 생각하며 걷는 그런 걸음씨가 우리에게 필요한것이다.

그렇다. 자기가 걷는 걸음이 조국과 인민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의 걸음씨를 택할줄 아는 사람이다.

천천히 걷는 걸음이 무게있고 점잖다고 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

나는 윤동무의 걸음씨를 놓고 말하고싶다.

우리가 걷는 힘찬 걸음걸음으로 3대혁명이라는 크나큰 기관차의 차바퀴를 힘있게 떠밀어가자고...

단상

휴가길에서

류항모

어깨엔 간출한 배낭하나
가슴엔 복무훈장
고향에 줄 탄부의 선물
너무도 없어 송구했더니

정든 집 방문을 열자
눈부신 형광등
훈훈한 온기
다정한 이웃들 함께 모여와
휴가길을 축복해주는구나

송구해라
군사복무의 나날
표창휴가 받고 왔던 그때도
네가 초소를 잘 지켜
마음놓고 사신다던 어머니

한구들 와르르
과일을 쏟아놓는 누이보다도
펄펄 뛰는 바다생선 지고온 형보다도
나를 반겨 아래목에 손잡아 이끌거니

아, 고마워 고마워
탄부인 내가 뭐라고

내놓는것도 없는 내가 더 반가워
진정어린 진수성찬 차려주는것인가

그렇구나,
탄부의 복무훈장이
고향에 주는 더없는 선물
값높은 막장생활이 없었더라면
이같은 환대 생각할수 있었으랴

내 만일
밝은 불빛 따사로운 열
가만히 앉아 누렸다면
이런 환희 이런 보람 누릴수 없었으리

아, 조용히 더듬는 마음속 생각이여!
그래서 더 깊이
막장길 열어가고싶고
그래서 더 많이
검은금을 캐고싶은 열망이 불타는 밤

나는 빈몸으로 오지 않았네
고향에, 온 나라에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탄부의 선물을 안고왔네

백두에서 판문점까지

-국제평화대행진에 참가하여-

최승철, 오영재, 장해명

민족

최승철

어찌하여 남녘에서 찾아온 어린 처녀를
온 나라가 안아올리며 그리도 환호로 뛸는가
어찌하여 량순한 그 얼굴
먼 빛에 보기만 해도
심장은 울보채고 눈물이 불을 적시는가
말해다오, 진정 민족이란 무엇인가?

세상끝에서 찾아온 팔순로인이
백두산 거친 돌을 눈물로 적실 때
만리길 업혀온 갓난아기의 머리에도
통일행진대의 푸른 띠가 없어질 때
가슴 몽클 찢러오는 생각
민족이란 무엇인가?

어데서 들려오는가
오래고오랜 구슬픈 민요가락
피줄속에, 흙속에 마쳐오는 저 소리
잠뱅이 짚신발들 역새풀후려 날알 뿌리며
소금발 잔등에 아기들을 키우며
먼지구름 헤쳐 달려오는듯한 소리

민족
그속에 한번 태어나면
죽어서도, 하늘끝에 흘러가도

떨어질수 없는것이어
공들여 받들면 영생의 대가정
저버리면 황금을 움켜도 복이 없어
삼복철에도 가슴 얼कु더라

민족이어
너는 죽은 사람도 놓아주지 않건만
살아있는 너는 어찌하여 갈라져 견디느냐
분노는 쌓여 활활 타는 불
피눈물은 모여 강물로 흘렀구나

오, 폭풍우를 안고 날뛰는 바다여
하늘을 찢러쏘는 산악이어
빈다, 너의 무한한 힘을 빌려다오
내 천년목은 느티나무를 뿌리채 뽑아
저 핵이발 으름대는 분단역귀들을
세상밖으로 쫓아내지리

그때 나는
북과 남을 잇는 다리가 되리
온 민족이 고려런방으로 부둥켜안고
목은 설음 통곡으로 씻을 다리가 되리
그러면 몸은 비록 티끌로 날려도
넋은 푸르려 땅위에 무성하리

통일새

너는 검은 세상 음산한 비탈에서
수난자들의 눈물에 눈뜬 씨앗이 아니던가
파쑈의 구두발에, 포차밑에 숨진
렬사들의 뱃에서 나래쳐올랐던가
수륙만리 에돌아온 남녘의 통일새

눈매 초불같은 네 모습에서
우리 가슴쥐고 읽는다, 듣는다
꿈결에도 북행길 허위더듬는
리산가족들의 구슬픈 너두리
몸에 불을 달아 압제를 허비며
숫덩어리로 가드라진 렬사들의 웨침소리

너는 미제의 터럭손에 들쭉처럼 짓궂인
한많은 너인들의 울분이였다
최루탄이 우박치는 항쟁의 거리에서
배밀이, 등밀이로 한치 또 한치 북으로 뚫아오던
청춘들의 불타는 심장이였다

그러기에 금지높은 평양과 온 나라
가슴헤쳐 너를 안았다
눈에 뺨에 입맞추며 불가슴 맞비비며
환호의 절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너를 거쳐 남녘의 깊은 상처를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허나 너는 열광하는 군중에게 받들려
백두산에서 관문점으로 날아갔건만
아, 통분하구나

분단의 삼엄한 장벽에 부딪쳐
깃털 흐트리며 떨어졌구나
지척이던 고향집은 하늘끝에 아득해지고

온 세상이 경악하여 숨을 죽일제
숨막히는 정적속에 너 다시 일어섰거니
인류는 네가 장대처럼 쫓겨 가리키는
무시무시한 그것을 보았다
해골과 포신, 핵무기로 높이 쌓은 장벽
성조기 오만스레 펴럭이는 미제의 요새

코흘리개 아이들도 침을 뱉는다
량순한 너대생의 고향길마저 막아나선
미제의 추악한 교락서니여
놈들은 리념과 제도의 적이기에 앞서
인간, 민족, 인류의 원쑤이거니

통일새여
너와 함께 온 세계가 발굴려 웨친다
-량심과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 뱀의 무리 미제악마리들을
인간계에서 추방하라!

듣는가, 끝없이 메아리치는 저 소리
허드레말은 바람결에 사라져도
너 육신을 던져 행위로 밝힌 참말은
눈비처럼 온 세상에 쏟아지리라,
이 땅우에 침략자가 남아있는 그날까지!

백두산에 모였다

오영재

반갑고 고맙다
바다 건너 산을 넘어
여기 백두산에 모였다
해외의 동포들
5대륙의 친근한 벗들

떨어져 살아도
얼굴색이 다르고 말이 달라도
서로의 뜻이 같을 때

우리는 형제이고 벗이거니
어제날 민족은 비록 흩어졌지만
민족의 뱃은 흩어지지 않았구나
세상에 악은 있어도
정의와 량심의 힘은
더 크고 미덥구나

민족의 량심엔
이렇듯 장벽이 없고

세계의 정의엔
이렇듯 장벽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 누구때문에
한강토 한혈육이
장벽으로 갈라졌느냐

장벽을 모르는 그 마음들이
이 방을 갈라놓은
원한의 장벽을 쓸어버리려
조선의 성산 여기 백두산에 모여

국제평화대행진의 대하를 이루었나니

민족 7천만이 나아가는 길
《전대협》 100만학도가 나아가는 길
평화와 조선의 통일을 념원하여
온 세계가 나아가는 이 길을
분계선철조망이 가로막으랴
파쑈의 총검이 가로막으랴

-7월 21일 백두산정에서-

노래는 올랐구나

《전대협》대표의 선창으로
노래가 울린다
백두의 산정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총련과 재미, 재중, 재소의 동포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5대륙이 부르는 노래

노래속에 떠오른다
투석전을 벌리며
화염병을 던지며
폭압의 저지선으로 육박해가는
남조선청년학도들의 모습

뜨거운 아스팔트길위에 누워
독재타도를 웨치며
열혈학도들이 부르던 노래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민족의 혈맥을 잇자고
백두산으로 가자고
그리도 절절히 웨치던
얼굴들...
피에 젖은 그 얼굴들...

파쑈의 총검에 가로막혀
보고싶고
얼싸안고싶은
그 얼굴들
지금 여기엔 없어도

그 노래는
그 녀은
온 민족의 가슴에 받들려
온 세상의 마음에 받들려
여기 백두산에 올랐구나

-7월 21일 백두산정에서-

《조국통일!》

비는 억수로 퍼붓는데
비옷도 우산도 다 마다하고
길옆에 늘어선 사람들
우리 행진대를 맞으며 손을 흔들며
웨치는 그 목소리
《조국통일!》
《조국통일!》

《조국통일!》

부르며 부르며
절절한 목청들
비물인지 눈물인지
얼굴을 뜨거운것으로 온통 적시며
벌절게 눈이 부어
민족의 아픔을 터치는 목소리
《조국통일!》
《조국통일!》

45년 근 반세기를
애타게 불러온 그 목소리
그래도 그래도 그날은 오지 않아
민족이 피처럼 흘리는 눈물의 목소리

잠자리에 누워도
불러보는 통일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르는 통일
마지막 침상에서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까지
부르며 부르며 간 통일

겨레여
이렇게는 더 못살 우리 겨레여
오늘은 그 눈물을 다 모아보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도 비길수 없으리니
그것을 터뜨려
분계선의 장벽을 밀자

후대들에게 결코
이 고통, 이 아픔을 넘겨줄수 없는
민족의 량심이어

이날까지 우리 웨치던 그 목소리,
무한대한 우주공간도
다 채우고도남을 그 목소리
이제는 하나로 모아 터뜨리자

하여
가슴에 심장이 아니라
차디찬 돌덩이를 박고 사는
통일의 원수들에게
하늘의 벼락을 퍼붓자

아, 비는 억수로 퍼붓는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용
아픔많은 우리 민족이 다 맞으며
비속에 부르며 화답하는 소리
그날까지 그날까지 부르며 갈 우리 소원
《조국통일!》
《조국통일!》

-7월 24일 런던동에서 경기장까지의
행진길에서-

다시 보라, 통일의 원수를

판문각에서
내려오는 계단
이제 몇발자국만 더 걸으면
분계선을 넘어서련만

계단에 밟아선채
더 가지 못해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을 보며
울컥 치미는 눈물을
화강석층계우에 쏟노라

비구름이 달리는
저 하늘을 쳐다보니
민족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고있구나

땅은
아픔에
지진처럼 흔들리고
비에 젖은 판문점마당 북판으로는
강물처럼 피가 흐르고있는것 같구나

불우한 민족

고통받는 겨레여
세상엔 민족도 하찮은데
어찌해
어찌해
우리 민족만이
이런 기막힌 불행을 겪어야 하는가

물어보자
오늘의 지구우에 완화의 기운을 불러왔다고
미제여 네놈이 감히 말했느냐
그 거짓을
인류를 우롱하는 그 허울을
나는 이 눈물젖은 층계우에서
발기발기 찢어
위도와 경도우에 뿌려던지나니

어머니를 부르며
그리운 학우들을 부르며
제 고향 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스물한살 애젊은 처녀

그 가슴을 겨누
저 기관총이 완화란 말인가

연약한 두손목을 묶으려
등뒤에 감추고있는
저 수갑이 평화란 말인가

세계의 량심이여, 어디 있느냐
오라, 너 이 시각엔 번개가 되어
저 기관총과 수갑을 녹여버리라
세계의 정의여 어디 있느냐
오라, 너 이 시각엔 칼이 되어
저 분계선을 끊어던지라

온 민족은
온 세계는
또다시 여기 판문점에서

통일의 원쑤를 똑똑히 보나니

받으라
미제와 괴뢰역적들아
민족의 분노가 불이 되어 달군
《분렬의 장본인》
이 무쇠도장을

받으라
7천만의 손으로
네놈들의 이마와 잔등을 태우며 내리칠
저주와 원한의 영원한 이 락인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백두의 우리소리

장혜명

줄기줄기 산발을 내뻗쳐
이 나라 강토를 한품에 안고
천하를 굽어보는 백두산,
백두산이 우리를 더쳤다

평화대행진의 만세소리에
격려의 함성을 더해주련듯
떠가는 구름을 휘어잡아
절벽에 휘뿌리쳐 던져
우리를 더쳤다

오, 우리소리
번개의 빛발에
창검인양 섬섬히 번쩍이는
천지절벽에서 울려오는 우리소리

내 심신을 가다듬어 듣노니
너 백두야
분렬의 장벽에 허리잘리운채
반백년을 참고참아온
이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더는 못참아 터치는 너의 울분이 아니냐

민족분단의 비극을 그대로 두고선
잠들수 없어, 잠들수 없어
네 산정에 붉은 피로 흠얼어진
항일선렬들의 넋이 자리차고 일어나
절벽을 두드리는 웨침이 아니냐

원통하다 백두여
이 나라에 무겁게 드리웠던
망국의 암운을 깨어던지고

해방의 서광을 비쳐준 백두여
성스러운 네 산정의 우리소리를
민족의 피타는 절규로
강토에 사무친 분노의 웨침으로 들어야 하는
이 가슴에 피가 끓는다

가리라 백두산아
네가 올려준 우리소리를 가슴에 안고
한나산끝까지 우리 가리라
원한의 분계선을 직차버리며-
분렬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오 7천만이 얼싸안을
하나의 조선을 이룩하고
우리 사는 이 행성을
영원한 평화의 보금자리로 꾸리는 그날
네 산정에 다시 올라
우리 마지막 령장을 풀 때

우뢰를 터쳐다오, 백두여
천지의 푸른 물을 휘 끌어올려
광 광 절벽을 치받으며
우뢰를 터쳐다오

줄기줄기 산발을 타고 올라가는
너의 우리소리에서
세계는 통일조선의 환호를 들으리라
그 소리에 렬사들의 넋도
고이 네 산정에 잠들리라
오, 백두의 우리소리여

-7월 21일 백두산정에서-

잠들수 없는 밤에...

우리의 행진대오에는
7월 25일 오늘로서
생후 한달 스무이틀을 맞는
《보람》이라는 아기도 있다

낫설은 타향에 이민으로 팔려간 몸
딸자식만이라도 부디
통일된 조국에서 보람차게 살라고
그래서 《보람》이라 이름지었다는 아기

대양을 건너 수만리
백두를 떠나 연연수천리
내리는 비와 폭양을 다 맞으며
등에 업혀, 팔에 안겨 행진대와 함께 가는 아기

이제 또 가야 할 길을 앞에 두고
아기는 지금 자고있다
창살같은 장마비가 쏟아지는
산기슭 한곶의 젖은 천막안에서

오, 비소리 비소리...
내 가슴을 두드리는 비소리
아기야, 어른도 잠들기 힘든
이 끈끈한 천막안이 너의 잠자리란 말인가

아직은 제 주먹도 빨줄 모르는
너의 이마우에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푸른 띠가 얹혀져야 한단말인가

내리는 비에 옷자락 적시며
치미는 뜨거움에 가슴 적시며
비바람에 쫓겨가는 너의 천막앞에
말없이 고개 숙이고 서있는 나

나는 너보다 한달 앞선 아기를 가진
갓 서른 젊은 아버지
허나 그런 연고의 애무론 걱정때문에
잠 못든다고는 생각지 말아다오

너의 아버지와 나는
갈라진 땅에서 태어난 세대
우리 세대가 아버지로 되었건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통일의 숙원이
이밤따라 가슴저리게 사무쳐서...

통일된 강산에서 너의 삶이,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의 삶이
네 이름처럼 길이 보람차도록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오호,
세대의 사명감과
의분의 맹세가
이 가슴에 끓어올라서...

- 7월 25일 -

신천의 철규

사람들이여
눈물을 거두라
울어야 할 사람들이 울지 못하고
그대들 앞에 서있음을 알라

석달열흘을 울어도

못다 풀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을 담고
오히려 그대들을 위로하고있음을 알라

만약 미국놈을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난것을

수치라고 치를 떨
세계의 선량한 량심들이여

여기 신천땅에는
귀족도 낮을 붉힐
이 살륙참상앞에
상관없는 사람이란 하나도 없다

유리함속의 피묻은 못을 가리키며
마디마디 입술을 깨무는 저 해설원이
머리에 못박혀 죽은
그 농민의 딸일수도 있다

어이 알라 환영의 가두에서
백발의 수염 흘날리며
떨리는 손 무겁게 흔들던 그 할아버지가
400 어머니와 102 어린이 묘에
사랑하는 안해와 귀여운 첫 아기를 묻고
가슴치며 이날껏 홀로 살아온
그날의 그 젊은 남편은 아닐는지...

오, 흠 한삽 파제껴도
도살당한 생명들이
피붉은 두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땅
복수를 위해 그 자손들이
뼈를 자래우고 키가 크는곳

무참히 숨진
한구한구의 시신마다에
미제를 통채로 찢어
제물로 바치기전에는

오, 울수가 없어
눈물로는 이 원한을 풀수가 없어
신천사람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아니라
삼복하늘의 태양도 얼퀴버릴
서리발 웃음이 비껴있거니

신천사람들이
마음놓고 울어볼 그날을 위해
이 지구우에 다시는
조선의 신천이 없게 하기 위해

오오,
터져오르는 오열의 방울방울을
증오의 총알로 빔어 가슴에 재우라
천백배 복수를 갚아달라 웨치는
말없는 신천의 절규를!

-7 월 26 일 신천에서-

남쪽으로 향한 이 길은...

황인섭

남쪽으로 향한 이 길은
겨레를 부르며 새날을 맞는 길
잠을 깬 아이들 떨지어 달릴 때면
《조국》이란 선창에
《통일》이라 대답하며
노래처럼 선서처럼 외우는 그 목소리
출근의 발걸음을 재촉해주는 길

남쪽으로 향한 이 길은
뜨거운 마음들 대하처럼 흐르는 길
선물옷 떨쳐입은 귀염둥이 아이들도
받아안은 행복 나누고싶어
남녘땅 아이들을 노래로 부르는 길
그럴 때면 만사람들 물기어린 눈빛으로
말없이 바라보는 생각도 깊은 길

남쪽으로 향한 이 길은
사람들 마음속에 활짝 열려있는 길
사랑의 구호물자 가득 실은 자동차들
장벽을 뚫고 빨리도 다녀올 때
저리도 쉽게 오가는 길이
그리도 긴긴세월 동강나있었다고
가슴치며 바라본 막지 못할 념원의 길

남쪽으로 향한 이 길은
기어이 오고야말 통일의 길
해를 따라 피여웃는 해바라기꽃들처럼
수령님 따르는 남녘의 겨레들
그 언제나 마음속에 뜨겁게 맞는 길
세월따라 커가는 조국통일 그 열망
꽃피고 열매맺을 희망의 길

소설의 서정미

김홍섭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서와 감정이 열렬하고 적극적일수록 작품의 감동은 더욱 커진다.》

우리 소설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고 감화력과 견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의 서정미를 돋구는것이다. 서정적인 맛이 있는 작품들에서는 형상이 무르익는것을 찾아 볼수 있고 사람들을 감싸주는 미학정서도 풍부하다 는것을 느낄수 있다.

소설의 서정은 과일의 즙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즙이 있는 과일이어야 씹거나 먹을 맛이 있는것처럼 소설에 서정미가 있어야 읽거나 감상할 맛이 있는것이다.

서정성은 시문학의 형태적 특성을 규정하는 기본 징표이기는하지만 그의 독점물이 아니다.

정서는 문학일반에 존재하는 필수적인 중요한 속성이다.

그것은 문학과 다른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이 형상성에 있으며 형상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가 미학적 정서에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상이 있는곳에는 정서가 있기마련이며 형상성이 높은 작품에는 서정미가 높지 않을수 없다.

반면에 형상이 없고 무미건조한 내용이 서술되고있는 작품에서는 서정미를 맛볼수 없다.

하기에 소설에서 서정미를 돋구라는 요구는 본질에서 그의 형상성을 높이라는것이다.

형상이 잘된 장면이나 작품에서는 곱씹어 읽고 싶은 정서적인 맛이 풍부하기 마련이다.

물론 형상화의 숨씨는 창작적 개성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작가에 따라 서정미를 더 진하게 하거나 그를 특별히 가꾸는것을 창작적 특색으로 하는 작품도 있다.

지금 소설을 쓰고있는 일부 작가들속에도 서정미를 두드러지게 살리는것을 창작적 특색으로 하고있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서정적인 소설을 쓰고있는 우리 소설가들의 창작경향을 보면 주인공의 리성보다 감정을 더 깊이 파고들고 서정적 화폭으로 구성을 짜며 구체적이며 감각적인 어휘들로 문장을 조직하고있다.

그렇다고 그런 작가들이 소설과 시의 중간쯤 위치에서 그 량자가 결합된 묘사방식으로 소설을 쓰고있는것은 아니다.

그들도 전개된 묘사로 이야기를 펼치고있으며

객관적인 묘사를 함으로써 소설가로서의 기본자세를 유지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정서미가 특별히 강한 소설을 쓰고있는것이다.

하기에 그런 작품들은 그것대로 소설다운 체모를 갖추고있으면서 고유하고 특색있는 맛이 있어 참으로 좋은것이다.

우리 소설가들을 보면 서정적으로 작품을 쓸뿐 아니라 창작적 개성에 따라 작품을 보다 사색적으로 혹은 지성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창작하려는 지향을 찾아볼수 있다.

이런 다양한 양상의 소설들이 더욱 필요한것이다.

시대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사람들의 지성도가 비할바없이 높아진 현실은 사색적이고 분석적이며 지성적인 소설을 보다 많이 요구하는것이다.

사색적이고 지성적인 작품인 경우도 그것이 잘 형상화되어야 하는것이며 그런곳에서 흘러나오는 사색과 지성은 결코 그의 정서적 미와 배리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상적 사색으로 무르익은 형상에서는 서정미도 고유한 맛이 나게 내포되어있는것이다.

말하자면 사색적인 소설작품인 경우도 형상이 잘된 작품에서는 그의 특유한 맛이 나는 정서가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서정미는 형상성이 높은 작품에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서도 서정미가 특별히 두드러진 소설들도 있는것이다. 서정적인 소설들은 사색적인 소설들과 다른 자기의 장점과 고유한 맛을 가지고있다.

단편소설 《명령》의 성과는 사회적 문제의 의의와 구성의 기교뿐아니라 그의 형상성의 높이에도 있다.

광복거리, 나가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주는 과제가 그것이 조용히 말하거나 대렬을 세워 놓고 엄격히 하달하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명령이라는것을 형상화한데 이 단편소설의 성공의 주요 측면이 있다.

이 성공의 비결의 하나는 나와 실장과의 관계속에 얹혀지는 감정선을 타고 구성을 조직함으로써 일정하게 소설의 정서를 살려낸데 있다.

물론 《명령》은 서정미가 특별히 강한 작품이라고 볼수 없으며 주인공도 정서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없고 남녀간의 애정선도 없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설계시간과 관련하여 주인공

공과 다른 인물들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선을 빼버린다면 작품은 메말라버리고말았을것이다.

아무리 의의있는 문제와 사건조직에 재치가 있다 하더라도 정서가 살지 못했더라면 형상도 살지 못했을것이다.

서정미를 특별히 노리지 않는 이런 소설에서조차도 이와 같이 정서선과 정서성은 중요한 작용을 놓고있는것이다.

이 소설은 어떤 양상의 단편소설이든 감정선을 탐구하고 돌구어야 하며 그것이 없이는 작품의 정서성도 감흥과 견인력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비오는 들에서》(로정법, 조선문학 1989. 1 호)는 농촌의 즐거운 서정적 화폭을 기를지게 펼쳐놓았다. 참으로 해학적이고 서정미가 풍부한 소설이다.

문제성이나 주인공의 성격에는 새로운 맛이 없고 흔히 볼수 있는 농촌의 생활사실을 그리고있으나 웃음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읽게 된다.

그 주되는 이유는 서정미가 풍부한데 있다. 이 작품은 오늘 우리 농촌현실을 서정적으로 깊이 파헤쳤다. 마치 서정이라는 삽으로 농촌생활을 한번 돌아가며 파헤친것 같다.

머칠째 내리는 비속의 농촌정경은 일반적으로 연상하면 을씨년스러울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당의 구호가 현실로 된 랑만적인 우리 농촌현실을 새로운 서정적 안목으로 깊이 탐구하고 정서가 진하게 그려냈다.

메마르고 실무적이고 랑만한 소설에 삶증을 느낀 독자들이 이 단편소설을 즐겁고도 기쁘게 읽게 되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이 소설은 서정미가 단편소설의 인간성격이나 자연생활사실이나 지어 농사일까지도 얼마나 형상적으로 살려내는데 기여하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안해나 덕수로인의 성격이 개성적이고도 매혹적인데가 있는것도 서정적으로 그의 성격을 묘사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농촌에 정을 폭 잠그고 사는 덕수로인의 정서세계는 진실로 개성적이다. 그의 정서적 성격은 실농군의 인생관까지 안겨주고있다.

소설은 오늘 우리 농촌의 자연을 잘 그리고있다. 작가는 맑은 날뿐아니라 비오는 날은 그것대로 좋게 그림으로써 비속에서도 웃음이 넘치게 묘사하고있다.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농촌에서 날이 청청하면 바다가에서 휴식하니 그맛이 좋고 비가 오면 강냉이, 호박이 흙뻑 자라서 좋고 집안에서 돼지를 잡고 노니 그맛 또한 별것인것으로 생활을 정서화, 랑만화하여 그리고있다.

상스럽다고 할수 있을 돼지의 엉덩관을 걷어차

는 세부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있으며 돼지발목에 감기여 뿔혀난 감자포기에 달린 감자알들을 제비알에 비교하면서 흥취나게 그려냈다. 일터로 나가는 아침길도 흥겹게 묘사하고있으며 토끼풀을 뜯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길도 서정적으로 그려 냈다. 꺾꺾웃는 주인공의 웃음으로 단편소설을 끝맺고있는것은 흥겨움을 더욱 돋구어주고 있다.

서정미가 강한 소설들은 흔히 인물성격이나 생활을 랑만적으로 묘사하고있다.

그리고 랑만적인 소설을 보면 대체로 정서가 강하다. 그것은 소설에서 정서와 랑만은 서로 도와주면서 자기자체도 풍만해지기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적지 않은 단편소설들에는 서정미가 없거나 매우 약하다.

단편소설에 맥박치는 기백이 없고 성격묘사에서 감정세계를 파헤치는것이 약하고 심리묘사에서 추상성과 일반성이 많으며 생활사실의 묘사에서 의의없거나 상식적인것이 되풀이되고있으며 문장에 윤기가 없고 어휘선택에서 감각적인것들이 적다.

그러다나니 일부 단편소설들은 읽어도 예술작품다운 맛이 나지 않으며 참신성이 없고 향기없고 심심한 작정이를 씹는 감이 나기도 한다.

단편소설 《민음》(김성원, 조선문학 1989. 2 호)은 오형빈직장장이 민택의 인간됨을 옹게 파악하지 못한테로부터 그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지 못한 이야기들을 쓰면서 신뢰의 철학을 풀고있다.

그러나 예술작품다운 정서적 맛이 적다. 그것은 중요하게 정서선을 똑바로 찾아쥐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되어 있다.

단편소설 구성의 기본이 감정조직이라고 할때 그것은 정서선의 발견으로부터 구성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정서선을 찾아쥐지 못하고 정서선을 돌구지 못하는 소설에서는 서정미를 바랄수 없는것이다.

단편소설 《포착》(리수명, 조선문학 1989. 2 호)은 리당비서 한재영의 비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으며 그가 무현분조장의 사람됨을 새롭게 포착하는것을 예민하게 그리고있다.

작품에 흐르는 정서는 방향한듯하나 기쁨으로 넘치고있다.

그러나 비판을 받고 그 내용보다 무현분조장의 사람됨을 보고 느끼는 기쁨의 감정세계묘사는 어쩐지 허구프다.

이것은 감정미의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그 만큼 생활적 기초가 약하게 묘사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소설의 서정미는 어디까지나 생활에 기초하여야 하며 생활의 진실에 기초한 생활정서를 풍만

하게 그리는데서 돌구어지는것이다. 생활이 주는 정서미를 부각하여야 그것이 진실한 서정미로 될수 있을것이다.

소설의 서정미는 벽찬 우리 현실생활의 진실한 반영문제이면서 작가의 열정에 관한 문제이다.

묘사하는 주인공과 생활에 대한 뜨거운 감정은 작품에 나타나지 않을수 없다. 소설에 굽이치는

기백과 정열적인 문장, 아름다운 화폭의 진한 묘사는 작가적 열정의 구현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서정미를 높이는 문제는 창작적 개성과도 관련되어있으면서도 소설작품의 형상수준을 높이고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재현하며 작가적 열정을 더욱 불타게 하는 문제에 귀착되는것이다.

고향의 저녁노을아

김영근

몇해만이나, 고향의 언덕에 타는 노을아
초소에서 돌아온 이 아들을 반겨
별을 엮은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는
너 상냥한 붉은 손이여

내 이제는 군모밀에 흰오리 감추지 못해도
네가 나를 손잡아
천진한 소년시절로 이끌어가느냐
네속에 울리는 저 프락포르소리에서
저녁마다 놀러 오던
숨박꼭질동무들의 웃음소릴 듣는다

노을아, 또 네가 나를
청춘시절로 이끌어가느냐
준엄한 날 전선으로 떠날 때
나를 바래우며 웃고름만 씹고섰던
그 땡기머리처녀의 얼굴빛을 되새겨주는구나

아, 불타는 전호가에도
비껴오던 노을아
꽃피는 초소의 저녁하늘에
친구들의 기쁜 웃음 그려주던 노을아

지금은 모두
귀밀머리 희었을 나의 동갑들
그들의 청춘이
산과 들에 꽃핀 고향땅을
총잡고 지켜온 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이제
저 회벽하얀 문화주택 창문들을 두드려
그들과 함께 어깨를 결고

붉은 장막속의 들길을 달음쳐가고싶다
분수비 내리는 저 밭이랑에서
한껏 어깨를 적시고싶다

노을아, 타오르는 노을아
이 가슴에 사랑의 불길을 더해다오
전우를 위해 뜨거운 피를 바치듯
그네들이 꽃피운 고향을 위해
내 모든것 아낌없이 바치리

하얗게 꽃이 핀 과일동산에
너를 붉게 물들이리
새들이 우짖는 저 버들방천에서
꿈을 속삭이는 젊은이들 어깨우에
너를 곱게 얹어주리

두루미뎌 날으는 푸른 들에서
그네들과 함께 풍년노래 부르며
손목이 시도록 기계를 몰아가리
아침저녁 너를 바라보며
들에서 땀흘린 얼굴로 멍멍이 바라보리

너의 아름다움 지킴이라면
내 그날의 불비속도 다시 헤쳐가리라
네속에 울리는 프락포르소리
그네들이 바친 젊음을 위해

오, 노을아 하늘에 피운 그네들의 웃음아
너를 더욱 아름답게 피우려고
내가 다시 돌아왔다
어깨우에 고향의 무게로 얹혀졌던 이 별을
한평생 구슬땀으로 빛내이려고

숫 눈 길

박장화

하얀 명주천에 무늬를 놓은듯
눈우엔 드문드문
메세들이 앉았던 꽃잎같은 자리뿐
태고의 밀림은
그대로 흰눈의 바다!-

때로는 무릎에 치고
때로는 허리에 차고...
백두밀림속 숫눈길은
깊은 정적속에
저 멀리 아득한데

아, 저기
칼벼랑밑은 아닌가
피흐르는 가슴 움켜쥐고
추격해오는 원쑤를 향해
투사가 마지막탄환 날리던곳은

한흙의 미시가루를 군량으로
신념의 천리길 다그쳐간 대오
눈보라도 따라서며
투사들의 발자국 덮어주던
그곳은 어디바루?!...

지금은 보이는 발자국 하나 없어도
철의 대하가 흐르는 소리 들려오고
어데선가 작식대너대원들
눈바람을 일쿠며
기빠서 마중오는것만 같거늘

진정, 여기는
인적없는 숫눈길이 아니여라
낮설은 초행길은 더구나 아니여라
우리 먼저 투사들 걸어간곳이기에!
우리 마음 열백번 걸어본곳이기에!

내 마음의 닳은...

김 호

한겨울 찬물속에
손적시며 모를 낸 바다나물
해풍에 얼굴이 타도록
김매주던 정이 스며있어
이 마음 이리도 끌리는것일가요

물에 사는 사람들이야
어찌 알겠나요
은빛 금빛에 물든 바다속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웃는 즐거움
바다나물 자라는 소리 듣는 이 기쁨을...

어찌보면
붉은 테프 줄줄이 물속에 드리운듯
그대로 눈에 부신 구슬떠런듯
해빛을 안고 춤추는 바다나물발

산나물밖에 모르던
산촌의 녀인들
보물처럼 끌어안는
그 마음도 어려있어
네 이렇듯 내게 소중한 안기는것이냐

내 꿈결에도 어려와
새벽잠마저 다 앗아가는
이랑이랑 떼사이를 누벼가는 땀
눈에 띄게 자란
새 모습 새 기쁨으로
내 눈길 붙잡고 놓지 않는 양식장

호수처럼 결코 조용할줄 모르는 바다
바다를 안고
바다나물 가꿔가기에
온 세상이 다 보란듯
파도를 타고 일어서는 이 긍지를
그 누가 앗아갈수 있겠나요

바다를 떠나 한시도 살수 없는
갈매기처럼
너를 떠나 잠시도 못사는
나는 너의 주인

날을 따라 더 깊숙이 내려지는
마음의 닳과 함께
온 나라와 나눌 큰 기쁨을 마련해가는
아, 이보다 더한 행복 나는 몰라...

나의 무전기앞에서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

박재주

뜨거움에 젖어 다가선다
못잇을 옛 전우를 만난듯
걱정에 넘쳐 쓸어본다
진렬대에 놓인 나의 무전기

네앞에 마주서니
병사시절 추억을 불러
또렷이 들려오누나
불먼지 타래치던 전선길
그날에 날리던 전건소리

너는 갔었지 50년 늦여름
땀먼지에 젖은 내 등에 업혀
금천강의 불타는 철교도 넘고
새벽 찬이슬 함께 맞으며
포항땅이 지척인 나지막한 언덕에도

떠난 고향집 멀어질수록
너와 나는 한몸처럼 떨어 못질 전우였다
웁뻗힌 군화끈 풀새없이
이름모를 골짜기에 쪽잠 들 때도
하루밤새 백리를 달리며
험한 바위벼랑 미끄러져내릴 때도

너는 쉬임없이 날렸었지
해방된 남녘의 거리와 마을
달려나와 맞아주고 따라서는
어머니와 로인을 발벗은 아이들
그 환희로운 기쁨도

안동의 포연서린 참호가
원췌의 총탄맞은 항일투사지휘관
몇분간의 생명연장을 부탁하며
최고사령부에 승리보고 드리자던
그 절절한 마지막당부도

너는 부대와 조국을 잇대주는
없지 못할 피줄기였다
불먼지속 헤쳐나는 나의 전파속에
전사들의 소원은 사령부에 전해지고
돌아못을 결사전으로도 나아갔거니

불타는 강을 건너 수십리
결전의 언덕 넘어 수백리
언제나 위훈의 전파만을 날리며
너는 예까지 왔구나

오늘의 건설자 나는 듣노라
애끓던 병사 내 머리엔 서리 없히고
해빛밝은 기념관에 너는 있어도
그날처럼 진함없는 너의 전건소리

준엄한 결전의 그날처럼
오늘도 위훈 떨치며
혁명의 진군길 잠시도 서지 말라고
나를 부르며 이끄는 전건소리
아 병사시절 뉘뻗던 심장을 두드려 깨우누나